금주의 법구–〈아함경〉
의심은 분노의 근본 요인이며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1호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6 1994~2020 (불기 2564년 음력 8월 14일)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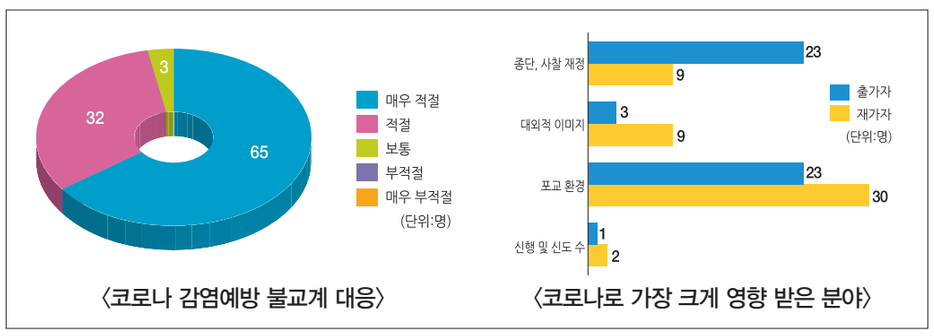


결사(結社) 한국불교의 중흥과 대중의 안녕을 발원하며 시작된 상월선원의 결사는 지난해 겨울 천막서 시작됐다. 차가운 천막의 힘겨움을 견디고 나와 태화산을 걸었고, 인도만행결사까지 아직 길은 멀다. 10월 7일 시작되는 자비순례를 앞두고 상월선원 대중은 매주 목요일에 새벽정진을 진행했다. 코로나 등으로 하 수상한 시절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아마도 깨어 있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본지도 26년 전 역시 한국불교를 생각하고 대중의 평안을 위해 창간했다. 창간 26주년을 맞으며 다시 지령 1호 앞에 선다. 30주년, 100주년까지 아직 길은 멀다. 하 수상한 시절을 공부로 삼아 다시 새벽길에 선다. 현대불교신문도 이제 다시 결사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코로나로 '포교환경 · 재정' 영향 컸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6주년 오피니언 리더 100인 설문

코로나 後 불교 평가 · 방향 조사
교계 언론 최초 '언택트 대담'도
코로나 불교계 대응 '긍정' 평가
가장 영향 받은 분야 '포교환경'
출가자 '법회 중계 · 수행' 중점
재가 '문화콘텐츠 · 법문' 원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포교환경'을 꼽았다. 또한 비대면 법회 · 신행서 주력할 분야로는 불교문화콘텐츠를 꼽았다. 다만,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출 · 재가자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

본지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를 주제로 9월 동안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 교구본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 신도단체장 · 학자 등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출가자 50인 · 재가자 50인)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등 전문가 3인과 함께 불교계 언론 최초로 언택트 대담을 진행했다.

설문에 답한 출 · 재가자 100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뤄진 불교계의 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교계의 감염예방 조치와 관련 응답자 중 65명이 '매우 적절했다', 32명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3명만이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부처님오신날 연기 및 연등축제 취소'에 대한 평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 중 95명(매우 적절 53명 · 적절 42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3명이 있었다. 불교계 코로나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응답자 중 93명(매우 적절 55명 · 적절 38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변화 적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매우 잘했다"고 응답한 출 · 재가자는 20명이었으며,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1명이었다. "보통이었다"는 평가는 39명이 내렸다. 10명은 "못했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온라인 법회에 대한 설문은 출 · 재가자를 나눠 진행했다. 평소 '온라인 법회를 운영했냐'는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 37명이 "하지 않았다"다고 응답했으며, 11명만이 "했다"고 답했다. 2명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부터는 14명이 늘어 25명이 온라인 법회를 운영했다. 재가자의 경우 "온라인 법회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0%(25명)이었다.

이번 설문에서 확인된 것은 방향성에 대한 출 · 재가자의 인식 차이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법회 · 신행 시 주력 분야를 묻는 질문이었다. 비대면 법회 · 신행에서 주력할 분야로 출 · 재가자는 공통적으로 '불교문화콘텐츠(32명)'를 꼽았다. 하지만 출 · 재가를 나눠 살펴보면 차이가 뚜렷했다. 출가자는 주요 법회 생중계(15명)와 명상 및 수행(13명)을 주력 분야로 꼽았으나, 재가자들은 불교문화콘텐츠(20명)와 스님 법문(10명)을 주력 분야로 선택했다. 이는 재가자가 원하는 방향과 출가자가 제시하는 방향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출 · 재가자들은 공통으로 '포교환경(53명)'을 꼽았다. 종단 · 사찰 재정(32명), 대외적 이미지(12명), 신행 및 신도수(3명)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출 · 재가자를 분류해 살펴보면 인식 차이가 컸다. 출가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로 종단 · 사찰 재정(23명)를 꼽았지만 재가자는 포교환경(30명)을 꼽았다.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 신행활동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대면과 대면 신행활동이 병행될 것"이라는 응답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우세할 것"이라고 31명이 답했으며, "비대면이 우세로 할 것"이라는 응답도 21명으로 적지 않았다. "대면으로 회귀한다"고 전망한 응답자는 7명이었으며, "비대면으로 대체된다"는 응답자는 3명이었다. 설문참여자는 2명은 답하지 않았다.

1311호 INDEX

창간 특집 '코로나&불교' A2~3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인 설문 분석

전문가 3인 언택트 대담 A4~5



만다라 인터뷰 B1~2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



시방세계 B3
만행결사 새벽 정진 회향 현장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다음 주 신문 쉽니다.

2020년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개산 1375주년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개산대재 開山大齋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재 알기 체험행사는 비대면 행사로 전환합니다. 경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토)

영축삼보 이운
일시 :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부도원 → 괘불대

괘불헌공
일시 : 10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 괘불대

영축문화공연
일시 : 10월 24일 오후 1시~3시
장소 : 무풍한송로 송수정 무대

문화 학술 세미나
일시 : 10월 24일 오후 2시
장소 : 해장보각





10월 25일(일)

영고재
일시 : 10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 해장보각

부도헌다례
일시 : 10월 25일 오후 2시
장소 : 부도원

개산대재 법요식
일시 : 10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 설법전

괘불탱화 특별전 및 자장율사 가사배견
일시 :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성보박물관





국화장엄
일시 : 9월 26일~10월 29일 / 장소 : 도량 일대

도자기전시
일시 : 9월 26~10월 10일 / 장소 : 명월료

「나도 작가다」 사진 전시
일시 : 10월 10일~25일 / 장소 : 감로당 앞막이

개산대재 문화재 활용사업
108퍼즐 / 컬러링북 나눔
배부일 : 10월 9일~11일, 17일~18일 / 5일간
장소 : 불이문, 삼성반월교 앞

「통도」표지 및 컬러링 전시
일시 : 9월 26일~ 10월 25일
장소 : 일주문부터 사천왕문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이번 설문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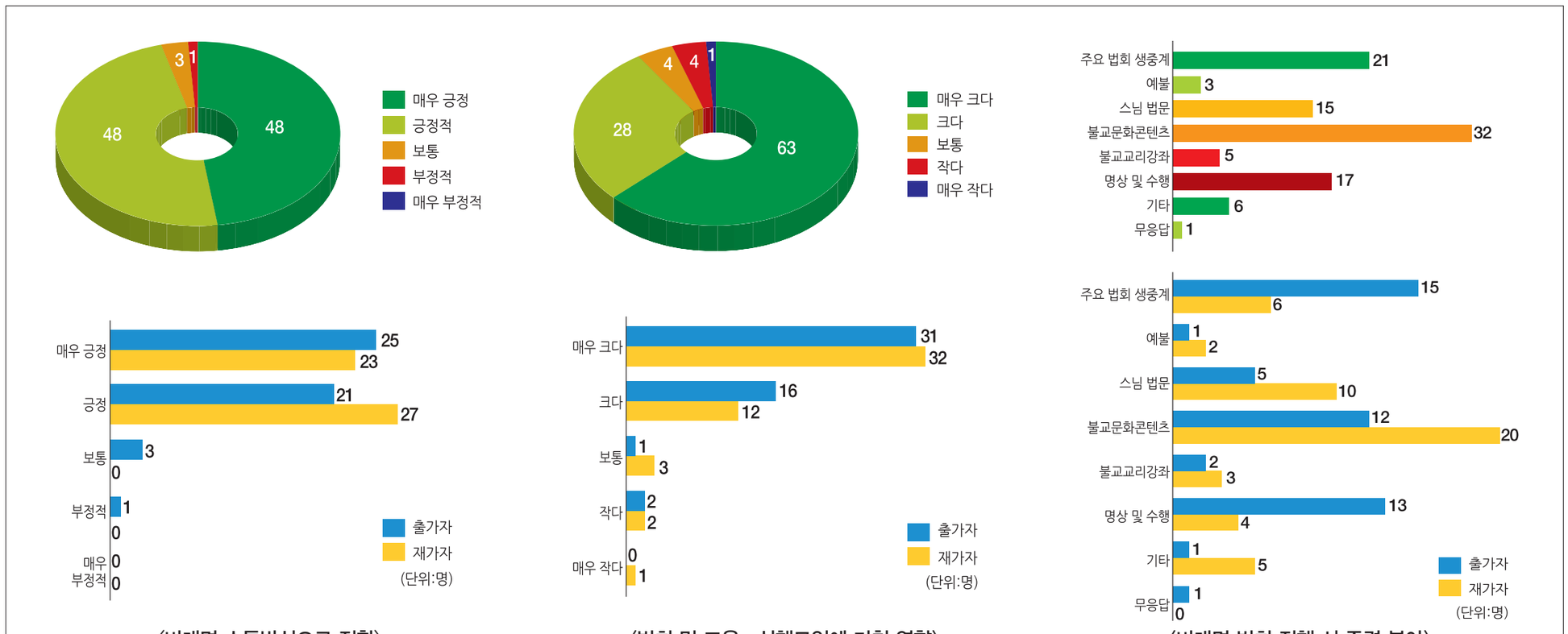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 설문조사는 본지 창간 26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준비와 대안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 불교계는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희생도 감내해야 했다. 그렇다면 정부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불교계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떨까. 또 코로나 사태 이후 불교에 대한 국민인식은 신도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진 사찰은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변화를 고민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법회 등 비대면 전환은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까. 급변하는 시대, 불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에도 아직 불교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나 통계수치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평가와 변화, 대안 등을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인식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설문은 코로나 사태 전후의 불교계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추려내 17개의 객관식 문항과 6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됐다. 본지는 설문을 위해 분야별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선정했으며, 출가그룹 50명과 재가그룹 50명으로 분류해 9월 중순경 2주간 전화와 대면, SNS와 이메일 등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회수율은 100%다.

편집자주



〈비대면 소통방식으로 전환〉 〈법회 및 교육 · 신행모임에 미친 영향〉 〈비대면 법회 진행 시 주력 분야〉

비대면 전환 '긍정적' · 콘텐츠는 미흡…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와 대안은

비대면 포교방식 전환 추세에
전체 응답자의 96%가 '긍정적'
"시대 흐름에 부합" 등 평가해

신도연령 등 사찰격차도 지적
온라인기술 소외 해결 위해선
종단 차원의 포교전략 있어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 포교환경 변화와 종단 · 사찰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불교계가 산문폐쇄와 법회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사찰에 신도들의 발길이 급감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본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를 묻는 질문에, 53%가 '법회 · 교육 등 포교환경'을 꼽았다. 이어 '종단과 사찰 재정'을 꼽은 응답자가 32%로 집계됐으며, '대외적 이미지'가 12%, '불교신행 및 불교신도수'가 3%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특히 전통적인 사찰 신행활동이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점차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했으며, 향후 비대면 시대를 위한 포교전략과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식해 주목된다.

또한 기존 대면 방식으로 납부되던 기도금 · 보시금이 급감하고 사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의 79%가 그 대안으로 사찰신도의 정기회원제 및 기도비 · 보시금의 정기납부 시스템 도입을 찬성해, 코로나 사태가 향후 사찰 운영시스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포교환경 변화 크게 인식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은 출재가 구분 없이 코로나로 인한 법회 · 교육 등 포교환경 변화를 대단히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포교환경 변화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63%가 '매우 크다'를 선택했으며 '크다'를 선택한 응답자도 28%로 나타났다. 응답자 100명 중 무려 91명이 코로나 사태 이후 포교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반면 보통과 작다, 매우 작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9%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사찰 법회가 대면 형태로 지속돼 온 것과 달리, 코로나 사태로 갑작스런 변화를 겪으며 비대면 소통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코로나 사태 전후 비대면 온라인 법회의 진행 여부(출가자 대상)와 참석여부(재가자 대상)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확인됐다.

본지는 이번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을 출가 50명, 재가 50명으로 분류하고 출가집단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전후의 비대면 포교 시행여부를, 재가집단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후 대면 · 비대면 법회 참여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출가집단이 재가집단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의 인식전환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 50명 중 코로나 이전 온라인 법회 진행경험이 있는 경우는 11명(22%), 경험이 없는 경우는 37명(74%), 무응답 2명(4%)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법회를 진행 중인 비율은 25명(50%)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법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스님은 신도 고령화와 비대면 기술의 부재 등을 그 이유로 꼽는 등 비대면 방식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반면 재가집단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사찰 대면법회에 54%(27명)가 참석, 44%(22명)가 미참석으로 답했으며, 코로나 이후 온라인 법회에 대해서는 50%(25명)가 참여, 44%(22)가 미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응답 3%를 제외하면 기존에 정기적으로 사찰법회에 참석해 온 불자들이 온라인 법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또 재가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법회의 수준이나 비대면 콘텐츠의 미흡함을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일부 재가 오피니언 리더들은 온라인 법회에 대해 "단순히 대면 법회를 촬영해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간이 주는 신앙적인 느낌의 부재로 흥미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는 상당수가 종단 차원의 콘텐츠 · 기술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면법회를 그대로 온라인에 탑재하기 보다 온라인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신도 연령대에 맞춘 설법 내용의 변화" "조명과 구도 등 화면의 완성도를 높일 것" "포교 대상의 명확화로 각 타겟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주문했다.

◇비대면 소통 증가는 '긍정적'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은 비대면 포교방식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불교계 비대면 소통이 증가한 데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선사찰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9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48%에 달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48명의 응답자들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스님들은 "비대면이 일상이 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스님들이 이제라도 대중과의 소통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Z세대 포교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바쁜 현대인들이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그 이유를 꼽았다.

재가자들 역시 "젊은 세대 불교인구 확장에 기여할 것" "이미 사회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일상화됐지만 불교는 이를 외면해 오다가,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변화를 맞고 있으니 다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으로 비대면 소통의 증가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컨텐츠 부족이나 사찰간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비대면 소통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상당수 온라인 법회 등 비대면 소통이 불교의

코로나 & 불교

현대에 맞는 불교가치 개발 '1순위'

코로나가 불교에 던진 화두는

전체 응답자 중 31% 선택
전법 · 포교방식 변화 요구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에 던진 화두와 관련해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명 중 31%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을, 21%가 '시대에 맞는 신행프로그램의 개발'을 꼽았다. 특히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출가그룹이 재가그룹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을 선택한 31명 중 스님은 64.5%(20명), 재가자는 35.5%(11명)으로 집계됐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묻는 질문에서 출가그룹과 재가그룹은 다른 지점에 주목했다. 스님들 중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대중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반수에 가까운 스님들(8명)이 수행과 기도 등 승가의 본분사를 강조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 대중에게 다가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의 근본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사태는 대면방식 위주의 포교신행활동이 비대면 형태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응답자들은 또 코로나 이후 오히려 불교의 가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봤다. 생명존중과 상생, 연기사상과 보살행의 실천이야말로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마음치유를 이끄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욕구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가그룹의 경우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라도 옛 방식을 고집한다면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불교의 근본원리를 보다 알기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가그룹이 1위로 꼽은 화두가 '시대에 맞는 신행프로그램의 개발'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마음케어와 힐링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 명상 · 수행의 대중화야말로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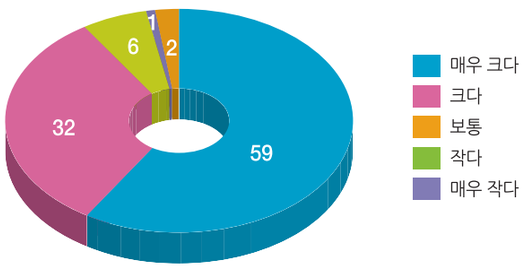
이를 위해 C교수는 "사찰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개인 혹은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신행 컨텐츠를 개발하고, 스님 · 도반과의 비대면 소통 창구를 확대해 대면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법회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신행프로그램은 소규모 형태의 세심한 교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D 스님은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대면으로 이어지던 신행풍토에서 벗어나 이제는 불자들이 각기 삶의 터전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온라인 정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진앱, 수행앱, 온라인 수련회나 신행상담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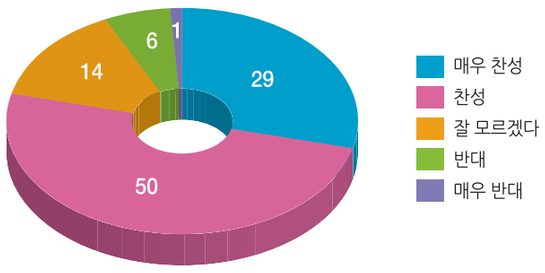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변화'를 선택한 비율도 12%로 나타났다. 법회 방식의 전환 및 영상매체의 적극 활용이 요구되는 만큼, 종단 차원에서 스님과 종사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수였다.

이번 항목에서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도 7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명이 "전부다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다른 문항은 탈종교화 현상의 대안 마련(11%)과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 강화(1%), 사찰 운영시스템 전환(9%), 환경에 대한 관심(7%)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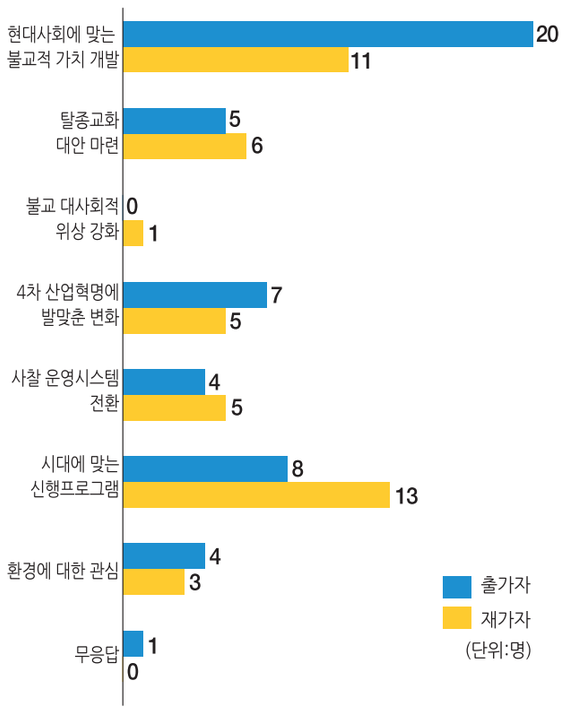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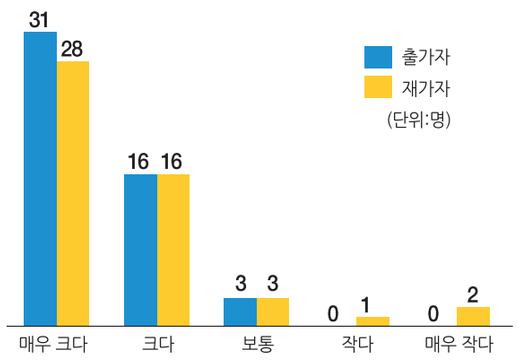
〈코로나가 종단 · 사찰 재정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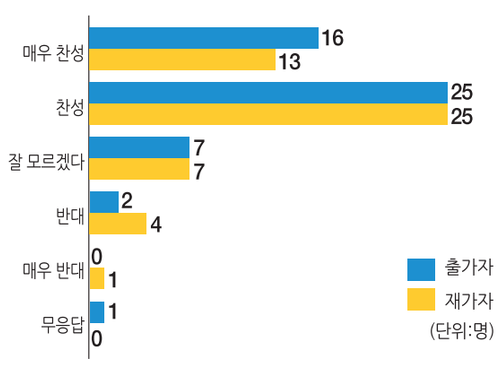


〈회원제 · 정기납부 시스템 전환〉



〈코로나 사태가 던진 화두〉





사찰 정기납부시스템엔 79% 찬성

종단 · 사찰 재정문제 심각성 인식
"코로나로 재정에 영향 크다" 91%
산문폐쇄 · 법회 중단에 따른 여파

안정적 재원수급 위한 대안으로
신도회원제 · 정기납부 도입 관련
응답자의 79%가 찬성 입장 밝혀

가르침을 젊은 세대에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포교 전략과 콘텐츠 다양성의 부재를 미비점으로 꼽았다.

B스님은 "종교적 공간에서 신행적 교감을 통해 신심을 가지는 기존 신도들의 경우, 온라인 법회 등 단순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방식만 전환하는 것은 만족도도 낮고 효과도 적다"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포교방식이 기존신도와 대중들에게 외면받지 않으려면 단순히 시도에서 멈추지 말고 그에 맞는 포교전략 고민과 컨텐츠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을 중심으로 도심사찰이나 규모가 큰 사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신도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사찰 간 편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종단 차원의 컨텐츠 개발 및 제공, 프로그램과 기술에 대한 교육 · 안내 없이 각 사찰의 원력과 상황에 맡기다보니 그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A스님은 "사찰 간 신도연령의 차이도 있지만 사찰 여건상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고 방법을 몰라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종단 차원의 포교전략이나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사찰들이 파생적으로 비대면 소통을 시도하다보니 사찰간 격차가 크고 컨텐츠 다양성이나 퀄리티도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포교방식서 주력분야는?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이 온라인법회 등 비대면 방식의 소통방식 가운데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불교문화콘텐츠(32%)와 주요법회 생중계(21%)를 꼽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사찰의 비대면 소통방식 증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포교전략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과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문항에서 출가그룹과 재가그룹이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전체 1위로 나타난 '불교문화콘텐츠' 항목의 경우 재가그룹 40%의 지지를 받아 1위로 집계된 반면, 출가그룹에서 이를 선택한 비율은 24%에 그쳐 3위로 나타났다. 또 출가그룹의 경우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주요법회 생중계(30%)를 꼽았으나 재가그룹은 12%만이 이를 선택했다.

이는 재가그룹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포교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출가그룹은 기본 대면 형태의 신행활동의 비대면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 가운데 3위로 집계된 명상수행(17%)도 출 · 재가그룹의 인식차가 컸다. 재가그룹에서 명상수행을 주력분야로 꼽은 비율은 8%로 5위에 그친 반면, 출가그룹은 26%가 이를 선택해 2위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출가그룹은 주요법회 생중계와 명상법문 등 불교신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재가그룹은 불교문화콘텐츠와 스님 법문 등 불교대중화와 전법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 재정에 미친 영향과 대안

코로나 사태 이후 종단과 사찰재정도 큰 변화를 맞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반년 넘게 사찰에 신도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데 따른 것이다. 불교계는 올 3월경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종단 지침에 따라 산문 폐쇄와 법회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부처님오신날을 연기하고 법요식을 축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 행사까지 전면 취소하는 등의 결단을 내렸다. 이 시기 전국 사찰에 불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기도비와 보시금이 급감해 사찰운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의 응답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로 불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로 종단과 사찰 재정을 두 번째로 꼽았을 뿐 아니라, 영향의 정도를 묻는 세부질문에서 '크다'고 답한 비율이 91%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크다'를 선택한 비율도 59%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 불교계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작다'를 선택한 비율은 7%, 무응답은 2%로 집계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불교 오피니언 리더의 상당수가 사찰재정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신도회원제 운영이나 CMS를 활용한 기도비 · 보시금의 정기납부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설문 문항 중 신도회원제와 정기납부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79%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찬성은 29%, 찬성이 50%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답을 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대사회에 적합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사찰 재정 안정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 등으로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바쁜 현대인들이 사찰에 오지 않아도 신도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사찰 입장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원으로 포교 및 사찰 운영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한다'를 꼽은 응답자들 중에서는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통해 대면 형태의 신행활동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C스님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소통이 강화되고 대면 소통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찰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람수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보시와 공양 또한 신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신도들이 사찰에 더 오지 않게 된다면 자칫 보시와 기도를 교환하는 거래성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법회의 질을 높이거나 대면 형태의 다양한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찰과 스님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 '반대'는 6%, '매우 반대'도 1%로 나타나 총 21%의 응답자는 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유로는 "기도비와 보시금도 신행의 일부"이며 "편리하고 안정적인 사찰운영에는 이점이지만 사찰 본연의 역할과 종교적 가치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현대불교신문 선정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인

(무순)

▲출가그룹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목우선원장 인경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 불교환경연대 대표 법만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종회의원 혜일 스님, 종회의원 현민 스님, 종회의원 만당 스님, 종회의원 호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해인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원상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교육아사리 금강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비구니연구소장 수경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 비구니종회의원 정관 스님, 비구니종회의원 정현 스님, 광림사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비구니 종회의원 혜도 스님,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 비구니 종회의원 유승 스님, 은유와비유 대표 명법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

▲재가그룹

김윤희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황순일 동국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장재진 동명대 교수, 이화행 동명대 교수, 이미령 북칼럼니스트, 윤재웅 동국대 국어국문 교수, 석길암 동국대 교수,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 고영섭 동국대 교수, 홍승기 석탑경영포럼 대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홍정근 말고향기롭게 사무국장,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 조한곤 파라미타 사무국장, 박영동전 교법사,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창화 민족사 대표,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대표,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상원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안병권 조계종 6교구 신도회장, 이연화 조계종 10교구 신도회장, 이근재 조계종 17교구 신도회장, 이원욱 국회의원,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 김행규 교정인불자연합회장,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김성규 교수불자연합회장, 김화연 교사불자연합회장, 유재환 병원불자연합회장,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 조용석 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 홍경희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김성림 국제포교사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이종현 동산반야회 이사장, 유억근 삼보회 이사장

"전화위복…새로운 아젠다 필요한 시점"

불교계 향한 각계 제언

"불교 본질에 주목해야"
중생구제 · 생명존중 강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불교계 내부에서는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은 '코로나 시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이다. 본지는 코로나 이후 불교계 내부 인식을 파악할 기초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설문으로는 이례적으로 서술항목을 추가해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설문에 참여한 100명의 불교 오피니언 리더 가운데, 해당 문항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79명. 일정한 형태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대중에게 알려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로 귀결됐다.

특히 상당수가 '전화위복,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통에 머물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던 불교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 만큼, 소극적으로 그 변화에 따라가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성과 실천 항목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F 스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종단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응은 보이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종교인 불교가 우리사회에 닥친 우울과 고통을 어떤 형태로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 스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종단 시스템 개선 및 포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했다.

불교계가 뉴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본질인 중생제도에 대한 굳은 신념이 그 토대이자 목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렵고 딱딱한 가르침보다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답할 수 있는 불교교리가 필요하다"거나 "개개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상담과 명상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야 한다" "종교를 떠나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대표적이다.

수행과 포교가 이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포교나 사찰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스님들이 사찰에 앉아 기도하면서 신도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옛 방식보다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포교 · 전법단체나 전문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며 적극적인 포교 행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환경과 기후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대안 제시, 종단과 본 · 말사 등 사찰간 재정구조 개선, 포교 · 신행 확산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전염병 등 바이러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 · 실천적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제는 불교가 코로나 이후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교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범불교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 & 불교

코로나19&불교 언택트 대담

‘코로나 이후 불교가 나아갈 방향’

“쌍방향 설법 · 포교로 패러다임 전환을”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아 불교계 출 · 재가 오피니언 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9월 22일 출 · 재가전문가들을 초청해 온라인으로 언택트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 진행은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대담자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이 참여했다. 불교 언론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언택트 대담은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도 만날 수 있다.

(https://youtu.be/tbnnGQwW0Yc)

대담 정리=노덕현 기자

영상 편집=송현석 PD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보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9월 22일 ‘코로나 이후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불교 언론 최초로 전문가 언택트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은 언택트 대담을 진행하는 본지 김주일 편집국장. 사진= 박재완 기자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김주일 본지 창간 26주년 설문조사를 보면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불교계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역적 대응 그 이상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응철: 불교계 대응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코로나19 정부지침을 잘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대국민 활동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돌이켜 보면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계종 등 주요종단 차원에서 보여준 대국민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치유 등 방향 제시가 필요했고, 나아가 사회운동으로도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사찰 일주문에 출입금지를 써 붙이고 산문폐쇄로 대응하는 것은 기존 신도와 참배객들을 못 오게 하는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법장 스님: 제가 있는 해인사의 경우 초기에 산문폐쇄를 했지만 이후에는 신분 확인을 거쳐 어느 정도 개방도 했습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수륙재와 관련 문화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까지 확산시키지 못했죠. 사찰 입장에서 보면 사찰 출입 제한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느 수준으로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박재현: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 역할이 모두 부족했다고 봅니다. 초기에 산문 폐쇄와 행사 연기 등을 통해 대응했는데, 사실 이는 종교가 추구하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케어나 마음치유, 심리 방역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김주일 종교적으로 마음방역 등에 대한 기구 설치와 같은 대응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응철: 현재 코로나19는 처음 겪어보는 대규모 전염병 발병 사례로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종단, 불교계가 당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정부의 방역정책을 철저하게 준수한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인만큼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종교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면 전화나 E-메일로 상담을 하는 등 대중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사찰은 어려운 이들을 구휼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불교가 국교가 되고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불교는 이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주일 코로나19 사태가 불교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를 묻는 설문에서 출 · 재가 오피니언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바로 ‘포교 환경(53%)’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포교 환경’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라고 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장 스님: ‘언택트’로의 변화는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이 다가왔습니다. 이 같은 시대의 변화를 불교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포교환경 변화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기회라고 봅니다.

2017년 유학을 마치고 해인사에 왔을 때 유튜브로 해인사 승가대학 강좌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보냈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조회수 2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언택트 포교 환경이 빠르게 도래했지만, 이 격변기를 잘 대응해 간다면 앞으로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김응철: 포교에서 ‘법회와 설법’은 가장 대중적인 교화 방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법회라는 기존의 대중교화 방법은 실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인사와 같이 빠르게 대응하는 사찰도 있지만 영세한 사찰들과 신도들이 조직화되지 못한 사찰들은 포교환경이 나빠졌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불교대학도 코로나19 기간 4곳이 폐쇄됐습니다. 그나마 한 곳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사찰에서 불교대학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찰이 유튜브 법회, 예불 중계 등으로 대응하지만 소형, 영세 사찰들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법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출재가 온도 차가 있어 보입니다. 설문을 보면 온라인 법회가 늘었지만, 정작 참여하는 재가자는 적었습니다.

법장 스님: 아직은 온라인 법회에 대해 대중들이 익숙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현: 재가자 오피니언 리더들의 법회 참여가 적은 것은 사찰에서의 오프라인 법회 참여가 적은 것과도 연관돼 보입니다. 달라진 시대에 맞는 법회가 필요합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 총동문회, 신대승네트워크 등에서는 재가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법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법사를 정해서 토론 형식으로 법회가 진행됩니다.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정하고 마중물 법문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러한 대면 법회들이 최근에는 비대면 온라인 법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법회는 대면 법회와 비교해서 정서적 공감이 부족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돼야 합니다.

김응철: 비대면 온라인 법회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인 쌍방향, 즉 ‘법회에서 자기 의사가 표현이 가능하냐’입니다. 저도 중앙승가대 강의에서 라이브 톡으로 강연을 진행하는데 결국 소통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법회에서 쌍방향 소통 실현 여부는 앞으로 깊이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방송으로 편집해 다시 송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온라인 법회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정착될 수 있을 겁니다.

김주일 요즘엔 학원 강좌도 온라인으로 많이 듣는데, 교리강좌 분야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네요. 법회의 경우 스님들의 정서 전달이 되지 않으니 다소 힘들 것이라 봅니다.

법장 스님: 해인사는 초반에 유튜브로 실시간 법회를 했을 때 카메라 앞에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진행했습니다. 너무 인간미도 떨어지고, 정서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의 방송을 참조하여 한 번 더 변화된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을 보며 중계하는 사회자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여 소통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토크쇼 방식으로까지 진행하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주일 역시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대면에서 오는 정서전달에서의 온도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박재현: 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면 접촉을 통한 법회가 주된 방식으로 자리잡고, 비대면 방식은 보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면 접촉을 통한 법회도 한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비대면 온라인을 쌍방향 소통창구로 다시 활용하면 새로운 형태의 법회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주일 비대면 신행활동에서 주력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출 · 재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인식 차를 보였습니다. 출가자들은 ‘법회 온라인 중계’와 ‘명상 · 수행’을 주력분야로 꼽았지만, 재가자들은 ‘불교문화콘텐츠’와 ‘스님들의 법문’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인식 차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박재현: 스님들은 법회의 온라인 중계에서 형식을, 재가자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내용의 변화를 이야기 한듯합니다. 재가자들이 말하는 것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떠나 법회의 법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콘텐츠가 시의적절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대 감각에 맞는 법회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응철: 인사동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설법의 성패도 ‘콘텐츠’로 귀결됐습니다. 재가자들과 스님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재가자들은 의미있으면서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이면서 시대적인 정서도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재가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연구 · 개발은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법장 스님: 출 · 재가자의 인식 차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법회는 부처님 예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인사의 경우 최근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노스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같이 장난도 치면서 야단법석을 여는 것입니다.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법사 스님은 본인의 삶, 수행을 법문에 녹여 젊은 스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넣어 접근하니 법문 내용도 다양해지고 피드백도 늘어났습니다. 불교는 권위의식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더욱 소통하고, 출가자와 재가자가 화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김주일 재가자들은 ‘스님 법문’도 온라인에서의 주력분야로 꼽았는데요. 비대면 온라인 법회에서 설법에 대해 제언해주신다면.

김응철: 설법에는 스토리텔링 설법도 있고 내러티브 설법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도 사리불 존자나 마하가섭 존자가 대신 설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설법을 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했습니다. 형식과 내용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님들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해 못하는 대중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러티브, 즉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 설법은 부처님 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1차 설법 후에는 2차 설법이 필요합니다. 1차 설법을 등한시 하고 2차 설법만 중요시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1차 설법만 중요시하고 2차 설법이 없으면 대중들의 이해도와 호응은 줄어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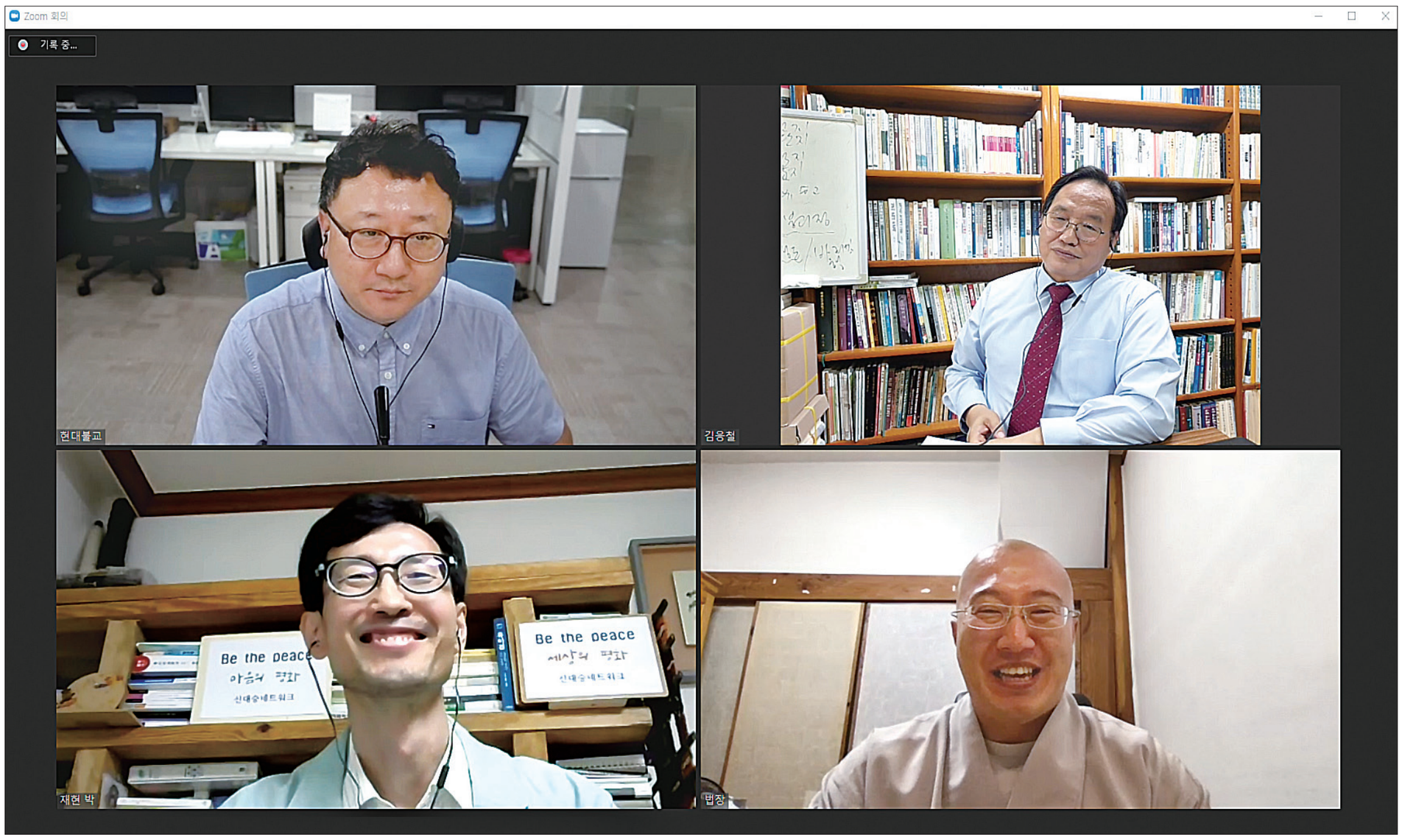
박재현: 저는 상담 형식의 설법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비대면 방식에서는 상담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규모 법회에서는 일방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A5면에 계속

‘코로나 이후 불교가 나아갈 방향’

코로나19&불교 언택트 대담

찾아가는 법회 · 사찰 운영 개방… “소통하라”



현대불교신문사 언택트 대담에는 전문가 3인이 참석했다. 지면 사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한 대담 화면을 캡쳐해 편집한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자인 본지 김주일 편집국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박재현 신대승네크워크 소장.

A4면에서 계속

이런 방식의 법회는 감흥도 없고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법회 방식이 온라인이어도 그 속에서 감동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장 스님: 해인사에서는 안거 법문의 경우 쌍방향 소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진 스님들이 2차로 풀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온라인 환경을 상황에 따라 대중 법회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응철: 불교 경전에서도 부처님 설법 시 못 알아듣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아난 존자나 사리불 존자에게 가서 2차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른 스님들이 법문을 하면 해설을 해주는 2차 설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회는 더욱 2차 설법과 이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주일 **사찰 정기회원제, CMS 등의 도입에 대해 ‘매우 찬성 ·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도입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 부분의 도입이 안 됐을까요?**

법장 스님: 불전 수입에서도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노점에서 옥수수를 사먹어도 ‘알리 페이’로 결제합니다. 한국에서도 삼성 페이, 카카오 페이 등 다양한 전자화폐로 대부분 결제하는 시대입니다. 불교계서 도입이 늦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재현: 회원제나 멤버십 제도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사부대중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재가 신도들은 사찰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들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사찰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인 곳이 많습니다. 사찰 운영에서 신도들의 역할에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김응철: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조차 안 되는 사찰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스님들의 무관심 이외에도 사찰 재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찰 재정이 완전히 투명해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재정이 투명해져야 보시금을 내는 신도들도 이를 신뢰하고 신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절’이라는 마음을 심을 수 있도록 사찰을 운영해야 합니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의 경우 CMS 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800여 명을 넘는데 함께 등산, 축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합니다. 매월 1회 정기 법회도 봉행하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후원회의 자체적인 운영권도 후원회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관습을 버리고 변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박재현: 정기회원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사찰의 소속감 문제와 함께 사찰 재정 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사찰 재정 구조는 불경, 기도, 재(齋)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도회비에 비해 기도 수입이 크다 보니 정기회비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통 방식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운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주일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에 던진 화두에 대해 출재가자들은 공히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을 꼽았습니다. 대담자들께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법장 스님: 불교적 접근으로 본다면 연기법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자초한 것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고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대승적인 실천 행동이 필요합니다. 연기법을 통한 실천, 그것이 현대적 불교 가치 실현이라고 봅니다.

박재현: 사회적 가치와 불교적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 공유, 평등이 사회적 가치라고 보면 생명, 나눔, 돌봄이 불교적 가치라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생명 가치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생긴 사각지대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김응철: 연기적 관점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불교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이는 불교의 5계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김주일 **코로나 시태가 불교계에 던진 화두를 묻는 질문에서도 출 · 재가자들은 소폭의 인식 차를 보였습니다. 출가자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재가자들은 ‘시대에 맞는 신행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이 같은 인식 차의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그리고 재가자들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신행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언주신다면요.**

법장 스님: 단순하게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신도가 주도하는 능동적 참여의 신행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신도들이 주도하고 자신들이 꾸려나갈 수 있는 사찰 신행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재현: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가 실천됐으면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채식을 하는 것, 사회적 나눔과 돌봄에 나서는 것 등에 신행프로그램을 접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무소유나눔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며, 나의 물건을 가져가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줄이고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어서 가능한 감사 인사인 것이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신행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응철: 두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체험 가능한 공감이 앞으로 신행프로그램의 방향입니다. 요즘 문화 치유명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공감하고, 치유로 타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이 과정을 명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근 개인적인 체험 위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명상에 문화적인 기법을 더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주일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에 대면 법회의 방식과 의례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응철: 사찰에서 이뤄지는 대면법회 양식이 축소된 양식으로 집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불교의례’가 그것입니다. 명절 때, 제사 때 불교적인 재로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가정불교의례’를 위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생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면 사찰법회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정불교의례’를 현대에 맞게 만들어 보급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박재현: 대규모의 법회보다는 △찾아가는 법회 △공동체 중심의 법회 △토론과 대화 중심의 상담형 법회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법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구본사에서 법회가 진행된다면 본사 주지 스님만이 법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 세대, 관심사별로 법회를 나눠 소규모이지만 응집력 있는 법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장 스님: 시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소규모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인사는 법회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마애불 법회, 철야기도 법문에 온라인 법회 등 참여 가능한 것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주일 **코로나19 이후 도심사찰과 시골사찰, 큰 사찰과 소규모 사찰, 신도 연령층에 따른 사찰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응철: 포교환경 변화에 대한 생존 ·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도심 포교 사찰이 지역사찰, 농어촌 사찰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도심 사찰은 신도 개인이 대중 속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도심 사찰 신도들이 일부러 작은 사찰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가정법회’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의 자녀가 시골 부모님이 다니는 사찰의 스님과 네트워크를 갖게 되면 하나의 창구가 되어 여러 유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 자체가 포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찰이던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SNS로 소통되지 않는 곳이 없고 자동차가 있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박재현: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소외 현상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사찰 대부분이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코로나가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스님들이 없는 절이 늘고 있습니다.

해답은 불교 공동체성 회복에 있습니다. 저는 사찰을 개방했으면 합니다. 출가자 중심 운영에서 사부대중 운영으로 전환해야 하고, 지역과 공존 공생하는 방향으로 사찰 운영이 전환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도들에게 바른 보시의 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욕망에 기반한 보시가 아니라 진정한 보시는 제대로 쓰고 전법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사찰뿐만 아니라 불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사찰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불교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꺼이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법장 스님: 승가에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 개인 사찰 개념이 없습니다. 승가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꼭 대형사찰과 같이 재와 기도로 사찰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찰은 그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면 그에 맞춰서 사찰 운영도 변화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김주일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우울감이 팽배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불교계는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박재현: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울증이 수십 배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고, 음주도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어려움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계는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에 집중하고, 가진 재화로 나눔과 돌봄을 시행해야 합니다.

종단들은 불교계 명상심리전문가들과 함께 심리적 방역본부를 발족해서 온 ·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찰에서도 스님들이 신도들을 찾아가서 가정방문을 하고 신도들 심리상담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시대의 사찰은 대규모 법회 공간보다는 불자와 국민들이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은 불교계가 개발해야 합니다.

김응철: 전북 진안 도림사에서 특강을 하러 갔는데, 15명이 왔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 법회를 봉행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사찰서 강의를 들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찰이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인연을 다지며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그곳에 보았습니다. 사실 그날 참석한 신도들은 사찰 신도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됐습니다. 강의 내용도 정리해서 신도 커뮤니티에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유대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많이 도움됩니다. 한국불교의 큰 단점은 재가불교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장 스님: 심리적 방역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의 화두입니다. 그동안은 제2의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가 될까봐 걱정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소규모 형태로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치유하는 모임 등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운영하는 전략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선발된 인원을 잘 교육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김주일 **마지막으로 대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코로나 이후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키워드로 정리해주신다면.**

법장 스님: ‘전통과 IT의 조화’입니다. 불교적인 것을 고수하면서도 발전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닙니다. 모든 대중들이 미디어 확장성을 갖고 평등한 구조가 되는 것이 IT입니다. 이를 통해 불교는 대중들을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박재현: 저는 한국불교에서 코로나19 사회에 대한 ‘전략과 방향성 수립’을 꼽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적 토대서 벗어난 사찰 운영’입니다. 무빙템플처럼 물적 토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도량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응철: ‘행복 메시지’입니다. 사찰과 종단, 스님들께서 행복의 메시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불교는 많은 사람들을 이익 되게 한다’는 것을 매일 조금씩 불자와 국민들에게 SNS와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인식시켜줬으면 합니다. 저도 매일 카카오톡으로 ‘행복 메시지’를 보내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을 종단의 영향력 있는 선지식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혜가 갖는 영향력은 향후 종단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정부 · 종교 간 코로나 대응 체계 만든다

불교 등 종교지도자, 정세균 총리와 회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부와 종교계가 코로나19 방역 공조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은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와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언급한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의 첫 회의이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는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대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함께 했다.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향후 논의 결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건으로 상정돼 관련 방역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날 자리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분노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종교계가 주도해 치유해주길 요청했다.

정 총리는 "현재 한국사회는 '코로나 블루(우울)'와 '코로나 레드(분노)'를 앓고 있다. 일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퀘렌시아(Querencia,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물리적 방역을 책임지겠으니, 정신적 방역은 종교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은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와 회동을 가졌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방역협의회 구성… 첫 회의
긴밀한 방역공조 체계 구축
원행 스님 "위기 극복 앞장"
丁 "종교, 마음방역 주도를"

이어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 확산 방지의 중대한 고비"라며 "종교계가 방역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종교지도자를 대표한 모두 인사를 통해 종교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종교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했다. 하지만 일부의 종교단체로 인해 감염 확산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은 우리 종교계의 인식 전환과 각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 종교계가 앞장서서 방역과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고 때로는 서로 경책하고 조언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당국에서도 종교단체를 단순히 자제와 제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방역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공동의 실천을 해나가는 주요한 동반자로서 인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안하며 "종교지도자들은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에 협력해 종교가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체를 이끌게 된다.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5일 개원

9월23일 연석회의서 결정
종정감사는 문건 대체키로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다루는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제12차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연석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정감사를 수검자료 제출로 대체키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종회의 연수 일정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양평 일원서 개최하기로 결의 했다. 특히 일정 중에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중흥 국난극복 자비순례'에 함께 동참키로 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사찰 전기요금 한해 78억원 '폭탄'

조계종, 전통사찰 전기요금 전수조사 발표

81개 사찰 납부 총액 78억원
연간 평균 납액 9700여 만원
전각 대부분 '일반용' 적용돼
"전통사찰 · 문화재용 신설돼야"

한국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중 불교문화재 비율은 56.4%이며, 보물 내 불교문화재 비율은 65.3%에 달한다. 이들 불교문화재가 보존 · 관리되는 주요한 장소가 바로 전통사찰이다. 사실상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준공공시설이지만,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로 매년 '요금폭탄'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삼혜)은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주요 수말사 등 81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소속 81곳의 전통사찰은 지난 2019년 한해동안 78억 4000여 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사찰별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9700여 만 원에 달한다. 2018년 기준으로 967개 전통사찰이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백여 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에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행 6종 요금체계에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용 △심야용으로 나눠 부과하는데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이 다르다. 가장 비싼 요율을 적용받는 것은 일반용으로 kWh당 판매단가가 130.33원이며 산업용이 106.56원, 주택용이 104.95원, 교육용이 103.85원, 농사용이 47.74원이다.

문제는 전통사찰에 가장 비싼 '일반용'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81곳 전통사찰의 전기요금을 계약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비율은 76.4%에 달한다. 전각 및 요사채, 주차장, 매표소, 템플스테이 체험관 등 대다수의 사찰 전각과 공익시설 물들이 일반용 요금을 부과받고 있다. 교육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성보박물관은 17곳만이 해당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조계종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전통사찰용'이나 '문화재용' 전기요금체계를 신설하거나 전통사찰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할인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 전기요금체계에서 비교적 저렴한 교육용 요금 적용 대상에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호 · 관리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승환 조계종 기획차장은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할 경우 20% 가량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정부와 국회 등에 전통사찰의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등도 전통사찰이 있는 만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의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도후 · 지명스님 원로의원 '선출'

대종사 21명, 명사 2명도 법계 심의 의결

조계종 원로회의는 9월 25일 64차 회의를 열고, 신임 원로의원에 도후 스님과 지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성, 대원, 지원, 도후, 인보, 성웅, 지호, 현근, 허정, 무공, 자광, 성법, 원택, 혜총, 흥교, 인각, 지은, 도명, 성림, 무애, 도영 스님 등이 대종사 법계를 받으며, 비구니 일연 스님과 지형 스님이 명사 법계를 받는다.

이번에 원로의원이 된 도후 스님은 2018년 입적한 무산 스님의 후임으로, 지명 스님은 임기 만료된 월탄 스님이 후임으로 각각 중앙종회에서 추천됐다.

도후 스님은 1968년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재적본사는 신흥사다. 1968년 신흥사서 사미계를 1974년 법주사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제 백담사, 고성 건봉사, 철원 심원사, 양양 낙산사 주지 등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규정부장, 불교신문 주간, 불교방송 이사장, 춘천불교방송 사장, 제12 · 13대 중앙종회의원 등 다양한 소임도 역임했다. 특히 스님은 2006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섰다.



도후 스님



지명 스님

지명 스님은 前조계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2년 금산사에서 용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범어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종교학과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청룡암과 의왕 청계사, 괴산 각연사 주지를 맡았으며, 제9, 12, 14대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또 법주사 주지를 맡아 교구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원로회의에는 전체 원로의원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 예방에 만전이 기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 신도역량 결집 활동 추진"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임명
원행 스님, 신도결집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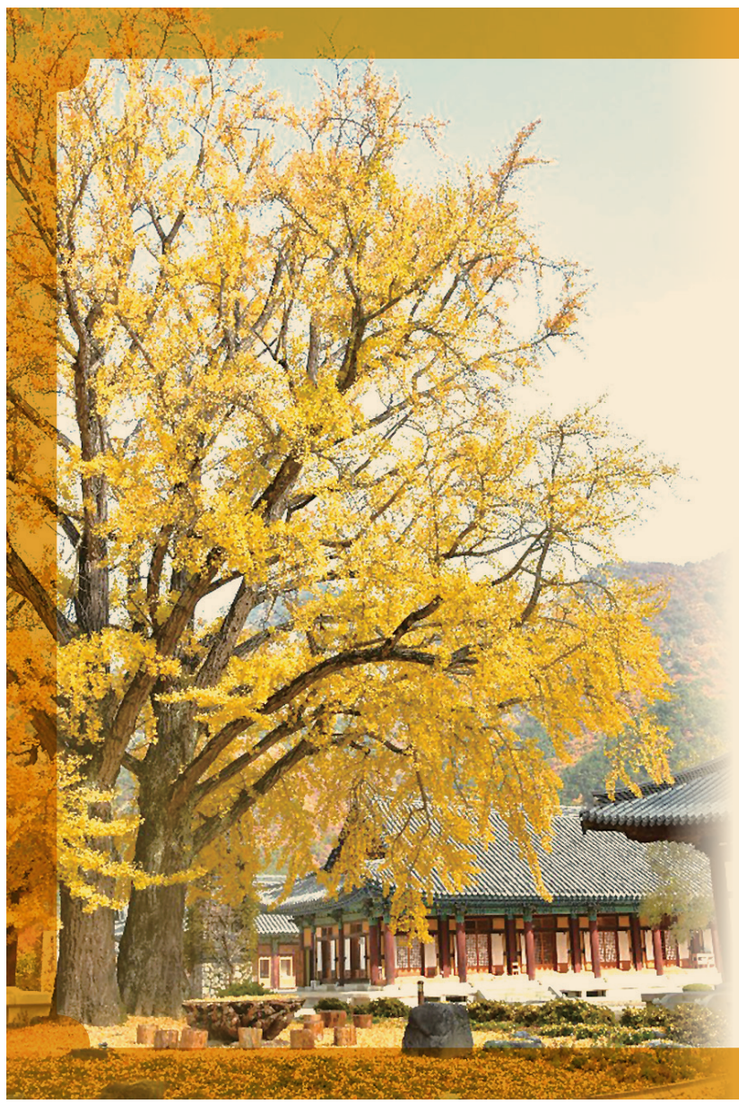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이 첫 취임 포부로 신도 역량 결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 직후 원행 스님은 "전임 회장이 8년간 열심히 이끌어 줬고, 후임으로 덕망 있는 분이 맡아줘 종단으로서 큰 복"이라며 "앞으로 스님과 신도간에 가교 역할을 통해 종단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부족하지만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명식후 주 신도회장은 "신도들이 함께하는 신도회를 만드는 계기를 찾겠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전국의 신도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활동을 갖고 중앙신도회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들께 알립니다

제49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취소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중한 추억이 서린 우리들의 운문도량에서
매년 선·후배스님들을 모시고 총동문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선·후배스님들을
가을향 가득한 도량으로 초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운문인들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그리운 마음을 모아 내년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과 동문회비는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총동문회 회장 **운아스님** (010-3846-3217)
신임 총동문회 총무 **희상스님** (010-4200-5082)
신임 총동문회 재무 **우연스님** (010-5367-6391)

동문회 계좌번호 : 농협 351-0819-3700-43(운문사)

문의 : 054-370-7100 (운문사 종무소)
054-372-8800

불기2564(2020)년 9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일지 합장

6대 종교, 기후비상사태 극복 나선다

종교환경회의, 종교인 기후행동 선포식

9월 22일 소태산기념관서 "대전환 희망 계기" 발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6대 종교인들은 9월 22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2020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하고 종교인 기후행동을 선언했다.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확산되고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6대 종교계가 이같은 상황이 범지구적인 비상사태임을 선언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를 비롯해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대 종교인들은 9월 22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2020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하고 종교인 기후행동을 선언했다. 종교환경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불교기후행동 대표 미광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기후위기를 대전환의 희망으로' 제하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행동과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정부가 근본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각 종교가 교리에 근거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실천을 통해 큰 변화와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지구적으로 닥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공유했다. 종교인들은 기후위기 비상사태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해양생태계 붕괴,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 대규모 산불과 가뭄, 강력한 태풍과 폭우 등 이상기온현상을 꼽았다. 또 토양이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확대돼 농업생태계도 위기에 처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은 물론 기후 불평등으로 인한 수천만의 기후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계변화의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물질적 경제성장이 인류의 발전을 대표해서는 안되며 자연의 유한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두가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아 서로를 살리는 사회적 관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며 모든 생명들이 평등한 존재로서 그들 고유의 권리가 존중되는 관계로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항목으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확립 △생태적 정의를 세우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행동 등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대전환의 희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종교인들은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우울한 파국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해 희망찬 세계를 향한 밝은 기회이며, 굴절된 삶을 올곧게 펴는 거대한 전환의 계기"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규범과 지침을 만들어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 힘을 모아 전 지구적인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및 총체적인 범국가적인 대응기구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지도자들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선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원행 스님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발원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 선언이 개개인의 실천으로 확산돼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봉암사서 '간화선 대법회' 열린다

참선지도자協 1차 총회 수좌복지회와 진행 협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제1회 총회.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대중화하기 위해 내년 문경 봉암사에서 '간화선 대법회'가 봉행된다.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는 9월 14일 참불선원 2층 카페에서 제1회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계획들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열린 이날 총회는 투명 아크릴판 설치,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가 진행한 제4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 보고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된 명상대강좌에는 107명 정원 마감 후에도 추가 신청이 이어지는 등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었다.

이어 11월 20일~22일에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명상포럼 해인사 집중수행'과 선(禪)명상지도사 1급 자격 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내년에 봉행되는 '제4회 간화선 대법회'에 대한 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조계종조 도의국사 간화선 전래 1200주년 기념 및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과 함께 진행되는 '제4회 간화선대법회'는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에서 7일동안 진행된다. 봉암사 개산 이래 7일 동안 산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간화선 선지식 7명이 법사로 나서며 6박 7일의 특별집중수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제4회 간화선 대법회' 기획안을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영진·일오)의 추인을 받은 후 수좌선문화복지회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제1회 총회에는 이사장 의정 스님, 회장 각산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선법 스님, 대승사 한주 정과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 BTN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 이용태 한국총명상협회 운영위원장, 김순철 참선아카데미 동문회장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반도 평화 위한 1억명 서명캠페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1억명의 뜻을 모아낼 국제적인 서명운동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지도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해 눈길을 끈다.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명예대표 원행) 운영위원회는 9월 22일 유튜브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채널을 통해 전세계 1억명 서명 동참을 호소하는 7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상을 일제히 공개했다. 원행 스님은 해당 영상에서 "한반도 종선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손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종교인 모두 평화로 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한·일 장애인불자, 詩로 세상과 만난다

보리수아래, 11월 20일 〈바다건너~〉 출간 예정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불자들이 장애와 국적을 뛰어넘은 시적 감수성으로 세상과 만난다.

문화를 사랑하는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한국·일본 장애시인들의 시를 담은 공동시집 〈바다건너 우리 만남은〉 출간계획을 밝혔다. 2020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집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양국 언어로 번역돼 11월 20일경 출간될 예정이다.

공동시집에는 한국과 일본의 장애시인 8명이 직접 써내려 간 시와 글 42편이 실린다. 각국 시인들의 진솔한 삶과 감성을 담아낸 시들은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돼 공동 수록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김소영(지체장애인), 장효성(지체병변장애), 유재필(지체장애), 정상성(뇌병변장애), 홍현승(뇌병변장애), 최명숙(뇌병변장애) 등 보리수아래 소속 시인들이 참여했다. 모두 시를 통한 사회적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시인이자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시인은 우에다 시케루(척수소뇌변성증), 호리에 나오코(뇌성마비장애) 등 2명이 참가했다. 우에다 시케루 씨는 소설가이자 시인, 작사·작곡, 피아노 연주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문화인일 뿐 아니라 자신의 투병기를 비롯한 수권의 저서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켜 온 대표적인 인물이며, 호리에 나오코씨는 개인시집으로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유명시인이다.

보리수아래는 매년 아시아국가 한곳을 선정해 장애인공동시집을 발간해 왔지만, 이번 한일 공동시집은 추진과정부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부터 발간을 준비해 왔지만 국내 반일정서가 확산되는 등의 상황에서 한차례 연기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일본 장애시인 섭외는 물론, 공동시집 발간을 위한 활동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던 중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화가 코마츠 에리코·김동욱씨 부부가 일본작가 섭외와 번역 등에 적극 나서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발간 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아시아장애시인공동시집은 장애시인들에게 작품 발표 및 문화예술 활동의 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까지 이어가는 유일무이한 사례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올해 공동시집은 참여시인들 모두 작품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시인들인만큼 모두에게 더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포교사 선발·기념식도 비대면으로

9월 19일 포교원·국제포교사회 '언택트 행정' 눈길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이 포교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19일 '불기2564년 제14회 전문포교사 선발'을 온라인 화상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포교원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 면접.

이날 온라인 화상면접에는 신행지도,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3개 분야의 서류전형을 통과한 85명이 응시했으며, 대면방식 때보다 더욱 활발한 자기소개 등을 진행했다.

포교원은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화상면접을 앞두고 응시자들의 적응을 위해 2일 전부터 사전 조율을 거쳐 면접을 진행했다. 84명은 화상 면접을 소화했으며 1명은 개인사정으로 영상통화로 면접을 진행했다. 제14회 전문포교사 합격자는 10월에 발표된다.

포교원 측은 "포교국장 회의 등은 진행했지만 포교사 선발과정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방식"이라며 "면접자들이 오히려 긴장감을 덜고 편하게 응시했다. 앞으로 다양한 선발, 자격고시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도 전법회관에서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창립 22주년과 사단법인 문화나눔 6주년 창립 기념법회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敎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김갈수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원
종의회부의장 김세운·김우영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주 소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 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홈페이지 www.cheontae.org

통도사, 세계 최대 한지불화 불사 추진

9월 19일 불사 계획 및 사전제작 대형한지 공개

가로12m · 세로24m 규모
한지 불화로는 세계 최대
옻칠로 장기 보존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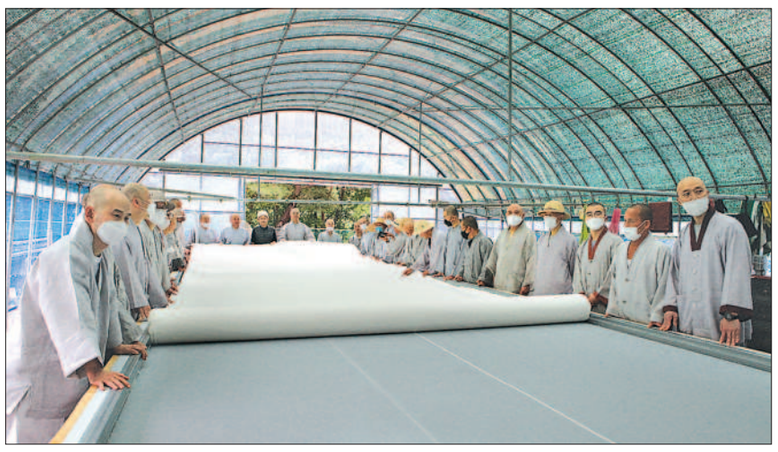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한국불교 불화의 가치를 높이는 한지불화 불사에 돌입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9월 18일 서운암에서 방장 성파 스님의 세계 최대 한지불화 추진 계획 및 사전제작한 대형 한지를 공개했다.

성파 스님은 1983년부터 한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 때 금니 사경을 감지(紺紙, 푸른 쪽빛을 여러 번 물들여 남색에 가깝게 제작한 종이)가 아닌 흑지(黑紙)에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감지 제작에 나선 성파 스님은 한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전국을 수소문해 한지장인을 초빙했고 3년 간 서운암에서 한지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

성파 스님은 "한국불화의 소중함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스님은 "불교 미술이 한국 미술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한국 미술의 가치는 원시 시대부터 불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서양미술사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불교 탱화는 8세기부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우리나라 불화는 세계 속 최고 작품이자 가장 오래된 예술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통도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대형 한지에 옻 물감으로 불화를 그릴 예정이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대중들이 9월 18일 서운암에서 직접 제작한 대형 한지를 공개하고 있다.

불화불사를 위해 통도사는 불화불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화 완성 후에는 별도의 상설 전시실을 마련해 대중에게 발표한다.

이날 한지불화 추진계획 공개에서는 사전 제작된 대형 한지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한지는 가로 3m, 세로 24m의 대형 크기다. 한지불화는 대형한지 총 4장이 사용돼 가로 12m, 세로 24m가 된다. 대형 한지는 비단으로 배접한다.

한지제작에는 성파 스님의 모든 노하우가 발휘됐다. 이번 한지는 성파 스님이 창의적인 기술로 만든 걸작으로 한지 제작 기술인 외발뜨기와 쌍발뜨기 방식을 응용해 대형 한지 제작 틀을 만들었다. 과거 한지는 물이 빠지는 널빤지를 위로 들어 올려 닥나무와 천연 닥풀을 얇은 두께로 남기는 방식이었다. 성파 스님은 물이 아래로 빠지는 대형틀을 제작했고 그 위에 물을 먼저 받은 후 한지 원료가 되는 닥풀과 닥섬유 등을 부었다. 성파 스님이 오랜 경험으로 적절한 원료 배합을 찾을 수 있었고 한지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았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통도사의 불사로 인해 한지불화가 한국불교문화를 세계 속에서 다시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임명

원행 스님, 25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주지에 등운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신임 주지 등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사진〉 등운 스님은 같은 날 고운사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임명장 전달 직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본사 소임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잘 화합하여 고운사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등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처럼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과 잘 화합하여 고운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고운사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등운 스님은 9월 22일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자격심사에서 '이상 없음'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스님은 주지 후보로 당선 직후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정견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다"며 "최선을 다해서 교구에 수행가풍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운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사미계를, 198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칠불사 운상선원, 고불총림 선원, 부석사 봉황선원, 조계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삼보사, 서악사, 연미사 주지 및 제15~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생명 위한 대사회 역할이 본분"

[인터뷰] 심산 스님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신임 본부장)



"생명나눔실천 활동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생명을 위한 대사회적 사업'입니다. 생명을 위한 실천과 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신임본부장에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심산 스님은 생명나눔실천에 대한 가치를 생명보호와 존중에 두고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14년 동안 전 본부장이신 원범 스님이 모범이 되어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역할을 이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흥법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영유아 행복드림센터, 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해 협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재능기부 후원단체를 설립한다. 재능기부자들은 한의사, 호텔 CEO 등 사회 지도자로 행사 및 환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산 스님은 현재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 회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본부장, 금정구자원봉사센터 대표이사 등을 맡아 국내외 봉사 및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극락왕생을"

9월 25일, 부산 안국선원서 이막달 할머니 천도재 엄수



불자인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 천도재가 9월 25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엄수됐다.〈사진〉 이막달(97) 할머니는 지난 8월 29일 부산에서 영면에 들었다. 천도재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과 주지 석산 스님 및 영가 가족,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막달 할머니는 1923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7살이었던 1940년 일본인에게 속아 대만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으로 피해를 당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할머니는 2005년 정식 피해자로 신고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 참가 등 피해증언 활동을 펼쳤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과 이막달 할머니와의 인연은 수불 스님이 직접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수불 스님은 2015년 대원상 포교대상을 수상하며 상금을 나눔의집에 기부했다. 기부를 위해 나눔의집을 방문한 스님은 부산에도 피해자 할머니가 있음을 알고 그해 12월 이막달 할머니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때 스님은 불자인 할머니를 위해 사후 천도재를 약속했다.

수불 스님은 "할머니가 불자셨다. 자손들도 효자였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별세 하신 후 가족들이 연락을 줘 이렇게 천도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머니가 용기를 내 일본의 만행을 알린 것은 다시는 위안부와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개산 반야사, 사랑의 백미 나눔 눈길

창원 화개산 반야사가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며 백미를 소외이웃에게 전달했다. 조계종 화개산 반야사(주지 혜명)는 9월 24일 경내 법당에서 '사랑의 백미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주지 혜명 스님을 비롯해 경문 스님, 장동성 내서읍 읍장 외 신도회 임원 10여명이 동참했다. 쌀은 봉화군에서 재배 된 햇쌀 10kg 100포(300만원 상당)이며 내서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후,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 될 예정이다.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은 "모두 함께 마음을 내고 정성을 모았다"며 "독거 어르신들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고 풍성한 한가위로 행복한 시간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의 맛, 공양주가 전해요

화엄사 산사의 밥상 개강식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사찰에서 직접 음식을 배우는 '산사의 밥상'이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21일 기존 공양소 옆에 사찰음식체험관을 새로 개관하고, 산사의 밥상 11기 강좌 개강식을 개최했다.〈사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화엄사 사찰음식 강좌인 '산사의 밥상'은 전국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도 높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도 4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려 그 인기를 실감했다.

자연 먹거리가 중요시 되는 시대를 반영해 30년간 공양주 소임을 맡아온 마하연 교수의 '산사의 밥상'은 특별한 이력을 지닌 것만은 확실하다.



강사로 나선 화엄사 공양주 마하연 교수는 "공양주 30년 세월의 역사가 담겨있는 시간이다. 이 장소를 만들어 주신 화엄사에 감사드린다"고 전통사찰음식체험관 개관에 대한 말을 연 뒤 "산사의 음식은 별도의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철음식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좌는 이날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총 10회의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내용 또한 사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사찰문화에 맞게 조리하고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한편 행사에 앞서 개관한 화엄사 사찰음식체험관은 전체 203.13㎡(61.45평)으로 작년 9월 착공해서 올해 8월 준공됐다. 내부에는 10개의 조리시설과 영상장비 등이 완비되어 있다. 양형선 광주전남지사장



월산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을 9월 21일 경내 무설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과 관장 종상 스님, 문도, 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월산 대종사의 유훈을 기렸다. 월산 대종사의 육성 법문에서 "체(體)와 용(用)은 허공과 같아 둘다 여의지 않고는 중생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국불교승가회, 심장병 환아 돕기 나서

대한국불교승가회가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해 훈훈함을 전한다. 대한국불교승가회(회장 성보)는 9월 23일 경남 창원 불광사에서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및 무연고자 장례 의식 후원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보경사 석산 스님, 수선암 성산 스님 외 종단스님들과 교통봉사대 신도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성보 스님은 "함께 뜻을 같이 모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며 "자비심 가득한 마음으로 불국정토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인효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지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과 모든 단체가 힘든 시기에 승가회 스님들께서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교구 대종사 재곤스님 등 추천결의

고창 선운사 교구종회 9월 23일 개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2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9월 23일 선운사 템플스테이 심우당에서 열린 이번 교구종회는 개암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장사 주지 지태 스님,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등 교구종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구종회는 교구 대종사 추천의 건, 고창불교회관 현황 및 운영방안의 건, 선운사 불사진행 현황보고, 전북 남부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설립 추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

주요안건인 교구 대종사 추천의 건은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재곤 스님, 혜산 스님, 대우 스님, 범여 스님, 법현 스님을 추천하기로 추인했다,

고창불교회관 운영방안은 불교회관 건물 준공 후 운영 중인 갤러리, 북카페, 명상실, 스터디 카페, 고창 시니어 클럽 등의 운영현황 보고와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토의로 이어졌다. 이어 고창불교회관의 원할한 청소년 포교사업추진을 위해 전북 남부파라미터 청소년협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경우 스님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교구본사는 물론 말사 주지스님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구 대중스님들의 협조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교구의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교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식 커밍아웃 日성소수자 스님 '화제'

니시무라 코도 스님, 평등사상 재조명

사찰 주지 2세대로 태어나
어린시절 성적지향 깨달아
"중요한 것은 불교의 평등"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박영빈 객원기자


성소수자 당사자이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활동하는 코도스님. 사진출처=리얼 사운드

성소수자를 금기시하고 배척하던 풍조가 완화된 현대. 불교계를 비롯한 각 종교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교리적 해석과 교육, 접근방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스님이 화제다.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공표한 니시무라 코도 스님이다. 지난 9월 12일 일본의 인터뷰 전문지 '리얼 사운드' 는 코도 스님과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코도 스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는 걸 인지했다. 스님은 "집이 절이다보니 보자기나 원단이 창고에 가득했다. 그걸 드레스처럼 몸에 감거나, 머리에 쓰곤 했다"며 어릴 적을 회상했다. 스님은 "12살에 욕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화장을 했던 게, 생애 첫 화장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스스로를 억압하고, 주변의 조롱 속에서 고통 받았다. 스님은 "지금도 종종 보이지만, 어릴 적 TV프로그램에서 남성이 여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학교에서 조롱을 당할 때 마다 TV속의 내용들과 겹쳐져 내가 나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학우들의 시선이 당시엔 굉장히 무서웠다"며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반발심에 스님은 고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예술대학으로 진학해 메이크업 아트를 공부한 스님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리고 같이 유학하던 한국인을 계기로 다시금 억압해온 자신과 멀리해온 불교를 되돌아보게 됐다. 스님은 "같이 유학하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무런 고민 없이 휴학을 하고 귀국했다. 심지어 마지막 발표에선 군복을 입고 운동을 하거나 점호를 받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의 행동은 스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자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저 일은 저 친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시작했다. 그 결과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불교를 바라보았다"고 밝혔다. 답을 찾은 스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바로 출가했다.

코도 스님은 '성소수자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것이 불교의 수행과 출가자라는 역할에 미친 영향은 무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불교의 평등함과 일반적인 불교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답했다.

스님은 "성소수자로서 여성의 복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더라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액세서리나 화려한 화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구제 받는다' 는 것이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경에는 불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부러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걸치거나,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몸과 상호로 나타난다고 한다"며 "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만 보아도 기존의 고리타분함이나 단순한 선입견들이 타파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성소수자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내 자신으로 살아야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니까 이성애적인 모습을 억제해야 해' 와 같은 생각이나, '남들에게 나쁘게 보여선 안돼' 같은 생각이 아닌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현재 코도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판하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강연 등을 통해 불교와의 만남을 전하고 있다.

570년 역사 고찰, 호텔로 재탄생

日, 호텔 속 사찰 '화제'


호텔내부에 새롭게 재건된 죠교지 법당. 사진출처=미츠이 가든 호텔

교토시 중심가에 소재한 고찰이 특별한 모습으로 재건됐다. 지난 9월 17일, 일본의 '교토 신문' '아후재팬뉴스' 등 주요 언론들은 호텔로 재건된 고찰 죠교지(浄教寺)의 현황을 보도했다.

1449년 창건된 정토종의 고찰 죠교지(浄教寺). 절의 전승에 따르면 실제 창건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 1171년이라고 전한다. 교토시의 중심가에 위치해 예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던 사찰이다. 그러나 세월에 따른 시설의 노령화와 자금난등으로 사찰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졌다. 죠교지의 주지 미츠야마 킨타케 스님은 "죠교지의 본당은 이미 190여년전에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지진과 태풍 등으로 지붕이 내려앉고 누수가 생기는 등 재건축이 필요했다"며 열악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스님은 "절 자체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신도들에게 재건을 위한 보시를 요구하는 것도 넌센스였다. 사업을 생각하던 중 현재의 입지라면 호텔이 최적이었다"고 계기를 전했다. 킨타케 스님은 "현재 대부분의 사찰들이 지속해 나가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신도의 감소를 비롯, 전통적인 사찰의 기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다른 사찰들에게 새로운 재생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텔의 이름은 '미츠이 가든호텔 죠교지' . 일본 전국에 산재한 호텔 체인인 미츠이 가든호텔과 연대하는 형식으로 사찰이 재건됐다. 지난해 초 기존의 조교지를 철거한 후 기초공사를 위해 발굴조사와 문화재 조사가 진행됐다. 그 후 진행된 호텔건설과 인테리어는 기존의 죠교지를 이미지화 하고, 교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건축됐다.

1층 로비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 죠교지의 본당과 호텔 데스크로 구성됐다. 둘 사이에는 통 유리창이 설치되어 사찰과 호텔의 일치감을 강조했다. 또 로비에는 기존의 죠교지를 철거하면서 수습된 고재와 조각 등을 전시하는 것으로 인테리어를 구성했다.

미츠이 가든호텔 측은 "500여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고찰과 연대하여 새롭게 세워진 곳이기에 시설적인 면이나, 호텔 제공 프로그램 모두 교토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호텔 측은 조식으로 사찰요리에서 따온 메뉴를 준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호텔은 오는 9월 28일 본격 개업할 예정이나 이미 상당수 객실의 예약이 차있는 상태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불교탄압에 천년고찰까지 파괴

국제공항 인근 푸윈 사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충격


흔적도 없이 사라진 푸윈사원. 사진출처=비터윈터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적 종교' 라는 명목하에 직접적인 탄압을 피해왔던 불교마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인도의 유력매체 '인디아투데이' 는 중국정부가 천년고찰을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푸윈(Fuyun) 사원은 산시성 타이위안 우수 국제공항 북동쪽에서 8.5km 지점에 있다. 이 사원은 현지의 티베트인과 중국인불자 사이에서 유명한 사찰이나, 국제공항에 인근에 위치한단 이유로 중국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다. 이미 지역 공산당은 15년 전, 사찰이 완료한 보수공사가 올바르게 시공되지 않았다며 사찰 내 신행활동을 통제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을 사찰에 강요했다.

인디아 투데이는 중국정부의 종교탄압을 감시하는 '비터윈터' 의 보고를 인용해,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2006년에 시작된 보수공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완공까지 3여년이 걸렸다. 또 기존의 법당들이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개조됐고, 스님들의 요사채는 축소되어 사실상 종교적인 시설로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교탄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7월 24일에서 29일 사이에 푸윈사원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7월 21일 공안들이 불도저와 공사 장비를 가지고 푸윈 사원에 도착했으며 사원에 거주중인 직원과 승려들에게 즉시 건물을 떠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했다. 저해상도 위성사진을 보면, 7월 24일까지는 중앙법당의 지붕이 확인되지만, 29일에는 법당의 기단부만이 확인되며 9월 17일에는 전깃줄을 제외하고는 사원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은 "푸윈 사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파괴됐다. 사원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모두 갑자기 통행 금지됐다. 거대한 불상과 불화를 포함한 많은 불교 유물들이 사라진 모습은 마치 탈레반에 의해 사라진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불상 파괴 사건과 같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휴식용 대마초 판매점에 '행복한 부처'?

불교 폄훼행위로 논란


'행복한 부처 대마초' 매장을 소유한 신디 펜더게스터와 브래드 스타일즈. 사진출처=빅토리아뉴스

지난 9월 15일 호주 지역 신문 '빅토리아 뉴스' 는 시드니의 첫 휴식용 대마 판매점이 불교도를 존중하지 않는 간판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시드니에 개업한 휴식용 대마 판매점의 이름은 '행복한 부처 대마초(Happy Buddha Cannabis)' 로, 가게 외부에 불상 등, 불교가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를 최초로 지적한 현지 주민 리처드 탤벗은 "휴식용 대마 판매점의 이름은 불자나 불자의 지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이다. 불교는 대마를 비롯한 중독성 물질을 멀리하라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복한 부처 대마초 매장을 운영하는 신디 펜더게스터와 브래드 스타일즈는 "불교의 밝고 개방적인 세계관을 반영해 매장의 이름을 결정했다. 부처라는 이름과 상징은 개인적, 사업적 공간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마초 매장의 명칭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고발로까지 진행되면서, 시드니 지방법원은 시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장을 마련했다. 이해당사자들은 또한 오는 9월 28일에 열리는 특별 시민참여의회 정례회의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대한불교원융종 창종 43주년 기념 2020학술대회

감사의 말씀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종은 1977년 창종 이래 불조혜명을 현실구현하기 위한 노정을 지속해오고 있는 바, 올해 창종 43주년에 즈음하여 창종 정신이 담긴 원융회통사상의 실천과 유수종단의 위상에 걸맞은 소명을 다한다는 취지 아래, '포스트코로나(Post-COVID),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과 사찰경영'이란 주제로써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을 모색하고 단위사찰들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범불교 차원의 뜻 깊은 학술대회를 9월 27일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원만 성료 하였습니다. **본 종단은 창종 40주년에 즈음한 2017년에는 종단의 현재와 지표를 모색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종단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의무화에 발맞춰 금번 2020학술대회의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소정의 인원만 동참한 가운데 개최한 바, 종단의 이러한 입장을 혜량해주신 많은 스님 분들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종 44주년에 즈음한 2021학술대회는 올해 못 다한 아쉬움과 뜨거운 성원의 감사함을 가득 담아 더욱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옥고를 발표해주신 박경준·이혜숙·문을식·하춘생·김호귀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학술대회의 취지가 한국불교의 현재적 교훈과 지표설정에 일대사 인연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

2020년 9월 28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종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원융사 Tel. 02-853-0430~1 Fax. 02-857-5094 www.wonyung.org

그리운 스승 향훈과 체취 책속에 오롯이



스승 해안 스님은…

1901년 전북 부안서 태어난 스님은, 1914년 내소사서 만허 선사에게 득도했다. 이후에는 광성의숙, 백양사 지방학림, 불교중앙학림, 중국 북경대 등 국내외에서 내외전을 두루 공부했다. 1925년 귀국 후에는 계명학원을 설립하고 순회 포교사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전법활동에 나섰다. 또한 월명선원서 수선안거 이래 36하안거를 성만했으며, 김제 금산사 주지, 서래선림 조실, 불교전등회 대종사, 대원정사 조실 등을 역임했다. 1974년 음력 3월 9일 내소사 선래선림서 세수 74세, 법랍 57년으로 입적했다.



해안선사 서문집

동명 엮음 / 나라연 펴냄 / 5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 생을 살면서 가슴 깊이 울림을 남기는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인연의 종류는 다종다기 하겠지만, 출가인으로서 가장 큰 인연은 바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스승, 해안 스님은 나에게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큰 바위같은 스승이셨다. 스님께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 가장 법에 맞는 일이며,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마음먹고 7일만 참구한다면 누구나 깨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서울 전등사 회주 동명 스님의 스승 사랑은 깊고 넓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본인 이야기 보다는 스승 자랑으로 시작해서 스승의 가르침으로 끝난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진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일까. 동명 스님은 스승의 발자취들을 한데 모아 문집을 펴냈다. 은사인 해안 스님(1901~1974)의 유묵과 서필을 모은 〈해안선사 서문집〉이 바로 그것이다. 해안 스님이 일생 동안 직접 남긴 글들을 모아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다. 책을 펴낸 소감을 적은 머리말에는 구구절절 제자 동명 스님의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으로 가득하다. 해안 스님은 동 경봉 서 해안이라 하여 청정승가의 공경을 받으며, 내소사에 오래 주석하시다, 1969년에 서울 수유동 인가 주택에 법당을 만들어 불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실참수행을 직접 지도했다. 이것이 오늘날 전등선림의 출발이었다.

동명스님, 보관중인 자료 모아 스승 서문집 발간

학명 · 만허 스님 교유한 친필엽서 공개 눈길 끌어

중앙건의문, 내장사 대웅전상량문, 전등회청규 등

한국불교 근현대사 조명하는 사료적 가치 충분해

이번 서문집은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해안 스님이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등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목격하며 수행자의 길을 오롯이 걸어온 역사의 증인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농일치를 실천하며 조선불교 정체성을 지킨 학명 스님(1867~1929)이 내소사 중흥주인 만허 스님에게 보낸 친필 엽서 등은 한국불교 역사를 조명해 주는 귀중한 자료로 꼽힐만 하다. 만허 스님에게 득도한 해안 스님은 1918년 학명 스님에게 '은산철벽을 뚫으라' 는 화두를 받기도 했다. 학명 스님이 만허 스님에게 보낸 한 편의 글과 세 장의 엽서는 모두 한문으로 작성됐는데, 1910년대 중반쯤에 학명 스님이 만허 스님에게 쓴 것으로 추정된다. 엽서에 찍힌 우체국 소인을 보니 '4 2 20' 이란 숫자가 보이는데, 여기서 '4' 는 년도, '2' 와 '20' 은 월일(月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청한다면 '4' 는 대정(大正) 4년인 1915년인데, 이는 해안 스님이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에게 출가한 이듬해이다.

편지서 학명 스님은 만허 스님에게 "늙은 단풍이 석양에 외로이 앉았으니 아무런 재미가 없소. 선법을 전도된 근신기 0를 모두 마시어, 봄빛이 다시오니 석녀가 노래하고, 일어나 춤추지 않고, 많고 적은 참 즐거움이 변하여 화장찰해를 이루는데, 하물며 대지 만상이 허공에 솟아오르지 못하니 어느 때에나 쉴 수 있으리오?"라고 보냈다.

이에 대해 동명 스님은 "해안 스님께서는 당신의 은사이신 만허 스님과 법사이신 학명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크셨다는 걸 알기에 두 분 스님께서 교류하시며 보낸 세 장의 작은 엽서들을 이 책에 실어 자료로 남기고 싶었다"고 엽서를 기록한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해안선사 서문집〉에는 대은 스님(1899~1989)과 탄허 스님(1913~1983)의 글을 비롯해 상좌와 재가불자에게 보낸 서신도 실었다. 또한 1945년 금산사 주지 당시 제안한 '중앙건의문' 과 1958년 정읍 내장사 대웅전 상량문, 전등회 청규 등 해안 스님의 친필 원고 초본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해안 스님의 서필 작품, 제문과 발원문, 상좌와 신도들에게 전한 전법게송 및 사진 등을 게재했다.

이번 책을 펴낸 동명 스님은 "비록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지만 나의 스승, 해안 스님 앞에 나는 언제나 열세 살 소년일 수 밖에 없다. 해안 스님은 나에게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큰 바위 같은 스승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언제나 다정다감하신 큰 어른이셨다"고 회고 했다.

실제로 해안 스님이 상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곳곳에서 다정다감하고 애틋한 제자 사랑이 느껴진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동명 스님에게 보낸 서신에서 해안 스님은 "변산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추석을 맞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학비를 제대로 못 보내어 학창 생활에 곤란이 많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니 너에게 미안한 마음 금(禁)할 길이 없다. … 혜산(慧山)은 내려가고 철산(鐵山)과 나는 여기서 추석을 같이한다. 부디 몸 건강에 주의해라."

해안 스님은 또한 제자들과 대중을 위해 7미터에 달하는 '보은불사 제문' 을 직접 써 대중 앞에서 읽으며 불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부 인연을 짓도록 했다. 또한 일반 불자들에게 불명을 하나씩 지어주며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놓았다. 이런 흔적들 중 동명 스님이 보관중인 자료들을 이번 책에 수록했다. 불명을 선물한 인원만 족히 4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동명스님은 "불명 내용이 너무 좋고 그 뜻이 깊고, 멋이 있어서 정성스럽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글을 써 주셨지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좋은 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회고했다. 한편 동명 스님은 지난해 10월 내소사 지장암서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을 재현한 '해안선사 심인탑' 을 조성했다. 이어 올 3월 〈해안선사 서문집〉 제작을 완료하고 추모다례 때 봉정식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하면서 서문집만 이번에 공개했다.



상좌 및 신도와 함께 사진촬영한 동명 스님(왼쪽서 첫번째)과 해안 스님(왼쪽서 두번째).

제자 동명 스님은…

1962년 내소사로 출가해 1966년 해안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2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1975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1987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개운사 주지, (재)행원문화재단 상임 이사를 역임했다.

1998년 전등사를 맡은 이래 주지 소임과 전등선림 선원장으로서 시민선방을 만들어 마음을 열어주는 참선 지도를 깊이 있게 실천해 오고 있다. 현재는 전등사 회주로 있다.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

DNA나 뇌는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지도 않는다.
'의식'이야말로 유일하게 가능한 자기 창조자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의사인 디팩 초프라가 전하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 메타현실에서 사는 방법
그리고 메타휴먼이 되는 방법

최신간

메타휴먼
METAHUMAN

디팩 초프라 지음 | 김윤종 옮김
504쪽 | 20,000원



'개인의 고苦'를 없애는 데 주력해온 불교는
이제 '집단의 고통'에 대해 답해야 한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9년 영성과 실천 분야의 최고의 책!
– 아마존 소개



데이비드 로이 지음 | 민정희 옮김 | 360쪽 | 19,000원

우리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맹신에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가. 불교철학자 데이비드 로이 박사가 답하는
새로운 불교 행동철학 '에코다르마Ecodharma'!
이 책은 불교가 현대문명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토대를 제시한다.

"인도의 역사는
인도신화의 역사, 그 자체이다"

인도신화 속에서 불교의 시원을 더듬어보다!



신화부터 설화, 영웅 서사시까지
이야기로 읽는 인도

한 권으로 읽는
인도신화



황천춘(黃辰淳) 지음 | 정주은 옮김 | 528쪽 | 24,000원

"아바타와 아수라가 인도신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 나아가 오늘날의 전방위 문화와
애니메이션과 영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인도신화,
그 간결한 핵심을 단 한 권으로 정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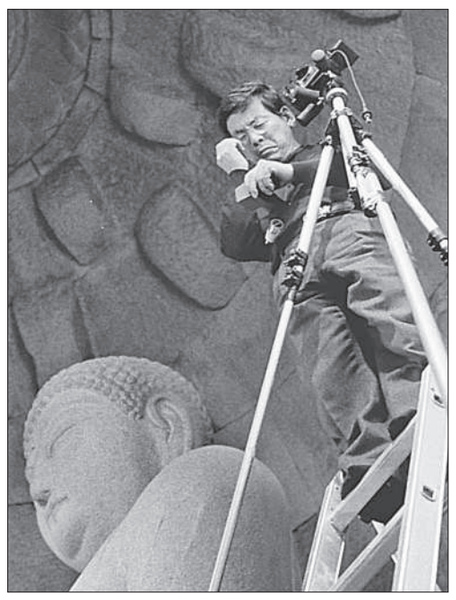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대가의 앵글에 비친 석굴암 '진면목'

국립문화재硏 '석굴암, 그 사진'
故한석홍 유족 기증사진들 공개
세 차례 걸쳐 필름 1172장 기증
주실 · 전실 · 비도 세세하게 담아
각 부문마다 전문가 해설 첨부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석홍 작가가 촬영한 석굴암 내부 전경 사진.


석굴암 촬영 중인 故한석홍 작가

천년고도 경주에 자리한 석굴암은1995년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현재는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이지만 석굴암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잊혀 방치되다가 1909년 경주의 한 우체부가 토함산서 발견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석굴암의 존재를 알게 된 일본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많은 유리건판 사진들을 남겼다. 가장 이른 유리건판 사진은 1910년에 촬영한 서울대 박물관 소장 사진이다. 이는 발견 직후 석굴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26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후지타 료사쿠(1892~1960)는 경주를 조사하며 많은 유리건판 사진을 남겼는데 이중 372장이 현재 성균관대 박물관에 있다. 이중 86장이 석굴암 사진으로, 1913년 일제가 진행한 석굴암 해체 복원 과정이 담겨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듯 1909년 재발견돼 지금에 이르기까지 석굴암을 기록한 사진들은 그 질곡의 역사를 담아낸 중요한 사료이다. 재발견 직후의 석굴암 사진은 대부분 일본 정부와 학자가 연구 · 조사를 위해 촬영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가가 안정되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로 석굴암을 보수하며 사진을 남기기 시작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당시 정부는 석굴암을 수리했고, 정명호(1934~), 故 김준식(1923~1992), 故 정영호(1934~2017) 교수에게 촬영을 맡겼다. 당시 촬영자들은 석굴암 수리의 전 과정을 35mm수동카메라에 장착한 셀룰로이드 롤필름으로 생생히 담았다.

1980년대 이후 문화재 사진은 재현의 장치로서 전문적인 영역이 구축된다. 문화재 전문 사진촬영을 이끈 대표주자가 바로 故 한석홍(1940~2015) 작가다. 앞선 시기의 문화재 사진 촬영이 과정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면, 그의 사진은 문화재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재현의 장치이자 예술작품이다. 우리가 흔히 접했던 대부분의 석굴암 사진은 故 한석홍 작가의 작품이다.

故 한석홍 작가가 석굴암을 접한 건 1981년으로 일본에서 출간한 〈세계의 미술〉 제2권 한국 · 동남아시아편의 석굴암 사진을 담당하면서부터다. 이후 1986년, 2000년 미술사학자 강우방 선생의 저서의 사진을 의뢰받아 다시 석굴암 촬영을 진행했다. 세 차례의 촬영을 통해 그는 석굴암 전실 · 비도 · 주실에 있는 팔부중 · 금강역 · 사천왕 · 호법신장 · 보살상 · 승려상 · 본존불 등의 면면을 필름 1172장에 담아냈다.

그는 석굴암 촬영 시 4×5인치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필름카메라를 활용했다. 커다란 필름카메라가 문화재의 왜곡을 최소화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이 "사실에 근거한 역사서술에 가장 적합한 시각자료"(임영애)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故 한석홍 작가가 남긴 유산인 석굴암 사진 1172장은 이제 사진집 〈석굴암, 그 사진〉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故 한석홍 작가의 유족들이 아무런 조건과 대가없이 세 차례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석굴암 사진을 모두 기증했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증받은 필름을 고화질의 디지털 자료로 변환했으며, 선별된 사진 100여 장과 배치도, 전문가 해설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집으로 꾸몄다.

1970년대 석굴암의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리벽이 설치돼 실제로 그 모습을 보기 어려운 까닭에 故 한석홍 작가가 남긴 유작들은 재현의 장치를 넘어선 예술로서 더 귀중하게 다가온다.

사진집 해설의 참여한 임영애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한석홍 작가의 사진을 이렇게 평가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석굴암 조각을 오차없이 사진으로 재현하려 애썼다. 그의 석굴암 사진은 엄연히 '예술'이다."

무대서 만나는 '삼국유사' 이야기들

뮤지컬 '삼국유사' 오는 11월 6~7일
건국대 새천년관서… 첫 서울 공연
단군 · 주몽 · 선화공주 일화로 구성


지난해 초연된 뮤지컬 '삼국유사'의 한 장면.

지난해 12월 초연했던 뮤지컬 '삼국유사(러닝타임 90분, 인터미션 없음)' 공연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단군, 주몽, 선화공주의 이야기로 구성된 뮤지컬 '삼국유사'의 2020년 버전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오세혁이 각색과 작사로 참여했다. 오세혁 작가는 "〈삼국유사〉를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책으로 바라보고 뮤지컬로 각색했으며 초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향가 '혜성가'와 '도솔가'를 접목시킨 주인공 '일연'의 넘버 구성으로 〈삼국유사〉 속 아름다운 말과 상상력을 뮤지컬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작 뮤지컬 〈더 픽션〉 〈어나더 어스〉 연극 〈왕족서간〉의 연출과 창작뮤지컬 〈무인도 탈출기〉의 극작 및 연출 제작까지 진행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윤상원이 연출로 합류했다. 그 외 브로드웨이에서 꾸준하게 활동했던 작곡가 이진구와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 안무상을 수상한 김준태가 초연에 이어 함께한다.

이번 뮤지컬 〈삼국유사〉는 작품의 캐릭터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배우들이 함께해 기대를 높인다. 〈다윈영 악의 기원〉 〈신과 함께〉 등 서울예술단의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에서 변화무쌍한 연기와 날렵한 무용까지 보여줬던 배우 최인형(본명 최정수)이 〈삼국유사〉의 저자이자 극 속에서 다양한 역할로 변신해야 하는 '일연'을 연기한다. 뮤지컬 '지하철1호선'에서 문디 외 9개의 역할을 소화해낸 배우 박근식이 새롭게 합류해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주몽'의 캐릭터를 박근식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간다. 또한 초연에 이어 이번에도 '선화공주' 역할에는 '뮤지컬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배우 랑연이 함께한다. 배우 랑연은 뮤지컬 〈해적〉에서 '젠더 크로스(한 역할을 남성, 여성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것)'를 연기하며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문화의 다채로운 표현과 불교문화를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인각사 후원으로 제작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연장 방역을 철저히 하여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는 특별 할인이 적용되며, 서울시민만을 위한 가격 할인을 통해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뮤지컬 〈삼국유사〉의 티켓오픈은 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10-8263-3964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세계유산' 활용 프르그램 눈길

문화재청, 프로그램 23건 선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을 활용한 내년도 프로그램을 공모해 세계유산 20건과 세계기록유산 3건을 활용한 총 23선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인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내년도 불교 관련 세계유산 활용 사업으로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 승원'에 포함된 △보은 법주사의 '법주사 산지승원 4차산업을 만나다' △공주 마곡사의 '마곡사 보물찾기' △순천 선암사의 '선암사를 걷다, 만지다, 담다' △해남 대흥사의 '4인4색 주말체험마당' △안동 봉정사의 '다시 태어나는 봉정사' △영주 부석사의 '부석사 야간기행' △양산 통도사의 '통도사 개산대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천 불교박물관'으로 유명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사적 제311호 남산 일원을 활용한 '남산VIEW 역사의 비밀을 풀다'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를 활용한 '세계유산 달빛공연' 등도 주목할만 하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19대응
제27회 청암사 승가대학,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취소안내

삼보에 귀의하옵고
코로나와 긴장마로 인하여 동문 스님들 심려가 크시겠지요.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일 년에 한번 뵐 수 있는 동문회를
취소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동문스님들과 청암사 대중스님들의 안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예정되어 있던 제27회 동문회 취소를 알려드립니다.

좋은날 다시 만나 뵙기를 발원하며
동문스님들의 청안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청암사 총동문회장 유화, 소임자 일동 합장

스님 세계에 깊게 배인
속단의 습관을 버리시면 보이는 세계!

오직! 소리 구경 조건으로만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그 부근을 지날 때에만 방문하여 초간단 견본으로 귀법당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 확인, 특히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장엄한 염불소리 반드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원나라 유일한 간화선 선지식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⑲ 중본 명본



중국 천목산 내에 있는 개산노전(開山老殿) 안의 세 명의 선사 동상. 사진 가운데 선사는 개산노전에서 선풍을 알린 고봉 원묘이며, 우측이 제자인 중봉 명본이다. 좌측은 단애 요의 선사다.

라마교 신봉한 원나라

원대 황제은 라마교를 신봉하고, 라마승들을 지지했다. 이 시기에 라마승들은 국사 지위까지 오르면서 중국불교사에 티베트 불교가 크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원대의 선은 이전 당·송대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흐름이었다. 송대 이후 선자(禪者)가 배출되지 못하면서 불교가 점차 세속화되어갔고, 겨우 명맥을 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청나라 말 20세기 초 선사인 허운(1840~1959)과 태허(太虛, 1889~1947)도 "당대만큼 뛰어난 선자가 나오지 못한다"며 당시 불교의 쇠퇴를 염려했다. 원대의 선은 불교학을 포함해 발전된 측면보다는 과거의 사상을 답습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본다. 바로 이런 시기에 뛰어난 수행자가 등장했는데 중본 명본(中峰明本, 1263~1323)이다. 당시 강남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명본의 선이 널리 알려져 있다. 명본은 원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후대 선종사에서는 스승인 원묘보다 명본의 선사상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명본의 행적

중본 명본은 절강성(浙江省) 전당(錢塘. 현재 항주) 출신이다. 속세의 성은 손 씨, 호는 지각(智覺)이다. 명본은 9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불교에 귀의했다. 선사는 15세에 출가해 〈법화경〉 〈원각경〉 〈금강경〉 경전을 독송하며 연지공양을 실천했다. 명본은 경전과 어록에 심취해 있었는데 〈금강경〉을 읽는 중 '여래를 짊어진다(荷擔如來)' 라는 말에 깨달음이 있었다.

1286년 24세에 명본은 천목산 사자암의 원묘에게 귀의하고 삭발하였다. 27세에 흐르는 물을 보고 깨달은 뒤 게송을 지어 스승께 보이고,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이후부터 명본은 큰 절에서 불러도 가지 않고 천목산중을 옮겨 다니며 정진하였다. 1298년 36세, 명본은 겨울에 중가산(中佳山)에 머물며, 그곳을 환주암(幻住庵)이라고 칭했다. 환주암은 지금도 현존하며, 지금은 도량이 찻집으로 변모되어 있다. 허깨비같이 잠시 형상(相)없이 머물다가 떠난다고 하여 환주암이라고 했다. 이 무렵부터 명본의 법력이 세상에 알려져 세인들은 그를 '강남의 고불(古佛)' 이라 불렀다.

1318년 선사가 인종(仁宗, 재위 1311~1319)의 초청에 응하지 않자, 황제는 금란 가사와 '불자원조광혜선사(佛慈圓照廣慧禪師)' 라는 호를 하사했다. 또한 선사를 '보응국사(普應國師)' 로 봉하고, 그가 머물던 절에 '사자정종사(師子正宗寺)' 라는 사호(寺號)를 내렸다. 명본은 스승과 똑같이 천목산을 중심으로 선풍을 전개하다가 61세에 입적했다. 문종은 '지각선사(智覺禪師)' 라는 시호를 내리고, '법운(法雲)' 이라는 탑호를 내렸다. 1334년 순제가 〈천목중봉화상광록(天目中峰和尚廣錄)〉 30권을 입장(入藏)토록 허락했다. 저서에는 〈금강반야경약의〉 〈중봉광록〉(시중·소참·법어·송고·산방야화·일화오엽·동어서화·환주암청규·환주가훈) 등이 있다.

그의 문하에는 천어유칙·척암원장·무조감 등이 있고, 조맹부(趙孟頫)도 참선했다. 이외 일본 승려 제자들도 있었다.

명본의 공안에 대한 해석

선사는 대혜 종고를 이어 선자들에게 간화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명본은 〈산방야화〉에서 공안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공(公)'이란 성현들의 깨달은 그 길(轍)을 하나로 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지극한 가르침이며, '안(案)'이란 성현들께서 그 깨달은 이치인 도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 '공' 이란 개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개입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안' 이란 반드시 불조와 똑같이 깨달음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안이 풀리면 번뇌의 알음알이가 사라지고, 번뇌의 알음알이가 사라지면 생사의 굴레가 공空해지며, 생사의 굴레가 공해지면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기술하기도 했다.

"세상사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관청에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는데, 관청에서는 법조문에 의거해 재판을 한다. 이처럼 참선자가 깨달음이 있으면 스승을 찾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스승은 공안을 근거로 해서 의심을 풀어준다. 공안은 바로 번뇌를 깨뜨리고 지혜를 밝혀준다. 불조의 혜명을 잇는 데는 공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元 황제들 라마교 신봉 · 지지해
당 · 송代 보다 禪수행 문화 후퇴
명본 출현… 선수행 명맥 계승해
일본 승려 제자 받아 선맥도 전파

명본은 문자로 공안 해석하는 것을 반대했고, 고증식의 참선방법을 비판하였다. 곧 종고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간화선을 새롭게 개선하며, 당대와 송대에 활발했던 선풍을 재현코자 노력하였다. 한편 명본은 청규를 재정비하고, 선교 논쟁에 참여해 선의 우위성을 변론하였다.

명본의 선사상

명본은 당시 선종 5가의 특색을 〈산방야화〉에서 이렇게 묘사하였다. "위앙은 근엄, 조동은 세밀, 임제는 통쾌, 운문은 고고, 법안은 간명하다."

원나라의 선은 이전보다 선자 배출이 없었고, 선사상 또한 발전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 선사들 중에는 옛 선사들의 할 · 방을 흉내 냈는데, 이 점은 오히려 선의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런 열악한 선의 흐름에서도 명본의 선사상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명본은 〈동어서화(東語西話)〉 상권에서 근원적인 중생심의 영묘한 작용, 즉 본지풍광을 신광이라고 묘사했다.

"깨달음의 당체는 밝고 밝아서 우주에 가득 찼으며, 눈부시게 색과 공, 그 모두에 사무쳤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볼 수 없고 자취도 없다. 푸르지도 누렇지도 않으며 길거나 짧지도 않다. 그것은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설산(雪山) 한밤중에 샛별이 되기도 하고, 당양(當陽)에 현로(顯露)하여 용담 스님(龍潭崇信, ?~?)이 제자 덕산(德山宣鑑, 782~865)을 위해서 불어 꺼버린 촛불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추는 본체는 조금도 이지러지지 않아 동평(東平) 스님의 깨져버린 거울이 되기도 했으며, 비추는 방향을 구별하지 않은 베살리성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본체에 접하여 본체와 떨어지지 않아 마침내 눈에 가득하여 눈이 멀기도 하였으니, 이를 신광이라고 한다."

다음은 신광송(神光頌)이다.

"불성의 광명은 신령하여 어둡지 않으매/ 만고에 이르도록 오히려 장엄하네./ 불법의 문안에 들어오려면/ 아는 체하는 알음알이(知解)를 두지 말지니라.(神光不昧 萬古徽猷 入此門來 莫存知解)"

명본의 화두 참구 방법은 이와 같이 기술돼 있다.

설령 이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다만 신심만 퇴보하지 않는다면 한 생 두 생을 넘지 않고 누구나 깨침을 얻을 것이다. 혹 20년 30년을 공부하여 깨치지 못하더라도 부디 다른 방편을 구하지 말라. 다만 다른 인연에 끄달리지 않으며, 모든 망념을 끊고 힘써 화두를 들어야 한다. 그런 뒤에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정진한다면 3생이든 5생이든 10생이든 내지 100생이라도 괘의하랴. 만약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결코 쉬지 말지니, 이런 정인正因만 있으면 대사大事를 마치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 없다. 병중 공부에는 용맹정진도 필요 없으며, 눈을 부릅뜨고 억지로 힘을 쓸 것도 없으니 단지 그대 마음을 목석과 같게 하고, 뜻을 찬재(寒炭)와 같이하라. 이 4대환신(四大幻身)을 타방세계 밖으로 던져 버리고 병들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사람이 와서 돌봐줘도 그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그만, 향기로워도 그만, 추한 냄새가 나도 그만, 병을 고쳐 건강해서 120세를 살아도 그만, 혹 죽어서 숙업에 끌려 화탕 · 노탕 속에 들어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이런 경계 중에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간절하게 저 아무 맛도 없는 화두를 가지고 병석에 누운 채 묵묵히 궁구해가라. - 〈시중〉

참선의 공덕

명본은 요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증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옛 사람처럼 굳은 지기(志氣)가 없고, 둘째 생사와 무상(無常)에 대해 철저히 파고들지 않으며, 셋째 오랜 세월 익혀온 버릇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남을 따라 참선한다고 선방에 살지만 방석에 앉자마자 혼침에 빠지거나 마음이 산란하다. 또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는 굳은 믿음도 갖추지 못했으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저절로 부처가 된 석가가 어디 있으며, 하늘에서 떨어진 미륵이 어디 있는가? 근자에 소견머리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진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말세라고 한탄하며 종단 꼴이 어떻고, 총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며 입만 살아 나불댄다. 그러면서 선지식도 없고, 함께 공부할 도반도 없다고 떠들어댄다. 게다가 거처할 도량이 불편하고, 음식이 부실하며, 청규가 청정하지 못하다며 짜증 부리고, 도량 환경이 좋지 않아 공부에 진전이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승려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 이는 마치 농부가 가뭄이 심하다면서 김을 매지 않는 것과 같거늘 무슨 결실이 있겠는가? 그러니 수행자가 나쁜 경계를 만났다고 해서 한 생각이라도 분별하면 그것은 생사의 허물 속에 영원히 묶이게 된다.

선교일치 · 선정일체 · 유불일치

당말 송대 초기에 영명 연수(永明延壽, 904~975)가 〈종경록〉에서 주장했던 선교일치 · 선정일치 · 삼교합일 사상은 원나라 명본의 사상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선과 염불의 회통이나 선교의 회통 등은 명본에게만 나타난 사상이라기보다는 당시 승려들의 보편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명본은 선교에 대한 합일을 이렇게 4계절로 표현했다. "밀종은 봄이고, 천태 · 현수 · 자은종 등은 여름이며, 남산율종은 가을이고, 소림이 단전(單傳)한 종은 겨울이다.", "4종은 모두 일불(一佛)의 뜻을 전했다"라고 표현하였다.

명본은 정토를 신봉했는데, 〈관념아미타불게(觀念阿彌陀佛偈)〉나 〈회정토시백편(懷淨土詩百篇)〉을 저술하였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고즈넉한 사찰서 飮茶하는 즐거움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⑲ 제19회 고려시대 승려 · 문인 교류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전집〉. 누구보다 차를 사랑하고 찬미했던 이규보가 승려들과 차로 나눈 교유의 아름다움이 茶詩로 기록됐다.

고려시대 차를 향유했던 수많은 관료 문인 중에 이규보(李奎報, 1168~1241)만큼 차를 찬미한 수편의 다시를 남긴 인물도 없을 것이다.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은 고려시대 차 문화를 조명할 문헌 자료인데, 이 문헌 중에서도 수행 승려들과 나눈 교유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남겨 둔 다시(茶詩)는 불교와 문인들이 차를 통해 통유한 흔적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와 교유했던 승려 중에는 차에 밝은 인물이 많았다. 특히 그는 안화사 당 선사를 방문하여 차를 즐겼는데, 당(幢) 선사가 그에게 시를 청하기에 〈안화사 당 선사를 찾아(訪安和寺幢禪師 師請賦一篇)〉를 지었다고 한다. 이 시에는 13세기 고려 시대 차 문화의 결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가 넘친다. 그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 소개한다.

청산이 참된 친구라(靑山眞故人)
내 오는 걸 즐기는 듯(似喜幽人至)
내 올 때 맑은 경치 보여주니(來時貶淸景)
날씨가 곱고도 아름다워라(風日正姸媚)
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到山未云幾)
소소한 빗소리 좋기도 하네(蕭蕭雨聲美)
머리털 풀고 난간에 누웠으니(散髮臥風軒)
한 바탕 코고는 소리 우레 같구나(一場雷鼾鼻)
다시 일어나 갠 날을 보니(起視復澄霽)
둥그런 해가 나무 끝에 걸렸네(木末掛規燬)
매미들은 잎 속에서 울고(鳴蟬翳葉嘒)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싸우네(鬪雀爭枝墮)

앞의 시는 〈동국이상국전집〉 권14에 수록된 것으로, 이규보가 안화사를 찾았을 때 그곳의 산 풍경을 노래한 것이다. 그는 안화사를 자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안화사의 친숙한 풍경을 "빗소리 다시 듣기 좋다"라고 하였다. 더구나 그가 찾아간 당 선사(禪師)는 선종 승려였고, 계절은 초가을이었다. 그런데도 늦여름의 잔영이 남아 있었던지 "매미들은 잎 속에서 울고(鳴蟬翳葉嘒)" 있었고 표현함으로써 늦여름의 풍경을 감칠맛 나게 그려냈다.

더구나 오수(午睡)에서 막 잠에서 깨어나 첫 대면한 풍경에 대해 "둥그런 해가 나무 끝에 걸렸다(木末掛規燬)"고 묘사했다. 둥근 해와 나무 끝이 대조되어 묘한 풍경의 정취를 자아내고, 장황한 매미 소리와 새들의 자유로운 유영 또한 자연의 순리를 잘 료해(了解)했던 그의 인식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어지는 〈안화사 당 선사를 찾아(訪安和寺幢禪師°師請賦一篇)〉에는 안화사 승려들이 손수 끓여낸 차를 대접 받는 정황을 그렸는데, 이는 13세기 사찰의 음다 풍모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승려가 손수 차 달여(衲僧手煎茶)
나에게 향기와 빛을 자랑하니(誇我香色備)
나는 말하노라 늙고 병든 몸이(我言老渴漢)
무슨 겨를에 차 품질 따지겠느냐고
(茶品何暇議)
일곱 사발을 마시고 또 일곱 사발이니
(七椀復七椀)
바위 앞 물을 말리려고 하는지(要涸巖前水)
때는 마침 초가을이라(是時秋初交)
늦더위 가시지 않았으니(殘暑未云弭)
낮이면 비록 찌는 듯하나(當千雖敲蒸)
서늘한 저물녘의 기운 좋기도 하구나
(晩涼聊可喜)
수정 같은 푸른 외 먹으니(靑瓜嚼水精)
시원하고 액체 이빨이 시리네(永液寒侵齒)
볼처럼 붉은 복숭아(碧桃雙頰紅)
씹으니 잠 쫓기에 알맞네(嚼罷堪祛睡)
누웠다 앉았다 하며 돌아가는 걸 잊으니
(偃仰自忘還)
이 놀이 참으로 내 뜻에 맞구려(玆遊眞適意)

윗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13세기 고려의 차 문화를 이끈 계층은 승원의 승려들이었다. 수시로 질 좋은 차를 공급 받을 수 있었던 다촌(茶村)을 운영하였고, 차를 끓이는 솜씨마저 출중했던 수행승들이 승원의 생활은 차와 수행이 떨어질 수 없었던 수행 풍토를 만들었다. 그들이 차를 통해 일군 문화적인 토양 때문에 차는 부지불식간에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녔다. 그러니 "승려가 손수 차 달여(衲僧手煎茶)/ 나에게 향기와 빛을 자랑(誇我香色備)"하였던 것이다. 이규보 또한 차에 밝았던 사람이지만 이미 늙고 병든 몸이라 "무슨 겨를에 차 품질 따지겠느냐(茶品何暇議)"라고 에둘러 표현하였다.

> 고려의 대표적인 문인 이규보
> 차 향유하며 茶詩 수편을 남겨
> 차문화에 밝은 스님들과 교유
> 안화사 · 보광사 등 기록 남겨
> 차 마시는 순간 시구로도 묘사

한편 그는 특유의 문장력으로 무신정권기의 최고 권력자 최충헌(崔忠獻, 1149~1219)에 발탁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환로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무신정권에 아부하는 글을 지었다는 세상의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결기를 꺾은 연유는 그 스스로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그가 안화사에서 마신 한 잔의 차는 혼탁한 심신을 풀어 줄 청량제가 되기에 충분했으니 "일곱 사발을 마시고 또 일곱 사발(七椀復七椀)"을 마셨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의 심신의 응어리를 풀어 준 '푸른 외'와 '붉은 복숭아'의 산뜻한 청량감은 이규보의 글 솜씨에 녹아들어 있다. 속진의 번거로움을 씻어 낼 수 있었던 안화사의 속기 없는 공기 덕분에, 안화사는 그에게 "돌아가는 걸 잊게"한 힐링의 공간이자 그의 뜻에 꼭 맞는 장소였다. 더구나 차를 마시는 놀이가 있었음에랴. 차와 소략한 산사의 풍경은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그렸던 이상향이었던 듯하다.

한편 그가 보광사에서 일곱 잔의 차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서술한 〈이날 보광사(普光寺)에 묵으면서 고(故)서기(書記) 왕의(王儀)가 남긴 시에 차운하여 주지에게 주다(是日宿普光寺 用故王書記儀留題詩韻 贈堂頭)〉는 그가 차를 향유하며 느낀 마음을 잘 그려냈다.

꿈길 끊긴 산창에 달빛조차 가셨는데
(夢斷山窓落月光)
어깨 곧추세우고 해 밝아올 때까지 읊었구나
(聳肩吟到日蒼凉)
땅 기운 따뜻하니 아직 푸른 숲이 남았고
(地溫尙有林衣綠)
정원이 오래되어 유달리 누른 버섯 많다
(園古偏多木耳黃)
일곱 잔 향긋한 차, 겨드랑에 바람이 일고
(七椀香茶風鼓腋)
한 쟁반 싸늘한 과일은 창자에 눈이 스미는 듯
하네(一盤寒菓雪侵腸)
만약 석가와 노자를 부을 같다고 본다면
(若將釋老融臭乙)
우리 유가(儒家)에서 백양을 숭상하는 것 탓
하지 마라(莫斥吾家祖伯陽)

윗글은 〈동국이상국전집〉권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시로, 그가 시구를 얻기 위해 고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꿈길 끊긴 산창에 달빛조차 가셨는데(夢斷山窓落月光)/어깨 곧추세우고 해 밝아올 때까지 읊었구나(聳肩吟到日蒼凉)"가 그것이다.

'꿈길이 끊긴 산창'은 바로 잠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그 연유는 시를 읊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의 시에 아직 땅 기운이 따뜻하게 남아 있다는 말은 초가을의 정취를 그린 것인 듯하다.

고찰인 보광사는 "정원이 오래되어 유달리 누른 버섯 많다(園古偏多木耳黃)"는 것이니 보광사는 풍요롭고 넉넉한 정취가 남아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였다. 그의 글 솜씨는 이런 대목에서 돋보이는 듯하다. 그가 일곱 잔의 향긋한 차를 마셨다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 답답한 속내가 환해졌음을 의미한다. 차는 울화를 없애고 번뇌를 삭여내는 음료이다. 그러므로 정신 음료라 칭송하는 것이다.

더구나 차는 눈처럼 상큼한 과일을 먹은 듯한 경쾌감을 주는 음료이다. 그가 "만약 석가와 노자를 부을 같다고 본다면(若將釋老融臭乙)/ 우리 유가(儒家)에서 백양을 숭상하는 것 탓하지 마라(莫斥吾家祖伯陽)"라고 하였는데, 그가 말한 부을(臭乙)은 부새와 을새를 말하는 것으로 서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새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불가와 노자는 비슷하다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그가 한겨울 엄 선사를 찾아가 즐긴 차의 향연은 승가의 선미(禪味)를 일격으로 그려냈는데, 이는 〈늙은 엄 선사를 찾아가서 벽에 걸린 족자의 시운에 따라 짓다(訪嚴禪老°用壁上書簇詩韻)〉이다. 총 2수인데, 그 중에 한 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돌솥에 차를 달여 술 대신 마시며
(石鼎烹茶代酒巵)
화로를 끼고 둘러 앉아 찬 옷을 말리누나
(擁爐圍坐熨寒衣)
향불은 뭉실뭉실 파란 연기 날아오르고
(香畦縈穗靑烟直)
귤을 쪼개니 시원한 즙이 이슬처럼 흐르네
(橘腦分漿玉露飛)

윗글은 〈동국이상국전집〉권8에 수록된 다시이다. 아마 추운 겨울이었던지 돌솥에 차를 달여 마시고 화로를 끼고 둘러 앉아 찬 옷을 따뜻하게 덥히고자 한 정황을 그렸다. 이미 차를 마셨기에 몸이 덥혀졌을 터. 그러대도 화로에 찬 기운이 도는 옷을 화로 불에 쪼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승가의 한가하고 소박한 일상을 그린 것이다. 향불을 피워둔 승방, 더없이 청결하고 신성한 곳, 여기서 달고 향기로운 귤을 맛봄에랴. 상큼한 귤 향기가 가득했던 선방, 한 입 가득 귤을 머금었을 이규보는 승방의 향불, 차와 귤에서 안분지족을 충분히 만끽했을 것이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32상도 속임수 80종호도 헛소리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㊲ 방편

어떤 머리 깎은 비구들은 부처가 되기까지는 3아승지겁 동안을 수행해서 과보(果報)가 원만해져야 비로소 도(道)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니 여러분,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최후에 마지막으로 얻는 것'이라 말할진대 어째서 석가모니는 80년 후에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돌아가셨으며, 그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하나니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나고 죽는 것이 다르지 않느니라.

그대들이 '32상과 80종호가 부처다' 하는데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응당 여래일 것이니라. 분명히 알라 허깨비일 뿐이니라.

옛사람이 말했다.

"여래께서 몸에 갖춰진 32상과 80종호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주는 방편이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斷見)을 낼까 염려되어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운 것이니라. 32상도 속임수요 80종호도 헛소리니라. 형상이 있는 몸은 깨달은 부처의 본체가 아니며, 형상이 없는 것이 부처의 참된 모습이니라."

중국 선종의 근본 주류는 돈오(頓悟)다. '단박에 깨닫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점수(漸修)를 배격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물론 돈점(頓漸)의 문제에 대한 견해가 7가지의 주장으로 나온 7대 돈점이 있었지만 돈오점수와 돈오돈수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송대(宋代)에 들어오면서 선의 5종(五宗) 가운데 임제종을 제외하고 다른 4종이 쇠미를 길을 가게 되고 임제종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여 임제종지가 가장 오래 전해지게 된 것이었다.

임제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였으므로 돈오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식으로 법문한다. 말하자면 점수의 이야기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다. 이 장에 와서도 처음부터 점수의 이야기를 부정해 버린다. 마치 사람인 내가 부처이지 사람인 나 밖에 부처가 없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나는 부처로서 완전한 나이지 모자람이 있는 결격 인간이 아니란 말이다. 그야말로 인간성불론이 아니라 인간부처론이다. 부처님도 우리처럼 나고 죽는 생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존 현실을 자각하게 하며 부처님을 신비한 존재로 우상화하지 말라고 한다. 32상과 80종호를 부정하는 것은 〈금강경〉에 설해진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금강경〉 사구게(四句偈)에서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상을 떠나면 부처고 상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다.' 상의 유무로써 부처와 중생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오(頓悟)는 무상(無相)으로 통한다. 옛사람이 말했다. 한 옛사람은 〈금강경〉 송을 지은 부대사(傅大士)이다.

규봉(圭峰)은 〈도서(都序)〉에서 돈오돈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오(悟)와 수(修)를 한순간에 모두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지(上上智)의 사람이 그 근기(根機)와 의지가 함께 뛰어나서 한 가지를 듣고 천 가지를 깨달아 위대한 총지(總持)를 얻으며 한 생각도 생겨남이 없이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단절된다는 설이다. 비유하자면 한 타래의 실을 끊으면 한꺼번에 모든 실 줄이 단박에 모두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 수행의 공덕은 한 타래의 실을 염색하면 모든 실 줄이 한꺼번에 단박에 염색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규봉은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돈오점수설에서는 돈오돈수도 돈오점수에 속한다고 말한다. 〈도서〉와 〈수심결〉 등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록 돈오돈수의 수행법이 최상의 근기가 깨닫는 것이라 하지만 만약 과거의 업까지 헤아려 생각해보면 이미 다생에 걸쳐 깨달음(悟)을 위해 점차적으로 닦아 훈습(熏習)한 것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 금생에 와서 듣는 즉시 깨달아 한순간에 다 이루는 것이니 사실에 근거하여 논한다면 돈오돈수의 근기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선오후수의 근기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돈오점수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부처님 法의 바퀴를 굴리다



세상 속 경전읽기

㊲ 전법륜경(轉法輪經)

초전법륜(初轉法輪)은, 붓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후,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예언자의 숲)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안냐 콘단냐(Aññā-Kondañña), 왑파(Vappa), 밧디야(Bhaddiya), 마하나마(Mahānāma), 앗사지(Assaji) 등 5비구에게 하신 설법으로서 중도, 사성제, 팔정도 등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는 〈쌍윳따 니까야[SN 56.11]〉, 구나발타라 번역의 〈잡아함경 379번 전법륜경〉, 안세고(安世高) 번역의 〈불설전법륜경〉, 의정(義淨) 번역의 〈불설삼전법륜경〉 외에 〈사분률(四分律)〉, 〈오분률(五分律)〉 등에도 보인다. 후대 대승불교의 〈묘법연화경〉에서는 "붓다가 옛적에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는 표현이 보인다. 〈전법륜경〉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가수행자는 마땅히 쾌락의 탐닉과 고행의 양 극단을 떠나야 한다. 붓다에 의해 발견된 중도(中道)를 통해 이 양 극단을 벗어날 수 있으며 8정도가 곧 중도이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를 각각 1) 서술[示轉, 고(괄고), 고집(갈애), 고멸(갈애의 제거), 고멸도(고멸에 이르는 방법, 곧 8정도)의 진리가 있다], 2) 수행실천[勸轉, 고가 규명되어야 한다. 고집이 놓아질 수 있다. 고멸이 증명될 수 있다. 고멸도가 개발 성숙될 수 있다], 3) 완수증명[證轉, 고가 바르게 잘 규명되었다. 고집이 놓아졌다. 고멸이 증명되었다. 고멸도가 개발성숙되었다]으로 세 번 굴려[三轉] 열두 가지 행[十二行相]으로 밝게 살펴 지견(智見)이 완전하고 청정해져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비구들아, 출가수행자는 마땅히 양 극단을 떠나야 한다. 무엇이 양 극단인가? 열등하고, 천하고, 저속하고, 비천하고, 불선[不善. 무익(無益)]에 이르는 감각적 쾌락의 탐닉에 전념(專念)하는 것과, 고통스럽고, 비천하고, 불선에 이르는 고행[苦行. 자학(自虐)]에 전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떠나야 할 양 극단이다. 진리를 완성한 자(깨달은 자, 붓다)에 의해 발견된(밝혀진) 중도를 통해 이 양 극단을 벗어날 수 있다. 중도는 안목[眼目]이 열리게 하고, 지혜를 주며, 고요함[寂靜]과 높은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 중도란 무엇인가? 8정도[八正道. 여덟겹의 바른 길]가 중도이며, 이른바 정견[正見. 바른 견해], 정사유[正思惟. 바른 사유], 정어[正語. 바른 말], 정업[正業. 바른 행동], 정명[正命. 바른 생활], 정정진[正精進. 바른 정진], 정념[正念. 바른 마음챙김], 정정[正定. 바른 명상]이 8정도이다. 이것이 붓다가 깨달은 중도로서, 안목과 지혜가 열리고,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중략〉 '고멸도의 진리가 있다'라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진리)에 대한 안목과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洞察智]가 생기고, 명지[明智]와 광명[光明]이 생겼다. ' 고멸도가 개발성숙될 수 있다. '라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목,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 ' 고멸도가 개발성숙되었다. '라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목,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

세상 이치(진리)를 3전(三轉) 12상(十二相)[고집멸도의 서술, 수행, 증명]으로 밝게 살펴 지견(智見)이 완전하고 청정해지기 전에는, 하늘사람, 마귀, 범천(梵天), 사문과 브라만, 왕자와 사람들에게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리를 3전 12상으로 밝게 살펴 완전하고 청정해진 후에는 …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고 선포하였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㊸ 닦음의 길 23

사경, 경전을 사색하는 시간
〈寫經〉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련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가운데 〈반야심경〉을 사경(寫經)하는 순서가 있었다. 그날 저녁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글자씩 종이에 베껴 쓰는 수련을 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70배를 하면서 〈반야심경〉 전체를 쓰고 읽은 셈이 되었다. 난생 처음 해본 경험이었지만, 산란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왠지 모를 고요함이 느껴졌다. 이전에도 경전을 공부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성껏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왜 사경을 수행이라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경(寫經)이란 글자 그대로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을 의미한다. 사경은 본래 경전을 널리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경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종이에 베껴 쓰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쇄술의 발달로 경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유통 목적으로서의 사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대신 사경은 공덕을 쌓는 행위라는 새로운 의미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붓다의 말씀인 경전을 정성껏 베껴 쓰면 공덕이 쌓여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경은 수행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사경을 통해 불교의 목적인 깨침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글자만 베껴 쓴다면 수행으로써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寫)'란 글자만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행위다. 즉 경전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정성껏 새기면서 붓다를 닮아가야겠다고 발원(發願)하는 성스러운 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수행이 무르익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사경은 깨침을 향한 수행으로써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사경을 해보면, 마음집중이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난다. 글씨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 일념으로 사경을 하면 글자가 매우 가지런하지만,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글자가 고르지 못하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은 것이다. 사경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 경전에 담긴 붓다의 진리와 글을 쓰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사경 삼매(三昧)에 이르게 된다. 사경이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수행체계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화엄경〉의 결론이라 불리는 〈보현행원품〉에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기까지 발심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였는데, "살갗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았으며, 피를 뽑아 먹물을 삼고 사경하기를 수미산만큼 했다"고 하였다. 〈법화경〉에서도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익히며 베껴 쓰는 중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 경전을 들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만큼 사경이 중요하며 공덕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경은 단순히 경전을 베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은 붓다의 말씀을 사색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사색이 무르익어 일상으로 이어질 때, 듣고(聞) 사색(思)하며 실천(修)하는 불교 공부의 세 박자가 실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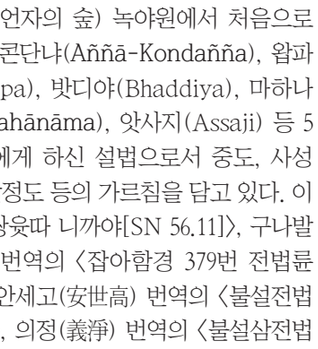
그런데 경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글자만을 베껴 쓴다면, 이것은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경전에 먹히고 굴림을 당할 뿐이다. 아무리 사경을 많이 해도 삶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다운 사경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경전을 굴릴(轉經)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문제의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경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사경하기 전에 절을 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내가 경전을 굴리고 있는지, 경전이 나를 굴리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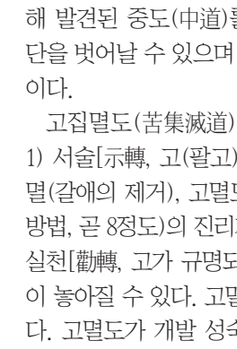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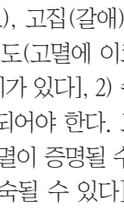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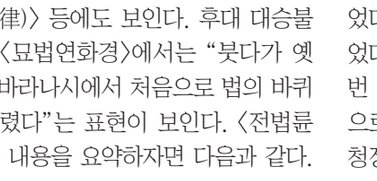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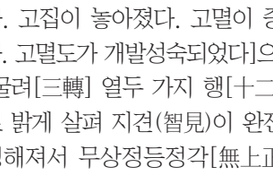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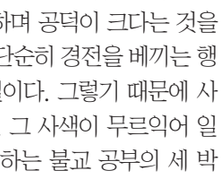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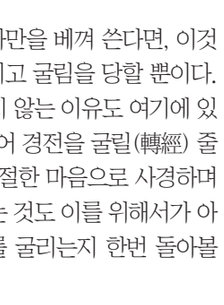
02-2004-8200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11호 | A15 | 전면광고

불길 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여,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끝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집요송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 백연사 운송도암
010-9208- 3835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D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 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장소는 경주시이며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강의 할 것입니다
010-7307-1727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중구
010-8721-2198

마이크 목걸이
스님께서 염불 독경하실때 편리합니다.
판매가격 : 4만원
농협 351-1102-1539-63 대월사

연락처 : 010-3942-2750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구세선술
기도비법을 스님께 전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부설)
우학스님의 유튜브강의
(생활법문, 경전·조사어록강의)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일선원(사부대중, 행자모집중)
문의 : 054-753-822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 어떠한 질병도 물리치는 여래의 대약수인 해인과 감로는 무엇이며, 수행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 50위의 수행차제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여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화엄의 비법은 무엇인가?



문의 :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010-9150-1044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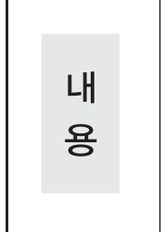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11호 | A16 | 전면광고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010-5421-1536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 30분거리)
- 대지 : 199평
- 건평 : 22평
- 가액 : 3억 5천
- 잔디밭, 5층석탑, 석등 기타 (경치, 전망 아주좋음)

010-4822-7233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 4-1 토굴 양도(임대)합니다.
- 방문후 임대, 가격조정가함.
- 법당,산신각,요사채,창고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년20만원

010-5714-7872

정말 좋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관리 잘되어있음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오천
- 완벽한 법당시설
- 2층 단독 60평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시설비 없음

010-2857-2811

도심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 사찰, 부지 540평, 건물 180평
- 1층: 81평 (종무실, 요사채) 2층: 61평 (대웅전, 사무실)
- 산신각, 공양간, 탕비세탁실, 수각, 전통목재 단청건물, 전기 심야보일러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전통시장입구 2층
- 지하철 5호선 길동역 3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억(조정가능), 월세 250, 시설비 상담후 결정.
- 약 130평, (주방, 법당,사무실, 방사6), 모든 시설 구비 (개원 10년차 조계종 정식 포교소 운영중)

010-2727-6899, 02-488-01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구영로 신도시 역세지역
- 평수 : 120평, 4층, 전관(4층건물)
- 방3개, 해우소 3개, 공양간 10평, 주차장 완비, 도시가스 설치가능, 엘레베이터(4층), 법당완비, 즉시 법회가능, 칠성, 산신, 법당연등 고급설치, 에어컨 천장사각 6개, 대형(냉난방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5만원, 관리비 11만원
- 꼭 하실분 연락요망

010-2949-3688

토굴(급)안내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 버스2분 거리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합해서 건물50평
- 대형마트,은행,병원,시장 전부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 (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4270-3397

포 교 당 급 매

- 위치 : 서울 3호선, 6호선, 연신내 역에서5분거리
- 평수 : 38평,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5만원
- 방1, 주방1, 화장실2, 시설비 8백만원, 주차가능,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됨

010-8809-9979
010-2804-844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진보면 소재지
- 부지 : 총607평(4필지 종교부지포함)
- 법당25평, 요사30평(판넬 조립식)
- 가액 : 1억 3천만원
- 법회즉시 가능 주차시설완비

010-9504-725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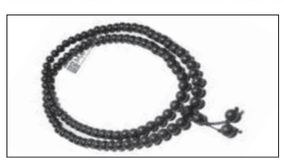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자기 주장자를 철저하게 믿고 물러서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질문 : 저희 집에 대행 큰스님께서 법회 중에 읊으신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 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런 게송이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부의 세 단계를 말씀하신 것이라 여겨지긴 하지만 그 뜻을 좀 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첫 번에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내가 공이라는 걸 안 것입니다. 내가 공했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냥 함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랬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랬습니다. 이것은, 첫 번에 있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어도, 나를 발견했어도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그 모든 악업 선업에, 즉 말하자면 의심과 모든 착과 욕심 그런 것이 그냥 모두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둘이 아닌 도를 알아야만이 또 이것이 해당하는 겁니다. 모두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둘이 아님을 알아야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꾸 배우면서 지혜롭게 자꾸 둘이 아님을 알아야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내 앞에 닥친 이러한 모든 것을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흉갓집이라고 하는데를 싸게 사서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건 왜냐. 이 도리를 믿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싸게 사 가지고 들어가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아니까 그냥 삼켜 버린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영에다 영을 넣으니까 영이더라, 그대로. 수만 개를 영에다 집어넣어도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산 사람도 마음이 있으니까 전부 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랬듯이 나부터 죽어야 모두가 둘 아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내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둘 아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고정됨이 없다. 고정됨이 없으니까 함이 없이 하는 거다. 발자국을 떼어 놓아도 떼어 놓은 사이가 없다.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차피 지은 거 그냥 놓아라. 그것은 껍데기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거, 알맹이가 전자부터 한 거 알맹이가 해결을 해야지,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해결해야지 시자라고 하는 이 집이 왜 상관을 합니까? 일일이 왜 상관을 해요? 울고 찌고 바깥으로 헤매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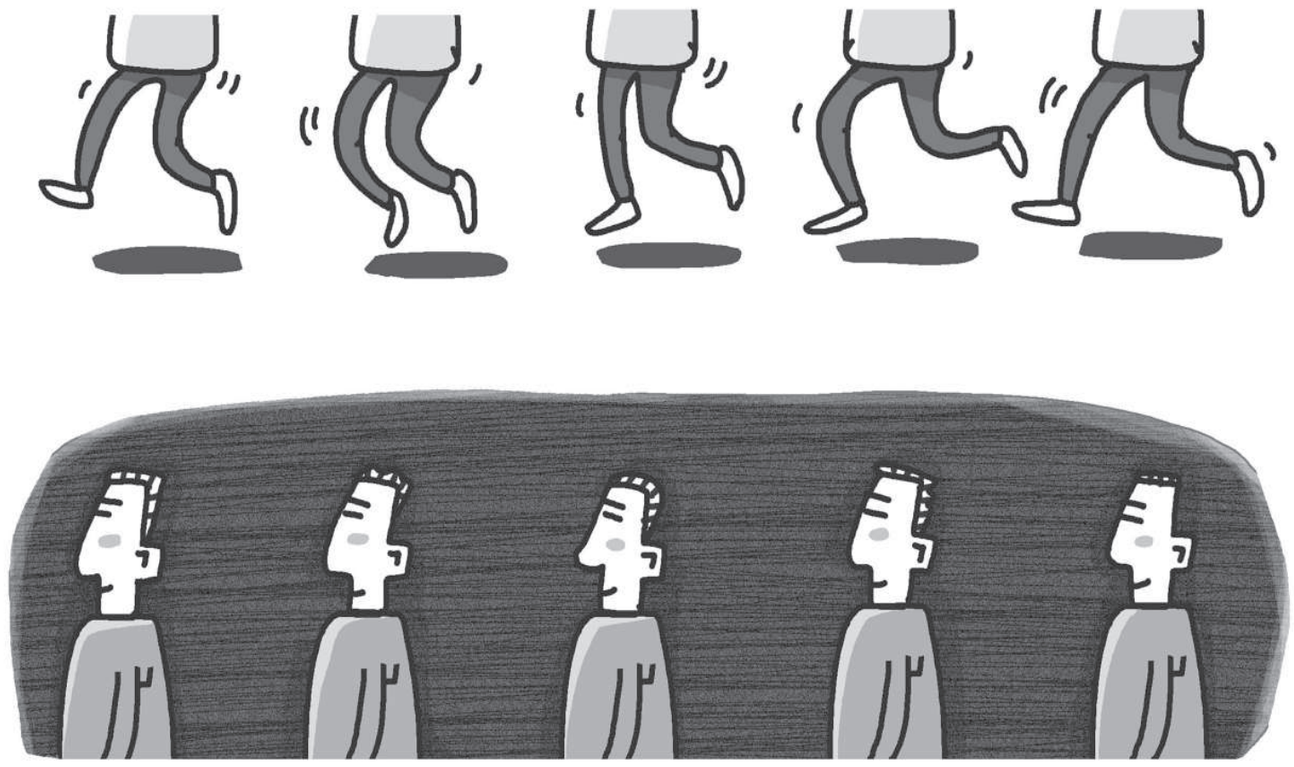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깐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을 해도 항상 이 사람하고 말을 했다가 그냥 그거 무심코 그렇게 놓고 가잖아요. 무심코 놓고 그냥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함이 없이 하는데도 이거는 있다고 우기거든요, 마음이.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왔으면 "어서 와!" 하고 말을 해 놓고 그러곤 갔어요, 얘기하고. 갔으면 그뿐이지 그냥 만나서 얘기했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또 그것이 바람처럼 달아나 갔어요. 또 왔어요. 또 만나고 또 보고 또 듣고, 남편 만나고 자식 만나고, 부인 만나고 자식 만나고 형제 만나고 이래도 그냥 만났을 뿐이지 거기에 뭐, 뭐가 붙습니까. 거기서 뒤에 또 생각이 나면 또 거기다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 놓고 그냥 하면은 함이 없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죄나 이런 것도 다 없다 이겁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가운데서 여여하게 그대로 삶을 정말 통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공용으로 행하라. 그냥 행하라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행하라. 이게 두 번째의 둘이 아닌 도리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과 관습, 이 미움과 이쁜 거와 모든 착과 욕심 이런 문제들도 다 거기다가 한데 닥치는 대로 놓으면 이게 둘이 아닌 게 나오죠. 거기다 놓고 가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와 남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나툰다 이겁니다, 같이 더불어. 나투는 것은 우리가 화해서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화해서 변화해서 내가 몸도 바꾸어서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절충하는 겁니다. 맞게 응하는 겁니다. 응해서 이렇게, 즉 말하자면 공용으로 공식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이렇게 하고,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 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이름이니 그대로 여여하더라,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 고비를 다 넘어서 두루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직껏 여러분들한테 "주인공에 놓아라, 놓아라." 하는 소리를 아마 헤아릴 수 없이 했을 겁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항상. 오직 내가 있기 때문에 나 한군데서 모두가 나가지 내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군데서 모든 게 나갑니다. 우주도 있고 세상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도 있고 생사도 있고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알았으니깐 말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을 보니까 말입니다, 어느 남녀가 둘이 애인 사이인데 컴퓨터에 정열을 다 쏟아 가지고, 그 남녀가 둘 아니게 자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하고 컴퓨터로 10년을 그냥, 배우고도 10년을 그거를 다 할 줄을 아는 거, 남의 거 뺏어 오기도 하고 들이밀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못해서 10년을 간 거예요. 어떻게 애인과 자기가 둘 아니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이 부처님 법으로 이렇게 빨리 알았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이 체가, 몸이 있어 가지고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알고선 바로 그냥 불 질러 버렸어요. 불 질러 버리고는 죽어 버렸어요, 둘이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은 평생을 자기 일생을 저거 해서 둘 아니게 하나로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몸을 불에다 집어넣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 불에다 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본래 불에다 넣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여여하게 그렇게 함이 없이 하고 간다니까요,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여여하게 간단 말입니다. 아까 맨 끄트머리에 그냥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랬죠? 그 다섯 가지의 말이 다 이,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 소리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게. 첨보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깜짝, 그러니까 깜짝, 깜짝 한 생각입니다. 깜짝 한 생각!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없다면 깨칠 수도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라. 이 자동적인 컴퓨터 얘길 만날 했죠. 거기에 과거에 입력된 것을 자꾸자꾸 현실에 자꾸 놓으니까 입력이 되는 대로 과거에 입력된 게 자꾸 없어진다. 그게 팔자 운명, 모두 자기가 지어 놓은 것들, 나쁜 거 이런 것이

☞ A18면으로 계속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아무리 좋은 보배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건 허탕이에요

☞ A17면에서 계속

모두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에 지은 모든 업보를 성급하게 한번 관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쉬운 것도 있죠. 금방 이렇게 저거 한 건 금방 관하면 금방 그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늦게 된다, 금방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건 자기 할 탓이니까. 자기 지혜에 달려 있고 요량에 달려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냥 자기가 현실에 사는 것처럼 산다고 그냥 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그대로 공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공식하고 있고요. 경전에서는 원식이라고 합디다만 그냥 공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겠으니까 말이에요. 먹는 것만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걸 거기다 집어넣는 것도 공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거든지 대치를 하고 어떤 거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친다 하더라도 대치할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치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가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움죽거리지 않는 주장자를 싸고 있는 영혼, 자기 영혼…. 자기 영혼이 없으면, 불성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자기 영혼이 없으면 태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영혼을 구제를 해야, 영혼이 구제를 받아야…, 구제를 받는다는 건 그렇게 자꾸 해야 영혼과 불성과 둘이 아니게 되면서 이게 그냥 함락이 되는 거예요. 즉 우주가 함락이 되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아까 컴퓨터 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딴 이름은 믿고 딴 형상을 믿으면서 진짜 자기를,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서 나온 장본인을 못 믿는단 말입니까, 진짜 장본인을

진정한 마음의 보시란

질문 : 불교 수행에 있어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알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마음의 보시를 특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의 보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 우리가 베푼다는 게 무슨 돈이 있어서 베풀어야만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섭섭지 않게 한다, 남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도의다 또 은혜다 이런 문제 등등을 모두 종합해서 생각할 때, 남을 섭섭하지 않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꼭 돈을 줘야만 그것이 보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시가 돈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더 큰 보시랬다고 금방 밥을 굶을 텐데도 밥 먹을 걸 안 준다면은 그건 지혜롭지 못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깡통을 들고 온 거지한테도 밥을 그 깡통에 담아 주고 반찬은 물 흐르지 않게 봉지에다 따로 줍니다. 따로 주면서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 네가 농사지어서 네가 추수해서 네가 먹도록 해라.' 하고 마음을 내 주죠. 그런 것이 진정한 보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니 점집을 찾게 되는데

질문 :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살길이 막막하니까 불법을 믿는다 하면서도 점집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불자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수없이 억겁을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얼마나 아팠던가. 얼마나 쓰렸던가. 얼마나 고에 휘달렸던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습을 놓지 못하고, 그 노비 문서를 놓지 못하고, 그 종 문서를 쥐고 다니는 이러한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나는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떳떳하고 광대무변한 한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노예로서 거지, 또는 귀신, 이런 짓들만 하고 다니니 이게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악을 저질렀다 해도 어차피 지은 거 그냥 놓아라.
> 껍데기가 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한 거 알맹이가 해결을 해야지,
> 시자라고 하는 이 집이 왜 상관을 합니까?
> 울고 찌고 바깥으로 헤매고 말입니다.

아무리 이 가운데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물건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보배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건 허탕이에요. 그 보배를 가지고도 당신네들이 쓰지 못하는 관계상 그 보물은 아무 쓸모 없이 된단 말입니다, 모두.

우리 그 은하계의 안에도, 이 중천세계의 우주 안에도 큰 은하계가 지금도 두 개씩이나 더 있고, 또 작은 은하계도 한 4천여 개 됩니다. 그 안에도 빛이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또는 빛을 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도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네들 사람 살 때 좀 살게끔 일어서질 못하고 아주 찌들려서 사는 것처럼. 그런 부분 부분이 얼마나 많이 같이 섞여서 돌아가는데요. 우리 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지금 돌아치는 거나 똑같아요.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나는 개떡같이만 봐요, 개떡같이. 왜? 개떡같이 보는 것은 내 한 점에 다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개떡 같다 이 소립니다. 나를 개떡같이 보는 거니까 전부 다 개떡 같고, 위대하게 보면 전부 다 위대하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게 모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힘이 있으면 빨아당겨서 제 것으로 만들고 힘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우리 우주의 섭류도 역시 힘이 있으면 탁 쳐서 그냥 버리거나 쫙 빨아들여서 자기 거로 만들거나, 이런 문제들이 숱하게 많으니깐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도 역시 다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도 마음들을 그렇게 쓰니 어찌 뺏기지 않고 삽니까? 하다못해 무당한테도 마음을 뺏기고 살지 않나, 부적한테 뺏기고 살질 않나, 장승한테 뺏기고 살질 않나, 남이 용왕이 있다니까 용왕한테 뺏기고 살질 않나. 전부 이름을 해 놓고는 그 이름한테 전부 뺏기고 살아요.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정신 내가 가지고 사는 거지, 왜 자꾸 정신들을 뺏기고 사느냐 이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기묘하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은 체험을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체험을 해 보세요. 모든 걸 체험하고 안으로 굴리면서…. 그런데 제 아비도 몰라요. 제 아비가 제 안에 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비가 여기 있다고 해서 둘로 보지 마세요. 내가 아비이자 자식이고, 자식이자 아비다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다. 여직껏 끌고 다니는 거 지금도, 오늘도 부지런히 육신을 놀려서 밥해 먹이고, 빨래하는 사람 빨래하게 하고, 똥 눌 사람은 똥 누게 하고, 가다이를 다 치고 이러고서는 또 여기 나오게 만드는 이, 발걸음을 종종걸음을 걷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성품에 따라서 환경을 자기가 조성해 나가고 화합을 시키고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여러분이지,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는 영 안 되니 이놈의 노릇을 어떡하나 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는 거고. 내가 새 달에 무당이 나쁘게 된다니까 그냥 나쁜 줄 알고 쩔쩔매는데 내 주인, 이 주장자의 주인이 없으니깐 그런 소리를 듣고 말리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한테 말리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되는 거지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사 갈 때 되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떡 해 먹고 싶으면 떡 해 먹고 아이, 이러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살기가 고달프다는데 아니, 여기에 끄달리고 저기에 끄달리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 때를 바랍니까?

고요한 마음, 부끄럽지 않은 마음, 온화하고 자비하고, 스스로서 자비가 나오고, 스스로서 지혜가 나오고, 모든 것은 한데, 내 주인공을 믿고 내 주인에다가 다 맡겨 놓고 감사하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들이고 내는 거, 일심에서 일체 만법이 나고, 일체 만법이 일심으로 드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고서 방황하니까 모든 문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응, 네가 그렇게 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고 그렇게 돌아치니까 너 좀 돌아봐라.' 그러지 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부적을 해다가 베개에다 넣고, 그것도 10만 원짜리,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일곱 장을 사야 그달에 뭐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선 그걸 다 사다가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오게 됐대요. 여기를 며칠 다니면서 인제 설법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밤 꿈에 스님이 오셔서 "너희가 여기저기 감춰 놓은 거 좀 내놔 봐라." 그러더랍니다. "감춰 놓은 게 없습니다." 하니까 "이것도 없어? 여기에 매달려서 너희가 잘되려 하느냐?" 하면서 그 베개에 있는 거 뭐,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러더니 다 그냥 후루루 그냥 이렇게, 그냥 삼켜 버리더랍니다. 그냥 이렇게 다 몰아서 놓는데 벌써 그냥 확, 그냥 불이 확 붙어 가지곤 그냥 흔적도 없더랍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거 해로울 꿈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휴, 저러니 할 수 없지. 저렇게, 마음 쓰는 게 저렇게 가난하니 어찌 살기가 가난치 않을까."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말을 해 놓고선 또 '에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요, 저것이 바로 나인데.' 하고선 잘 다독거려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릇이 다 타 버렸으니 얼마나 좋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살면 편안치 않아?" 이렇게 처음부터 달래 가지고 나가야지 별수 없거든요. 하하하. 그놈의 거, 그 습을 다 떼어 버리려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심부름 해 주는 그 공도 모르고, 여직껏 자기를 끌고 나오는 자기 주인의 그 공도 모르니 어떡합니까, 그거? 이제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의 주장자, 자기의 주인공 그 자체를 철저하게 믿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러서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거, 보고 듣고 오관을 통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발휘됩니다. 거기 성품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깥으로만 돌아야 합니까?

내 주인공은 내 보디가드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래서 관하면 찰나에 의사가 되어 주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이 되고, 좋은 데로 간다 하면 지장이 돼 주고, 칠성부처가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용신이 돼 주고 허공신이 돼 주고, 별거 별거 다 돼 줍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는데 뭐가 답답합니까.

그렇게 바깥에 가서 물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 지금 바빠 죽겠어서 말을 하는데 얼른 자기한테 하는 게 다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는 곧바로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그렇게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 올바로 나가는 게 못 되고 또 빠른 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나가, 나와 나가 항상 그렇게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나가 더 빠르지 누가 더 빠릅니까?

그래 여북하면, 정히 답답하면 "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 하고 아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도 하고 뭐, 그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그냥 재깍, 재빨리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빠른 거를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에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제삼자가 자기를 대신 살아 줄 리 없고요. 그러니깐 꼭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창간 축하 현불 논단

불교언론, 혁신을 두려워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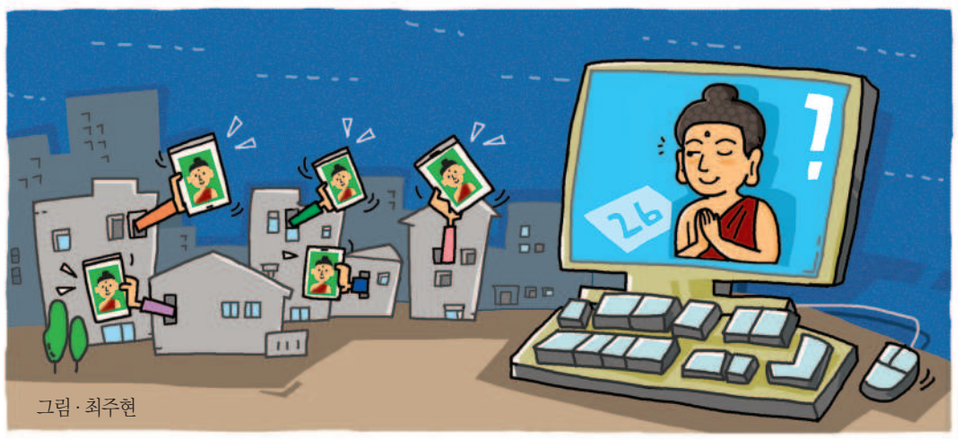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퍼스트' 넘어 '디지털 온리'로 변화중
M · Z세대, 유료 콘텐츠 결제에 거부감 적어
동영상 중심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전력해야
소셜미디어를 필수 유통채널로 인식 · 활용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사망자 수는 1백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 보고된 감염자 수는 3천 1백만 명 이상이다."

이 짤막한 소식은 9월 22일자 뉴욕타임즈의 인스타그램이 전하는 뉴스이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뉴욕타임즈는 워싱턴 D.C.의 기념비 앞 광장 잔디밭에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도하기 위해 20만 개의 성조기가 꽂혔다는 뉴스를 1장의 사진과 함께 역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고 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 공감하고 수천여 명이 댓글로 참여한다. 국내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은 시점에 한국의 평범한 뉴스이용자는 한 해외 언론이 전하는 지구 반대편의 뉴스 속보를 접하고 있다. 그것도 신문도, 방송도 아닌 SNS를 통해.

언론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뉴스 생산의 주체가 다양화하고 있고, 유통 창구가 확대되고 있다. 언론은 뉴스의 생산-유통-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언론은 위기인가? 불교 언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미디어의 환경 변화부터 살펴보자. 첫째, 신규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이용의 증가이다. 1인 동영상 미디어 유튜브의 이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OTT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47%에 달한다.

둘째,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로서, 모바일 이용의 확산이다.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포털 이용률은 8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기기별(TV, PC, 모바일) 이용시간 비율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만 54세 이상)의 TV 이용이 70%로 아직 높은 비중을 가지지만, 밀레니얼 세대(만 24~37세)와 Z세대(만 23세 이하)에 있어서는 35%선에 그치고 있다. 반면 M · Z세대의 모바일 이용률은 45%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모바일 이용의 확산 트렌드가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콘텐츠 유료 시대의 도래다. 콘텐츠는 무료라는 시대가 지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성인의 절반이 평균 2개의 온라인 미디어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호에 맞는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소셜미디어 이용의 확산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 서비스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전 연령대 평균 11%에 달하는데, 20대의 경우에는 22%로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SNS를 통해 뉴스를 공유하고, 뉴스댓글 공감 표시를 하는 등 소셜미디어는 주요 뉴스 이용 매체의 하나가 되었다.

다섯째, 전통 매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 분포 상 디지털 네이티브, 즉 디지털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함에 따라 TV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 뉴스 이용에 있어서도 5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뉴스 대 TV뉴스 의존도의 비율이 7대 2로 나타나 TV 이용률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신문의 이용률도 크게 감소해서 10명 중 1명만이 종이신문을 이용하고 있다.

열거된 미디어의 환경 변화의 밑바탕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화하는 미디어 패러다임 전환이 깔려 있다. 즉,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전환의 시기는 미디어를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영국의 가디언은 그 갈림길에서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의 몸부림을 친 결과 디지털 전환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이미 2014년 뉴욕타임즈는 잘 알려진 혁신보고서에서 디지털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전략을 수립하여, 뉴스룸을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우선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독자전략의 중심에 디지털 네이티브를 설정하는가 하면, 디지털 인재의 채용,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뉴스선정과 기사배치, 시각물과 동영상의 강화 등 혁신의 중심에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위치시켰다. 결과적으로 전체 독자의 80%가 디지털 유료 구독자라는 성공을 이뤄냈다.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불교 언론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어찌 보면 불교 언론의 환경 조건은 일반 언론만큼 최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불교 언론에는 '불자'라는 확실한 독자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불교 언론은 '불교'라는 핵심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셋째, 불교 언론은 '불교에 특화한 전문 매체'라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불교 언론의 경쟁력이자 생존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 언론은 디지털 전환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통적 미디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신문은 종이를, TV는 수상기를 잊을 수 있어야 한다. 전략 수립 단계에서 만큼은 오로지 디지털이어야 한다. 언젠가는 디지털 퍼스트의 시대도 저물고,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용해되어 하나로 융합하는 '디지털 온리(Digital Only), 즉 디지털만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1인 미디어를 포함한 동영상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로 동영상 콘텐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별도의 전문 인력과 팀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셋째, 디지털 네이티브의 증가에 주목하여야 한다. 디지털 세대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르게 읽는다. 콘텐츠의 유료화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특성도 보인다. 따라서 콘텐츠의 생산, 유통, 판매에 있어서 이들을 겨냥한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AI 기반으로 독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충성도 높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축적된 독자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콘텐츠 유료화로 연결되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 언론은 소셜미디어를 필수적인 유통채널로 인식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소셜미디어는 저비용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개인의 참여를 유발함으로써 언론과 독자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은 유럽의 가장 위험한 활화산으로 꼽힌다. 학자들은 이 화산이 향후 10년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폴리 만의 장대한 조망을 즐기고자 위험한 그 곳에 집을 짓는다. 그들을 위험지역에서 이주시키려는 로마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런 행동의 원인을 '경험장애(Experience Bias)'라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결정권자들이 개연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적 경험이 없는 한 그 위험을 무의미하다고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기를 맞은 불교 언론계에서는 이런 경험장애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社 說

코로나19, 포교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2020년이 2달 남짓 남았지만 올해는 단연 '코로나19'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는 한국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됐고,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본지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계 언론 중 최초로 전문가 언택트 대담도 진행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출 · 재가자들은 불교계가 그동안 보여준 감염예방 · 지원 활동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사회적 이미지가 상승됐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출 · 재가자들은 인식 차를 보였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로 출가자는 종단 · 사찰 재정을, 재가자는 포교환경을 꼽았다. 비대면 법회 · 신행에서 주력할 분야로는 스님들은 '법회 생중계'와 '명상 및 수행'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재가자들은 '불교문화 콘텐츠'와 '스님 법문'을 원했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는 보여준다. 불교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는 온라인 설법론을 개발해야 하고, 사찰 운영에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한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포교를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앞으로 불교계가 가져가야 할 숙제다.

탈종교 현상부터 코로나까지 불교는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 위한 실천을…

지구가 고통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 대규모 산불과 가뭄, 강력한 태풍과 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양생태계 붕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은 물론 기후 불평등으로 인한 수천만의 기후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불교를 비롯한 6대 종교계가 9월 22일 '2020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하고 종교인 기후행동을 선언한 이유다. 불교기후행동 대표 미광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기후위기를 대전환의 희망으로' 제하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행동과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종교인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인드라망으로 촘촘히 이어진 관계임을 이미 설한 바 있다. 종교계야말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인류 뿐 아니라 모든 생명붙이들이 행복한 생명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말이다.

6대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낸 지 이틀이 지난, 9월 24일.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국회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공식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가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하는 국가가 됐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나설 때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등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 육식 식단을 채식위주로 변화시키는 시도도 효과적이다. 소중한 지구에 깃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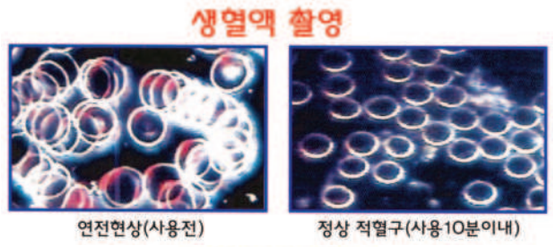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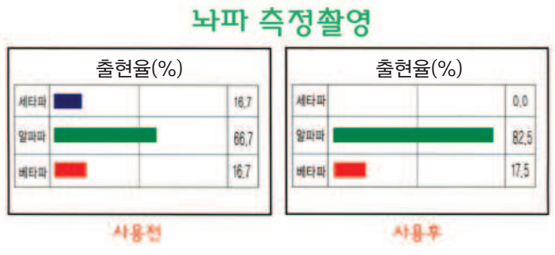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주)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31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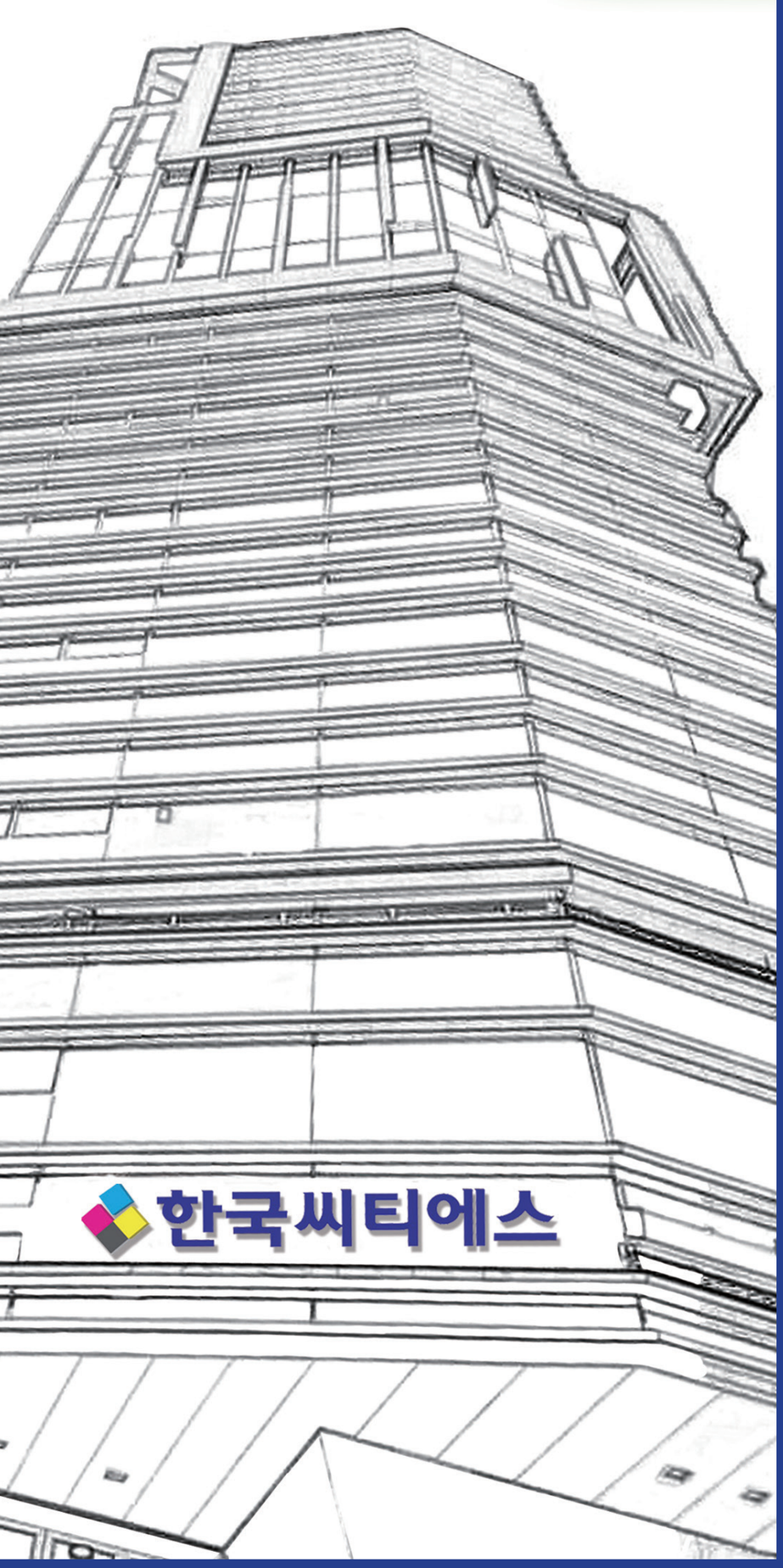
편집—출력—디자인—출판
신문 인쇄의 모든 것
한국씨티에스가 책임집니다

31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년 전통 인쇄 기술력


200여종 신문 제작 대행


차별화된 시스템-서비스



본 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362-1199 / 영업부 02)362-6677 / 전산실 02)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온수동)
Tel. 02)2684-3377

“쓰레기통 같던 마음, 명상으로 싹 청소”



산문 밖의 禪

이용태(58)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600년 전, 인간은 ‘마음’이라는 것의 정체를 알게 됐다. 몰랐던 스스로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깊은 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나은 뜻깊은 사건은 2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수많은 삶에서 뜻깊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 자신의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 다녀온다는 것, 그것은 분명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특별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남긴 분명하고 선명한 법(法)은 구하고자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방법론과 결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마음의 문제는 다시 인류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명의 속도에 지치고 환경의 부작용으로 아픈 시대, ‘나’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인류가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스스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다시금 인류는 ‘나’가 있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2600년 전의 뜻깊은 사건에 다가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나 찾기’는 붓다가 남긴 깨달음의 다름 아니다. 붓다가 처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보았던 것처럼 2020년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다. 누군가는 이미 ‘나’를 보았고, 누군가는 ‘나’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 좀 더 일찍 ‘나’를 보기 시작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을 만난다.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경영위원장이다. 그는 왜 한국명상총협회의 경영위원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좀 더 일찍 명상에 눈뜬 그의 방법론과 결론은 무엇일까.

삼성그룹 입사 후 퇴사 미국유학
국제변호사 자격취득 임원 재입사
삶의 부침 해결 108배가 명상으로
불자 부인 인연으로 명상에 입문

명상의 시작 108배

2010년, 오십을 바라보는 이 위원장은 어느 날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08배를 하기 시작했다. 왜 108배였는지 자신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문득 108배였다.

“주위에서 운동도 된다고 하고, 또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고 해서 시작을 했죠. 처음엔 숙제처럼 했어요. 밥을 먹고 회사에 가는 일처럼 했어요. 삶에 부침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저에게도 삶에 부침이 일기 시작했어요.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번뇌라고도 하죠. 회사에 가면 어느새 마음은 회사에 없고, 집에 돌아오면 또 마음은 집에 없었죠. 해결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불편한 일, 불편한 사람 …, 마음속이 쓰레기통 같았어요.”

이 위원장은 불심 깊은 집안에서 자랐다. 이 위원장은 108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했지만 그의 108배는 ‘문득’이 아니라 ‘인연’이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위원장은 다른 임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좀 더 빠른 길이었다.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근심의 씨앗이었다. 특별함으로 인한 인과였다. 조직 내에서 근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날이 갈수록 무거웠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 위원장은 졸업과 동시에 삼성그룹에 입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위원장의 삶에 그림자는 없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신입사원 전체 연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을 본다. 자신보다 월등히 우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자신이 한 없이 작게 느껴졌다. 이 위원장은 연수를 마치고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난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는 확실한 ‘나’로 살고 싶었다.

마침내 이 위원장은 국제변호사가 되어 그룹의 임원으로 복귀한다. 그렇게 특별한 길을 걸었던 이 위원장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마주하게 된 근심들은 그 특별함으로 인한 인과였다.

“108배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108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부터 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생각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 위원장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다. 108배를 하는 15분 동안 몇날 며칠을 고민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려놓아야 할 일, 받아들여야 할 일 등 오랫동안 얽혀 있던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 때가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였어요. 지금에서 생각해볼 때 아마도 그 때가 명상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자 처음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은 ‘집중’이었어요.”

오래된 미래, 미얀마 행

이 위원장이 108배를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을 때였다. 이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인과와 마주한다. 이 위원장은 삼성그룹을 떠나게 된다. 떠날 때가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5년 동안 108배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마주했다. 쌓이면 쌓이는 대로,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털어내는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떠안고 있는 실존의 문제들과 나란히 걸었다. 30여 년간 몸담아온 회사를 떠나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 역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근심 중의 근심이었지만 이 위원장에게 이제 근심의 위력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이 위원장은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는 미얀마 정부의 법률 고문역을 맡고 미얀마로 떠난다. 그의 오래된 미래였을까. 그는 1년 동안의 미얀마 생활을 통해 그 동안의 시간을 ‘명상’이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길로 연결시킨다.

이 위원장은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온전히 혼자였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이 위원장에게 동기였고 기회였다. 허기 앞에 놓인 식사 같은 것이었다. 이 위원장이 식사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는 짐작이 간다.

B2면에 계속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은…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교(West Virginia University)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삼성전자 해외법무그룹장 및 특허팀장(상무), 삼성 SDI 법무실장(전무), 서울반도체 준법지원실장(부사장), 미얀마 연방정부 재정기획부 법률 고문, 특허법인/종합법률 가산 등을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로 일하는 한편, 명상을 통한 불교 전법을 위해 (사)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 겸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 감사로 봉사하고 있다.

INSIDE

B4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범천 관련 도상

B5 윤성식의 붓다 정치학 윤리의 기준과 불교

B6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통제와 자율



“명상은 실참”이라고 말하는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이 명상하는 모습.



이 위원장은 미얀마 정부 법률고문역으로 1년간 근무하며 명상을 체계화 했다. 사진은 미얀마 근무시절 모습.

한국 명상 세계화 원력… “원류는 2600년 전 부처님”

‘이용태 경영위원장’ B1면에서 계속

이 위원장은 그 시간에 본격적으로 ‘명상’을 자신의 주제로 받아들이고 자기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과 함께 명상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씨앗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목화씨와 같았던 그 씨앗은 이 위원장이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참불선원의 각산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가끔씩 참불선원 법회에 참석해 각산 스님의 ‘명상’을 접한 바 있다. 참불선원의 법회는 대부분 참선법회로 진행되는데 가끔이었지만 법회에 참석해 명상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얻은 것이 많았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던 이 위원장에게 각산 스님은 ‘법화삼매참법기도’를 권했고, ‘명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다. 아쉬운 것은 그 지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 위원장이 미얀마로 떠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더 큰 결실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다.

“미얀마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기 전에 각산 스님이 일러주신 대로 명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법화삼매참법기도도 매일 했지요.”

108배와는 또 다른 시작과 과정이었다. 108배를 통해 경험했던 시간은 ‘절(拜)’이라는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찾았다면 미얀마에서의 시작은 ‘앉는다’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고요였다. ‘앉는다’는 생각은 각산 스님의 조언이었다. 고요와 만나는 것을 명상이라고 했을 때, ‘앉는다’는 시작은 이 위원장에게 새로운, 본격적인 명상을 시작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생각이었다.

“만약 예전의 108배가 없었다면 각산 스님의 지도나 미얀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었더라도 결과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은 예전에 108배를 시작했을 때처럼 또 다른 모색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이 아쉬웠던 것은 각산 스님의 지도를 통해 명상에 제대로 입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각산 스님의 말씀대로 앉았다. ‘앉는다’는 것은 예전에 108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108배가 움직임 속에 ‘나’를 두는 것이었다면 앉는다는 것은 정지한 움직임 속에 ‘나’를 두는 것이었다.

그때처럼 처음엔 ‘앉는 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이 없었다. 108배를 시작했을 때에도 그랬다.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절을 했었다. 절을 하면 무언가 보이겠지.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면 해결되는 게 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크면 클수록 ‘나’는 보이지 않았다. 앉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앉으면 금방 고요해질 줄 알았다. 고요해지면 그 때처럼 무언가와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다.

“108배를 할 때, 어느 날부턴가 절하고 있는 ‘나’를 잊었고, 그때부터 편안한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것처럼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어느 날부턴가 앉는다는 생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앉았다’는 것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앉아있는 것이 그저 앉아있는 것일 뿐이었어요. 절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은 맥락이죠.”

그때부터였다. 이 위원장은 이용태만의 명상을 시작한다. 스승의 지도도 점검도 받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이 위원장의 고요한 시간은 고요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미얀마 법률고문하며 명상 체계화
매일 ‘법화삼매참법기도’ 1독 명상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 맡아
한국명상의 대중화 · 세계화 포부
“한국명상을 한류 문화 중심에…”



참불선원에서 명상 강의하는 이용태 경영위원장.

한국명상의 대중화 세계화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한류라는 문화현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참선과 국내외 수행법을 아우르는 통섭명상을 통해 새로운 한류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체계를 확립하고, 지도자 양성 및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명상총협회가 창립됐다. 각산 스님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한 협회는 창립총회에서 한국 전통 참선수행법에 기반을 둔 통섭명상을 바탕으로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도모했다.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맨 앞줄에 이 위원장이 섰다. 미얀마에서 돌아온 이 위원장에게 각산 스님은 ‘경영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부탁했다. 이 역시 의미 있는 인과였다.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야 하는 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명상 분야와 관련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국명상총협회와 함께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산 스님이 그동안 연구해온 명상교육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가 그의 가장 큰 계획이다. K-POP,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처럼 한국 명상을 한류문화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우리 전통 문화 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참선수행법과 국내외의 수행법을 아우르는 통섭명상을 세계화하는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명상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등 세계적인 인사들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명상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시련은 물론, 전에 없던 정신적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예측한 자료는 2023년에 이르면 정신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류의 우울은 지금까지의 우울과 완전히 다른 시련입니다. 기존의 우울이 고연령층이나 특정 계층에서 겪어야 하는 정신적 어려움이었다면,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오늘의 어려움은 젊은 세대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한창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간을 고립시키는 코로나는 그야말로 힘겨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와 백신은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명상’의 원류는 결국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그때 모든 게 다 이야기됐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결국 부처님 시절에 정리된 이야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교명상과 전혀 상관없이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의 입에서 결국 ‘위빠사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하 수상한 이 시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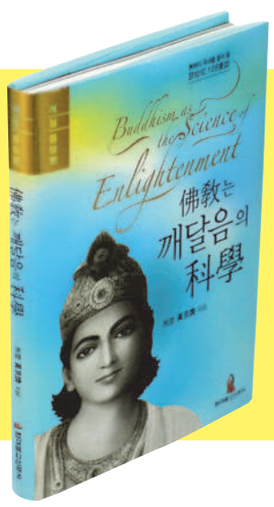
그는 오늘도 고요한 시간 위에 앉는다. 그에게 고요한 시간이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 이용태의 명상은 무엇일까. 그는 “명상은 실참”이라고 말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실참을 거친,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각지에서 많은 숫자들이 코로나에 쓰이고 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2600년 전의 뜻깊은 사건을 다시 떠올려본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개정증보판과
영문판 동시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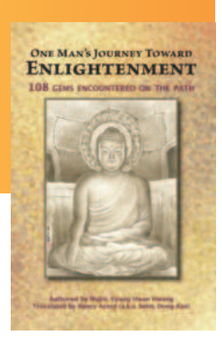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
내일의 죽음을 사고,
잘 배운 지혜로운 제자는
오늘의 삶을 불태워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 버린다. (본문 중에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밖의 108요담



무진 황경환 지음 | 신국판 | 304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 문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02)2004-8253
총판 운주사 02)3692-7186
비움과 소통 031)945-8739

저자 황경환이 한 생애를 투자하여 빚어낸 ‘108개의 그물코’. 깨달음의 여정에서 그가 건져올린 108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책은, 허깨비 장난 같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구도자가 ‘법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부 황경환의 평생에 걸친 노작이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이라는 영문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이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들”이다.

아홉 살 때, 선박업을 하시던 부친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신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다. “환아, 너에게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만난 ‘죽음’이라는 화두는, 그의 인생 여정과 더불어 확대증폭을 거듭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20대 후반에 해상유류판매사업을 하던 그는 바다에 나갔다가 돌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위기를 모면, 밤새도록 성난 파도와 싸우느라 생사를 넘나들다 겨우 살아남게 된다. 재산이라고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고, IMF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환율 인상으로 부채가 두 배로 늘게 되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갑상선암이라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모든 둑카((苦)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면서, 인연법에 따라 불교와 조우하게 된다.

오감과 오감이 주는 쾌감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나’는 종 노릇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어난 존재의 실존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찰해야 한다. 고타마 붓다가 45년간 인류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의 핵심 공식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 핵심 공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설이고 예화이고 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회두피안 NEWS http://www.hdpannews.com

새벽 별보며 불교중흥·국난극복 원력을…



반환점을 거쳐 잠실철교를 지나는 자승 스님과 결사대중.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앞둔 새벽정진 9월 24일 회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치유와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자비순례를 앞두고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한강고수부지에서 진행된 상월선원 만행결사 새벽정진이 9월 24일 회향했다. 7월 공주 태화산 순례 이후 8월 20일부터 매주 정진한 결사대중들은 10월 7일 자비순례를 앞두고 결사 원력을 다시 모았다.

9월 24일 오전 3시, 서울 봉은사 일주문 앞에는 70여 명에 달하는 대중이 모였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21일간 진행되는 자비순례에 참여하는 스님과 불자들이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봉은사부터 탄천 고수부지 자전거길을 통해 천호대교까지 약 18km의 행선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태풍과 함께 폭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이들은 새벽정진을 이어왔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이었지만 자비순례를 목전에 두어서인지 대중들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재가자들 또한 차분한 자세로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봉은사 일주문에서의 간단한 고불의식과 함께 정진은 시작됐다. 묵언 속에서 스님들이 앞장을 서고 재가불자들이 뒤를 따랐다.

봉은사 앞 영동대로의 횡단보도를 지날때나 탄천 고속버스 주차장 옆을 지날때나 고요한 침묵은 이어졌다.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걷는 동안 새벽 운동에 나온 시민들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봉은사 신도라고 밝힌 금강심 진설자 씨(68)는 "스님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대구 동화사에서부터 걷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새벽마다 정진하시는 것을 직접 보니 그 숭고한 마음에 저절로 발심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이들이 어려운데 불자들의 하나된 마음이 전해져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주 목요일 한강 18km 행선
새벽이슬 맞으며 중흥을 발원
시민에 국난극복 의지도 알려

새벽정진이 한시간 반이 지난 약 4시 30분경 천호대교에서는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묵언 속에서 정진하던 대중들은 조금씩 말문을 열고 함께 준비해 온 다과를 나눴다. 10분간의 짧은 휴식도 잠시, 대중들은 출발지인 봉은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염주를 돌리고 정근을 하는 등 발걸음은 빨라졌지만 수행으로서의 걷기는 진중해졌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날이 밝아오고, 한강 자전거길에는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빠르게 봉은사로 이동했다. 마침내 회향의 순간 새벽정진 대중들의 표정에서는 일종의 환희심이 느껴졌다.

새벽정진에 한차례도 빠짐 없이 참여한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연습 형태지만 동화사부터 시작하는 만행결사를 위한 준비를 잘 마쳤다는 생각이 든다. 만행결사 외에도 이런 정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21일간의 자비순례에도 참가하는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도 "이번 새벽정진 참여로 인해 21일간 잘 걸을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대학생 시절 신심으로 스님들과 함께 근 한달간 걷는다는 것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 생각했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계속 잘걷고 정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결사대중들은 10월 7일부터 21일간 펼쳐지는 '불교중흥과 국난극복 자비순례'에 참여한다. 자비순례는 10월 6일 오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7일 오전 8시 동화사 약사여래대불 앞에서의 고불과 함께 정진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앞길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도 입재식에서 증명법사로 나선다.

매일 30km 이상씩 총 500km을 거쳐 10월 26일 위례 상월선원에서 야단법석을 개최하며, 27일 서울 봉은사 대웅전에서 자비순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자리는 향후에 있을 인도만행결사에 대한 새로운 원력을 다지는 자리다.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순례에 참가한 분들이 무사히 사고 없이 뜻하는 정진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아울러 불자들의 신심이 돈독해지고 불교중흥의 단초가 제공되길 바란다. 또 자비순례를 통해서 국가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극복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환점을 지나 봉은사로 향하는 결사대중

거리두기 플래카드를 지나는 스님들

정진에 참여한 재가자들의 모습

봉은사 일주문을 나서는 결사대중

만행결사 자비순례

10월 7일~10월 21일
동화사서 봉은사까지
하루 30km, 500여km
인도결사와 동일 방식

삼성동 봉은사로를 걷는 결사대중

범천, 부처께 간곡히 법을 청하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⑲ 범천 관련 도상

불법을 지키는 여러 신들 중에서 으뜸을 꼽는다면 범천과 제석천일 것이다. 조선 불화의 〈신중도〉 속에서 범천과 제석천은 상위의 신으로서 자리하고, 그 아래에 위태천이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 지난 글들에서는 제석천과 위태천의 기원과 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기부터 부처님을 보필하거나 협시의 역할을 하였던 범천은 어떠한 기원과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

범천(梵天)은 아리아인의 종교 브라만교에서 만물을 성장시키는 절대자 브라흐마(Brahma)가 불교의 호법신으로 수용된 것이다. 〈베다(Veda)〉에 의하면 브라흐마는 황금알에서 태어나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을 차례로 창조했다고 하며, 혹은 비슈누의 배꼽에서 피어난 연꽃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불교에서 범천은 몰라함마(沒羅含摩), 범마(梵摩), 범왕(梵王), 대범천왕(大梵天王), 시기(尸棄), 세주(世主)라고도 하며, 불교의 우주관에서 색계 초선천(初禪天)의 위치를 부여받았다. 색계 초선천은 제석천이 머무르는 욕계 도리천(忉利天)의 위에 있어, 위계로 본다면 제석천보다 높다.

브라만교 '브라흐마'가 호법신으로
색계 초선천 부여… 제석천의 상위
불교경전 '범천권청' 일화로 유명해



범천이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설법을 청하는 '범천권청'을 표현한 도상. 시크리에서 출토됐으며 2~3세기 간다라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키스탄 라호르 뮤지엄에 소장돼 있다.

불교 경전에서 범천은 제석천과 함께 정법을 보호하는 신으로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올 적마다 반드시 제일 먼저 설법을 청한다. 그런데 현존하는 조선불화에서의 범천은 제석천이나 위태천보다 어떠한 고유한 특징이나 위상이 매우 약하다.

브라만교 최고의 신 브라흐마가 불교에 차용된 후 호법신 범천으로서 어떠한 역할과 위상을 가졌는지도 궁금하다. 범천은 싯다르다 태자의 탄생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는 고사를 담은 불전(佛傳)의 모든 장면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교사에 가장 뚜렷한 역할을 한 것을 꼽는다면 '범천권청(梵天勸請)'일 것이다.

불전에 전해지는 '범천권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 당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난해하고 심오하여 일반 사람들의 이해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염려한 나머지 전도와 설법을 주저하셨다. 이때 범천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만약 진리를 설하지 않는다면 그 훌륭한 가르침이 세상에 묻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잠겨 생과 사에 시달리다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설법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범천의 간청을 받아들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함께 고행 수도를 했던 다섯 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빌바에서 출발하여 바라나시 교외의 리쉬 파타나에 있는 녹야원까지 200Km가 넘는 먼 여정에 올랐다. 긴 여정을 마치고 리쉬 파타나에서 행해진 석가모니의 첫 설법이 바로 '초전법륜(初轉法輪)' 혹은 '사르나트 설법', '녹야원 설법' 등으로 칭해지는 것이며, 불교회화의 불전도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널리 알려진 장면이다.

불교의 개시와 전도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범천권청이 기록된 경전을 살펴보면, 팔리어 경전에서는 〈맛지마니까야(Majjhima-Nikāya)〉 〈쌍윳따니까야(Saṁyutta-Nikāya)〉 〈디가니까야(Dīgha-Nikāya)〉 등이다. 또한 한역 경전에서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내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장아함경(長阿含經)〉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보요경(普曜經)〉 〈불소행찬(佛所行讚)〉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 〈불본행경(佛本行經)〉 등 다수의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일아함경〉에 기록된 범천권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국(摩竭陀國)의 도량나무 밑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도를 얻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 '내가 얻은 매우 깊은 이 법은 밝히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며, 깨달아 알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설령 내가 남을 위해 이 묘한 법을 연설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 주지 않거나 또 받들어 실천하지 않으면, 부질없이 수고롭고 손해만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어찌 꼭 설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 범천왕은 멀리 범천에서 여래의 생각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마치 역사가 팔을 굽혔다 펴는 것 같은 짧은 시간에 범천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더니 곧 세존 앞에 나타나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범천이 세존께 아뢰었다.

"여래(如來)·지진(至眞)·등정각(等正覺)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마땅히 법보를 연설하시는데, 지금 그 법을 연설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직 바라건대 여래께서는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심오한 법을 널리 연설하소서. 그리고 이 중생들의 근기(根器)는 제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을 듣지 못한다면 영원히 법안을 잃게 되어 이들은 분명 법에서 버려진 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태어남·늙음·병듦·죽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근기는 이미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을 듣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만다면, 그 또한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디 원하건대 세존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설법해 주소서."

파키스탄 라호르 뮤지엄 소장의 2~3세기 경 스투파의 기단 부분에 묘사된 부조는 위 경전의 내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중앙에 가부좌를 취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두 손을 합장하고 법을 청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한 범천이 보이며, 왼쪽에는 머리에 터번을 두른 제석천을 확인할 수 있다.

간다라 지역에서 브라만교의 청년 수행자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 범천은 이후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석가의 탄생, 범천권청, 열반의 장면에 소라 모양의 상투(螺髻形)를 틀은 나이든 수행자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상은 중국에 전해져 6세기경까지 유행하였으나, 당대(唐代, 618~970)부터 범천은 제왕과 같은 복식을 갖추고 흰색의 불자(拂子)를 든 모습으로 좌우에 범천녀(梵天女)를 거느린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당대 이후 신중사상과 불교의식들이 성행하면서 점차 제왕형 범천도상이 정형화되었고, 라계형 범천은 거의 사라져 갔다. 원대(元代)와 명대(明代)에는 범천과 제석천이 제왕의 모습으로 수륙화의 여러 신들 중에 포함이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석굴암에서 8세기 범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생김새가 젊은 수행자나 소라 모양의 상투를 튼 늙은 수행자 혹은 중국의 제왕형 범천이 아닌 천의를 걸친 천신형에 가깝다. 이러한 천신형 범천의 출현은 간다라나 중국과 다른 도상적 특징으로서 통일신라 시기에 유행한 〈불설다라니집경(佛說陁羅尼集經)〉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불설다라니집경〉의 관련 내용은 이렇다.

"보살의 오른쪽 행랑에는 범마천을 안치하되, 온몸이 흰색이고 귀에 보배 귀걸이를 했으며, 목에 칠보의 영락을 두르고 양탄자 위에 서

설법 주저하는 부처에게 청법 장면
도상화돼 중앙아시아를 거쳐 전래돼
韓천신형 범천 〈불설다라니경〉 영향

있다. 오른손은 팔을 구부려 어깨 위로 향하여 손에 흰 불자를 잡고 왼손은 팔을 편 채 손에 조관(澡罐)을 잡고 있으며, 허리 밑으로 아침 노을빛 치마를 입고 화려한 비단 그물과 수로 장식한 의복을 입고 있다. 그 범천은 몸에 자색(紫色) 가사를 입고 꽃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파기광(簸箕光)을 내고 있으며 손과 발과 손목에는 모두 보배팔찌를 두르고 있다."

석굴암에 조각된 범천은 위 경전과 동일하게 귀걸이와 영락을 두르고 양탄자 위에 시립해 있으며, 오른손을 구부려 불자를 잡고 왼손은 팔을 펴 조관을 들고 있어 석굴암 범천의 도상학적 근거를 〈불설다라니집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후 범천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천신형으로 고정화되었으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이마에 제3의 눈이 그려지기도 하였다.

신중도에서 범천은 독립적이지도 그리고 비중도 크지 않지만, 만약에 범천이 석가모니께 설법을 청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개시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범천은 자신이 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



국문학자의 손길이 닿은, 적절한 현대어 선택과
운율을 고려한 번역! 늘 옆에 두고 경구처럼 읽고 되뇌면서
삶과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가르침!
이종기 옮김/양장/360쪽/값 18,000원

명나라 4대 고승 감산대사의 주석!
수능엄경통의 1·2



불교의 철리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행자들의
필수 지침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종지'로 원융회통한,
"교법의 준칙이요 선종의 정안正眼!"
감산 덕청 지음/장순용 역주/양장/1권 27,000원/2권 25,000원

방거사의 어록과 시 전편 한국 최초로 완역!
방거사 어록·시역주



이제껏 『속장경』의 방거사어록 3권 중 상권의 어록만
소개되었는데, 중·하 권의 시게詩偈와 찬문의 완역으로
드디어 방거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강승욱 역주/양장/528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是非(시비) 판단 기준 '貪(탐)·嗔(진)·癡(치)' 유무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⑲ 윤리의 기준과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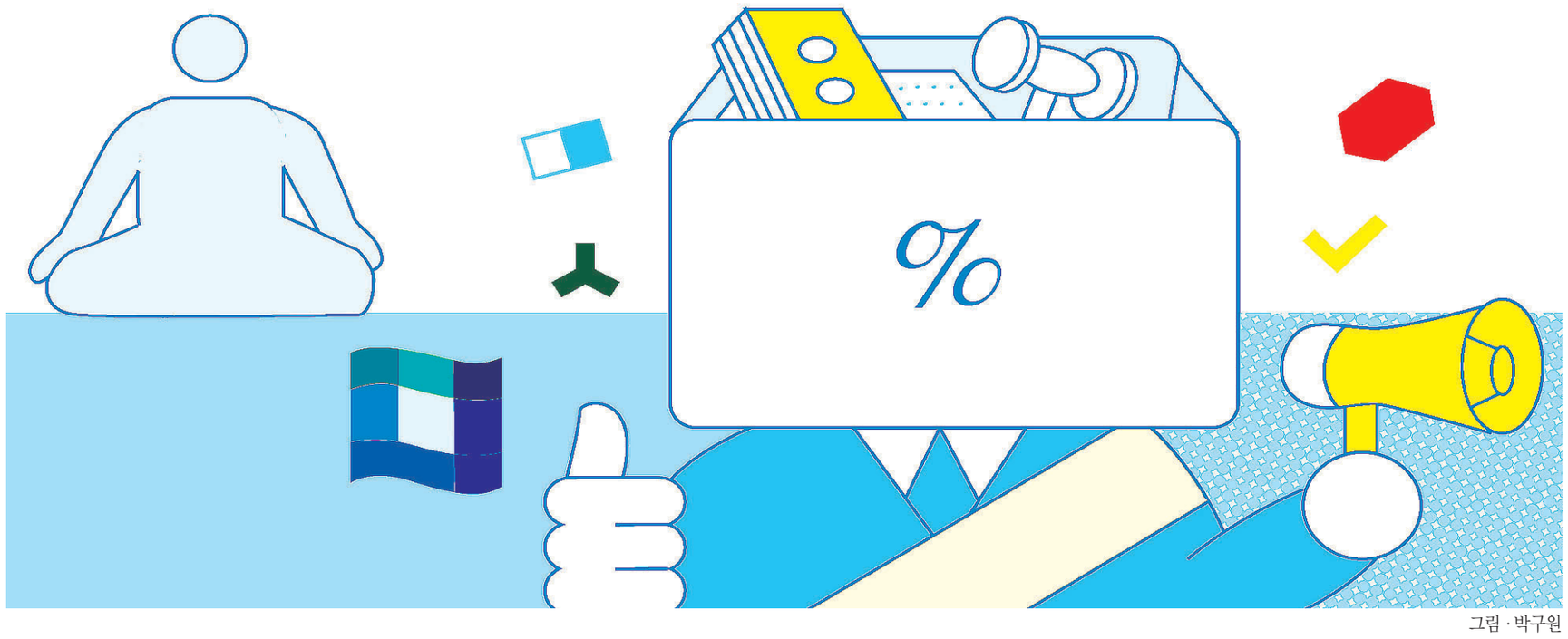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정치 옳고 그름 어떻게 판단하나?

월드컵 세계 4강은 히딩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신화다. 히딩크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한때 히딩크 리더십까지 이야기되었다. 히딩크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던 젊은 흑인 여성은 TV에 자주 노출되었기에 국민의 눈에 뜨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히딩크와 20세의 나이 차이가 났다고 한다. 히딩크와 그녀는 부부였을까? 아니었다. 히딩크는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와 살고 있었다. 어느 TV 채널에서 네델란드에 있는 히딩크 부인 집을 방문하였으나 인터뷰가 거절당하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만약 한국인 감독이 부인과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살 어린 흑인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당장 파면 당하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 했을지도 모른다. 히딩크와 연인은 그다지 환영 받는 커플은 아니었지만 한국 사람의 비판이나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 왜일까? 우리의 이중잣대 때문이다. 서양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니 괜찮다이고 한국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괜찮지 않다일까?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 나라도 외국인이 심심치 않게 증가했다. 서울은 특히 길거리에서 서양인을 보는게 드물지 않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는 말대로 히딩크도 한국인의 윤리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윤리 기준을 어기면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계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이 남의 나라에서 살거나 여행하게 되고 다른 윤리 기준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만약 하나의 윤리 기준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윤리 기준끼리의 충돌은 생기지 않는다.

오래 전에 유엔은 세계화의 시대에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윤리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했다. 전세계의 유명한 윤리학자와 종교인들이 첫번째 윤리기준을 만들었다. 첫 번째 윤리기준은 흔히 윤리에 관한 황금률(golden rule)이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즉 '네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다. 이 구절은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이다보니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규정이 될 수 있다.

〈잡아함경〉에는 "나는 생각한다. '만일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죽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살생하지 않는 계율을 받고 살생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 쓰여있고 〈논어〉에도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라는 구절이 있다.

경전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는 기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 기준이 쓰여 있다. 탐진치에 의한 행동은 악하며 탐진치가 없는 행동은 선하고, 즐거움을 수반하는 행동은 선하며 괴로움을 수반하는 행동은 악하고, 집착이 있는 행동은 악하며 집착이 없는 행동은 선하고, 자비가 없는 행동은 악하며 자비가 있는 행동은 선하다. 또한 열반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로 간주하며 그렇지 못한 행위는 악한 행위로 간주한다. 불교는 윤리 기준에 의해 도덕률을 제정하였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계는 불교 윤리 기준의 구체적인 도덕률이다.

연기법에 의하면 나와 우리 모두는 각각 독자적인 실체가 없는 연기적 존재이다. 나와 남이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혹은 추구해야한다면 연기법은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인연법과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경전은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한다' 고 말하며 또 '모든 존재는 행복하여라' 고 설한다. 그러므로 연기법은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윤리는 정치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여 자유시장경제의 정점을 주장한다. 아담 스미스야 말로 자유시장경제의 멘토이며 자유시장경제의 기수이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고 기업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아담 스미스는 더 중요한 말을 했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말을 자신의 저서 '국부론' 에서 두 번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는 그보다 윤리를 더 강조했고 '도덕감정론' 이라는 저서까지 냈으며 우리에게 유명해진 국부론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생각은 감추어지기 때문에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주관이 개입되는 윤리영역
나와 남의 위치 바꿔 판단
아집, 독선 버린 여실지견
국민 윤리 바로 세울 비결

대해 윤리의 칼날이 휘둘러진다. 정치인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하여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 윤리가 정치에 적용되는 범위는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숨겨진 내연녀와 딸이 있었지만 별다른 비난을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숨겨진 내연녀와 딸이 있었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도덕적 자유의 범위가 훨씬 넓은 프랑스라 하더라도 독재는 용납되지 않는다. 독재는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다고 믿는 인권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부패와 불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일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 명백한 옳고 그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윤리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경전은 옳고 그름에 대해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정치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탐진치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있는 행동은 악하다. 과연 정치인의 행위 중 탐욕이 없는 행위가 있을까? 아니 인간의 행위 중 탐욕이 없는 행위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는 불교의 윤리 기준 이외에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 정부의 결정과 행위를 판단할 기준은 없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는 불교의 윤리 기준도 적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행위는 괜찮아' 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나는 그런 행위가 너무 싫어' 라는 사람도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들 그렇게 하고 살잖아?'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그렇게 살아?' 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이럴 경우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결론내야 하는걸까?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정치의 영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치는 온 국민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인을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윤리기준보다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윤리기준은 좀 더 느슨해도 될까? 우리보다 못한 놈들이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에게 보다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국민을 대신하라고 선출해 주었고 국민은 갖지 못하는 권력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해고되지는 않지만 정치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그 자리에 임명되지도 못하거나 임명되었다면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살까? 제1회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일등한 거짓말은 '저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였다고 한다. 언젠가 언론에서 인간이 평균 하루에 몇번 거짓말을 할까를 조사한 연구를 보고 놀란적이 있다. 수십 번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 국민이 거짓말했다고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처할까? 글쎄다.

우리보다 못한 정치인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게 말이 될까? 무언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인간이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언제나 그럴싸하게 합리화한다. 이유는 언제나 찾을 수 있다. 이럴 때 활성화되는 뇌부위를 조사해봤더니 이성을 관장하는 부위가 아니라 감성을 관장하는 부위였다.

정치의 영역에서 옳고 그름이 명백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명백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판단해야 한다. 정치에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여론 조사와 선거에 의해 가능하다. 결국 옳고 그름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탐진치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윤리 기준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앞에서 보았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탐욕이 있다고 그의 행위가 모두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고 그른 판단이 된다는게 불교의 관점이다.

우리가 정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 아집, 독선이 없어야 한다. 정치인, 정당, 정책, 정부에 대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 집착을 떠나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는 여실지견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이 아니고 그른 판단이 된다. 정치인, 정당, 정책, 정부도 윤리적이어야 하지만 국민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고려대 명예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스스로 풀고 깨닫는 지혜 '불교'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⑲ 통제와 자율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신음하는 님이여.
그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19-1 코로나가 지구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짜증과 화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에게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 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폭발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부모에게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참아야 하는데 왜 못 참았을까' 후회하지만 이미 상처를 주고 말았지요.

마음의 상처는 관계로부터 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믿고 의지해야 될 그들로부터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상처받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19-2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자라온 과정과 아이들 양육 과정을 돌아봅니다.(1-2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주문이 많고 강제가 많지 않았나요? 걸핏하면 칭찬보다 비난의 고성이 쏟아집니다. 부모는 아이를 지배하려 들고 자신의 신념을 주입시키려 들기 바쁩니다. 부모의 생각만 옳다고 통제하려 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수많은 자책과 비난으로 마음을 할퀴고 상채기를 냅니다. 쏟아지는 총알은 전쟁터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삶이 곧 전쟁터라니요. 그것도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가정, 그리고 최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가족과 자신마저 가해자 노릇을 한다면 그야말로 암흑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겠군요. 기실 부모들도 자라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랐기에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은 비난과 질책으로 위축되고 억압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지요. 설교나 훈계로는 일어날 수 없고 엄벌로는 개선은 커녕 창의성과 자율성, 나아갈 가능성마저 잃게 합니다.

19-3 출생과 함께 엄마로부터 분리된 아이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과제가 안정감과 신뢰감이라면 두 번째 과제는 자율성과 주체성입니다. 아이가 자율성을 키우기 시작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첫무대는 밥상입니다. 아이는 밥을 잘 먹기도 하고 싫다고 버티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대변을 가릴 무렵에 함부로 싸버리기도 하지만 싸지 않고 참기도 합니다. 이 두 과정이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가 무서운 압력을 가하면 아이는 자라서 강박증에 걸리거나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윗사람과 관계가 불편하여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자주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안정감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획득한 아이도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출현입니다. 외동이라구요?(웃음) 지금까지 독점했던 부모와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갑자기 나타난 아기에게 쏠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아직 이해력이 충분하지 못한 아이에겐 동생의 출현은 참을 수 없고 분통이 터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요. 하여튼 인간은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여서 결국은 받아들이지만 늘상 마음 속에는 형제에 대한 선망과 시샘이 있어서 자주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지요. 이 싸움은 길게는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지만 대체로 동생을 체력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폭력적으로 제압하려들지 않게 되지요. 이 긴 형제의 전쟁은 사실 인격 발달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형제 간의 교유와 싸움을 통해 아이는 사회성을 배우고 이기적 나르시즘으로부터 벗어나고 선의의 경쟁과 공존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9-4 이 형제 간의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가 부모의 어려운 과제이자 중요한 책임이지요. 부모들은 대체로 '동생에겐 이래선 안된다. 형은 이래야 된다.' '여자에게 그래서는 안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등의 가치관과 도덕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때 자식 가운데 어느 한 편을 들면 다른 아이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되고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친 질책이나 간섭은 자율적인 해결 과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투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끝까지 진행시켜서 원만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켜봐주고 중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중재해준다면 아이들은 건전한 토론 문화를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너무 완벽하고 가혹한 훈육은 융통성이 없는 고집 불통의 아이 또는 자기 표현을 적절히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 (정치판에서 보듯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성, 갈등 관계서 커져
누구에게 배우는 강제보다
스스로 깨닫는 지혜 방편
증장시키는 새 방법 모색

19-5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는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및 관용에 의해 자신감 있게 세상을 경험하며 자립심을 키웁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경이로움은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성을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립심을 키우면서도 부모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하며 의존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상호의존성은 건강한 자립의 바탕이 되고, 친구와 우정을 쌓고 이성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어린 시절 부모와 상호 의존된 친밀감의 경험 덕분이지요. 독립은 고립이나 독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된 자립이라 할 수 있군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의지되어 존재합니다. 홀로 분리되어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도 나 홀로 이 세상에 고립된 느낌, 외로움과 공허함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버림받을까 두려워 아무와도 그리고 무엇과도 관계를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19-6 건강한 자립을 성취한 아이는 자신의 모습,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특별하다 느끼며 자신이 해내는 일들이 신기하고 자신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라 느끼면서 자존감이 굳건하게 뿌리내리지요. 그러나 이러한 발달 과제가 사랑의 결핍이나 부모의 학대, 무관심, 또는 과잉보호와 통제에 의해 원만히 성취되지 못할 때 불신, 열등감, 수치심, 분노, 공허감, 무가치감, 적대감 등이 마음 속에서 바이러스처럼 증식됩니다.

자신이 더이상 경멸과 고립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편협함과 피해의식으로 방어하고 도벽, 거짓말,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이단 종교와 각종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각종 중독 상태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반사회적 심리 상태로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19-7 이 모두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 세상, 곧 부모의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양육에 기인합니다. 부모를 미워하여야 하지만 미워할 자유도 박탈된 채 자란 것이지요. 그 부족한 사랑마저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적개심을 깊이 숨기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폭력적으로 폭발하거나 자해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정한 자립은 그런 박해자들과 맞서 자신을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전한 공간, 상담실에서 마음 놓고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지요.

19-8 부모나 배우자가 그리 해주지 못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나 자신도 그리 못해주는데' 라는 자각이 들려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호흡을 살피고 마음 들여다 보기(자신을 바라보기)입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안아주는 작업이 명상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어찌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대로 놔두고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호흡과 함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있노라면 흙탕물이 점점 가라앉듯이, 안개가 가만 놔두어도 걷히듯이, 그렇게 서서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호흡과 함께 걷고 호흡과 함께 앉습니다.
호흡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처음에 거친 호흡이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파도 가라앉듯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의 신묘한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하여
감정의 너울도 고요해집니다.
마음 깊은 곳 예지의 빛이 작동하면
암흑도 새벽 여명처럼 물러나고
절망적 상황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군요.
바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봅니다.

19-9 붓다의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는 가르침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음이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는 안된다' 통제하지 않음이며,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흡이 거칠면 거친 대로 가쁘면 가쁜 대로 그냥 놔두고 지켜봄이 중요합니다.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지요.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호흡은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고 생각도 억지로 없애려 들지 않아도 꼬리를 접게 됩니다. 격앙된 감정은 바로 진정되지 않지만 따뜻하게 품어 오래오래 지켜보면 앙앙 울어대던 어린 아이가 잠드는 것처럼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명상에서 배워야 할 것은 통제나 규제보다 자율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나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획일적 통제 사회보다 자율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사회가 우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인간관계의 상호의존성을 분석 통찰한 것으로 모든 고통과 재앙은 그럴만한 연유가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종식된다는 가르침이지요. 정답을 정해놓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고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풀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고요함이 가득하여라



님이 오시는가
내가 가고 있는가

어느새 님은 내가 되고
나는 님이 되었네

슬픔은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졌네

옳고 그름도 비켜서고
죽고 살고도 상관할 바 아니네

햇살이 어둠을 업고
고요함이 가득하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머리 장식이 뿔처럼 생겼고, 손에는 북을 들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샤먼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편 다리 달린 동그라미는 무엇일까? 태양일까? 달일까? 달은 대체로 초승달이나 반달 모양으로 그려서 쉽게 구분된다. 이 그림은 태양이라고 생각된다.

태양이라 하더라도 특이하다. 태양의 빛살을 표현하지 않았고, 태양에 두 다리가 있다. 다리 달린 태양이 날마다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을 것이다. 태양은 태양신이 되었다.

샤먼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들어주는 이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기도하는 나도 없고, 기도의 대상도 없어지면서, 둘이 하나 되어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녹여 안은 고요함이 가득했을 것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⑲ 법정 스님 2

매화와 수선화 같았던 수행자



〈서신 1〉

연꽃모임 껍데기들 동반한다니 잘 한 일입니다. 대원성체면을 생각하더라도 어디 안 나가고 있어야겠지요. 봄이라서 집 비우고 어지간히 돌아다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도 선량한 거사님한테도 신경을 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불일의 뜰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은은한 꽃향기를 발하고 축대 밑에서도 수선이 쏙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봄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그럼 산에서 만날 때까지 더욱 더 예뻐지십시오. 목소리도 좀 톤을 낮게 하고요.

– 4월 14일 불일암에서 합장

〈서신 2〉

오늘 引路王(인로왕) 보살 노릇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山色(산색)도 좋아 다행이었습니다. 껍데기들이 적어 유감스러웠지만. 김두현 거사님과 해운대 집에게 淨財(정재) 감사히 받았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지금쯤 선암사에 닿아 참배하겠습니다. 귀로 편안하기를 빕니다.

– 4월 29일 불일암에서 합장

어느 해, 연꽃모임이 3사 순례를 가기로 했을 때였다. 부부동반으로 간다고 스님께 미리 소식을 드렸더니 너무나 잘 한 일이라며 반기셨다. 스님은 늘 거사불자가 적은 것을 걱정하셨다. 그래서 평소 보살들에게 남편과 함께하는 신행생활을 강조하셨고, 거사불자가 많아지기를 바라셨다. 그래야 좀 더 불교의 저변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불교를 생각하시면서도 각자의 집안일도 강조하셨다. 내가 워낙 여기저기 쉼 없이 돌아다닐 때라 조금 걱정이 되셨던 것 같다. 남편과 아이들 잘 챙기라는 말씀에 마음이 훈훈했던 기억이 난다.

연꽃모임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순례를 가거나 먼 곳의 법회에 갈 때에는 많은 회원들이 움직여야 했다. 많을 땐 버스 2대가 움직였다.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자니 자연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스님은 그런 내 모습을 보실 때마다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라고 당부하셨다. 왜 아닐까. 고요함에 익숙하신 스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쓰이고 일러주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다.

'서신 2'는 우리(연꽃모임)가 불일암에 다녀간 후에 쓰신 편지다. 부부동반으로 가기는 했지만 남편들의 참여가 생각보다는 적었다. 스님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편지에서 아쉬운 마음이 보인다.

매화가 은은한 꽃향기를 내고 축대 밑에서는 수선이 얼굴을 내밀던 불일암. 매화 같고 수선 같았던 스님. 지금도 봄마다 불일암에는 매화가 은은하고 수선이 축대를 바라보겠지만 스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도 다시 봄이 오는 날에는 불일암에 한 번 다녀오고 싶다. 스님은 계시지 않겠지만 매화 향기 속에서, 수선의 얼굴 속에서 왠지 스님의 모습을 뵐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한참 기다려야겠지만 봄이 기다려진다.



불일암을 찾은 연꽃모임 거사들과 함께한 법정 스님(중앙).



| 공모주제 - 자유
-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 자비, 정진
- 내가 바라본 사찰, 내가 경험한 수행
- 나의 스승, 나의 도반, 나의 신도
- 사찰행사, 포교현장 등

| 응모기간
- 응모기간 : 9월 7일(월) ~ 11월 30일(금)
- 심사발표 : 12월 말 경

| 영상규격
- 휴대폰으로 촬영한 3분 미만의 해상도 1920*1080, 1280*720 동영상

※ 1인당 최대 3작품 응모가능
편집본인 경우 저작권이 없는 무료음원, 무료폰트만 사용가능

[NOTICE]
-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하고 입상에서 탈락한 작품(파일)은 폐기함.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영상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1인에 대해 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상금이 많은 분야만 시상함.
-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하여 동영상 파일과 함께 e-mail으로 동영상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e-mail : btngongmo@btn.co.kr

| 시 상

BTN 회장상 (1명)	상금 1,000,000원
BTN 사장상 (1명)	상금 1,000,000원
금상 (1명)	상금 500,000원
은상 (2명)	상금 300,000원
동상 (2명)	상금 200,000원
가작 (3명)	상금 100,000원

※ 당선작은 자사채널(TV, VOD,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예정

| 심사기준
- 내부 심사로 주제 적합성, 창의성, 공감성, 활용성 등 종합 심사

| 공모대상
- 국내외 사찰 거주하고 있는 모든 스님들 (외국인 스님 포함)

| 문 의
- 스마트폰 동영상 공모전 운영팀 : 02-3270-3430

[수상 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현대불교신문 애독자와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한가위 되세요

현대불교신문을 후원해주신 분들

강갑순 권형상 김병훈 김영선 김종금 김희섭 문영현 박순이 박혜성 서정자 신정우 엄미경 윤숙경 이미화 이용법 이혜영 전정애 정창남 천명혁 추영희 허복영 혜용스님
강금분 권효심 김보련 김영숙(2) 김종선 김희숙 문영희 박순임 박혜진 서주희 신정희 엄상호 윤순이 이민서 이용자 이호진 전조계 정춘복 천병길 표선옥 허애령 혜춘스님
강길전 김경국 김보현(2) 김영식 김종숙(2) 김희자 문임숙 박순정 박효미 선덕스님 신조현 엄태영 윤연수 이병제 이원상 이화자 전종학 정태순 천상봉 하강수 허수자 혜타스님
강도분 김경숙(4) 김부원 김영애(2) 김종순 김희준 문재근 박순혜 박 훈 설관수 신진환 연영자 윤연주 이병현 이원식 이화행 전진수 정필윤 천수만 하성권 허애순 혜한스님
강명옥 김경순(2) 김상덕(2) 김영예 김종영 김희진 문점숙(2) 박양순 박흥국 설송스님 신진희 염종희 윤영상 이복동 이원칠 이훈노 전창식 정하석 천영기 하여안 허연자 혜해스님
강문자 김경영 김상원 김영옥 김종학 나광희 문정희 박연신 박희복 설영수 신현준 예태순 윤영선 이복성 이원희 이흥숙 전행자 정학진 천우사 하을희 허의숙 혜화스님
강민수 김경자 김상재 김영웅 김종현 나귀례 문지현(2) 박연희 박희순 설정수 신희순 오경환 윤영숙 이복희 이유순 이희두 정갑임 정해림 천윤덕 하재한 허인성 혜환스님
강민정 김경태 김서분 김영자(2) 김종훈 나근수 문형자 박영숙 방명극 설해인 신희정 오공표 윤영옥 이봉희 이윤희 이희숙 정경옥(2) 정현욱 청무스님 한강복 허재균 혜후스님
강민주 김경화 김서현 김영주 김종희 나미숙 문희자 박영순 방명섭 성거사 심경우 오막순 윤옥현 이상국 이은정 이희정 정고비 정현정 최갑식 한경호 허재승 호정은
강병주 김경훈 김선식 김영팔 김주한 나정수 민상홍 박영식 방문화 성기은 심경희 오명환 윤용석 이상규 이은희 일 인 정군자 정혜숙 최경수 한계연 허점둘 호정민
강복자 김계봉 김선엽 김영해 김 준 나준식 민숙자 박영애 방성자 성낙두 심성학 오미경 윤원자 이상락 이익수 임경옥 정금란 정흥교 최경자 한기운 허추자 홍길용
강봉석 김광현 김선옥 김영희 김준혜 나홍열 박강숙 박영우 방순자 성말순 심숙자 오복순 윤정숙 이상민 이인상 임문숙 정금희 정희경 최계숙 한기준 허태환 홍미화
강봉스님 김군자 김선자 김예지 김지예 나홍용 박건웅 박옥경 방장수 성민기 심숙희 오신재 윤정일 이상숙 이재봉 임보라 정길동 조경순 최기남 한명선 허필창 홍민자
강상심 김귀순 김성기 김옥선(2) 김지원 남금자 박경숙 박옥남 방태균 성민서 심여진 오영숙 윤향숙 이상심 이재숙 임선희 정나나 조경화 최낙식 한명수 현남심 홍선사
강성우 김귀임 김성미 김옥수 김지함 남선자 박경수 박옥순 배경자 성민자 심영내 오영희 윤희원 이상일 이점선 임심결 정덕남 조동래 최난진 한복국 현복자 홍 순
강성호 김규도 김성용 김옥자 김지현 남은영 박경순 박옥정 배명옥 성병준 심영애(2) 오용근 이강만 이상태 이정남 임양희 정덕수 조동조 최남홍 한복희 혜가스님 홍순미
강순복 김규석 김성자 김용동 김지혜 남정현 박경환 박용숙 배복순 성불사 심영자(2) 오인숙(3) 이경례 이상필 이정민 임옥빈 정동하 조미영 최동욱 한선가 혜공스님 홍순아
강순희 김근영 김성준 김용락 김진금 노만수 박경애 박유철 배삼순 성태용 심운미 오재영 이경숙 이상호 이정옥 임인자 정명스님 조민규 최미선 한성욱 혜관스님 홍순혁
강영내 김금란 김성지 김용만 김진남 노미자 박경희 박은우 배수은 소명남 심원식 오정애 이경아 이서하 이정자(2) 임재환 정뭉화 조봉순 최미숙(2) 한영애 혜권스님 홍순형
강윤창 김금옥 김성태 김용석 김진영 노성희(2) 박계수행 박은주 배숙자 소충호 심유진 오정희 이경애 이석택 이정재(2) 임종구 정미영 조봉천 최 백 한영찬 혜눌스님 홍윤자
강은채 김금자 김세영 김용섭 김찬수 노실호 박공임 박임선 배영숙 손광자 심재만 오준탁 이계동 이선안 이정조 임춘희 정미화 조비송 최병락 한윤심 혜도스님 홍춘자
강일순 김기석 김소정 김용숙 김찬영 노영애 박광순 박장미 배윤자 손문철 심재화 오지영(2) 이계숙 이선영(2) 이정형 임희석 정복순 조상원 최복섬 한윤진 혜라스님 황경숙
강임순 김기준 김손희 김용순 김찬율 노우현 박기섭 박재명 배은호 손영하 심춘자 오지훈 이곡점 이선자 이종섭 자인스님 정분선 조성국 최복순(2) 한은섭 혜란스님 황광접
강정숙(2) 김기홍(2) 김수경 김용호 김철수 노재일 박기준 박재석(2) 백광수 손윤기 심현보 오필선 이광석 이선희 이종애 장규숙 정상윤 조성일 최봉희 한정교 혜려스님 황논철
강춘계 김길봉 김수민 김용환 김철종 노현주 박나리 박재훈 백근혁 손정순 안경호 오희숙 이광수 이성경 이종옥 장금실 정서영 조신제 최성호 한정숙(2) 혜룡스님 황부향
강호순 김나은 김수옥 김운아 김추자 노호현 박남순 박정남 백길수 손정애 안무희 옥선영 이광숙 이성우 이종의 장동희 정서은 조애순 최성희 한제진 혜모스님 황선자
강화자 김남규 김수진 김원순 김춘규 노효정 박도룡 박정노 백삼의 송금희 안석순 옥영식 이광훈 이성임 이종협 장명숙 정선옥 조약식 최순섬 한지연 혜목스님 황성원
고경민 김남희 김수현 김원익 김춘녀 논술문화 박말이야 박정민 백수정 송동호 안선환 왕상헌 이군자 이세달 이주원 장명순 정선자 조영남 최순이 한지이 혜무스님 황수경
고미숙 김대근 김숙이 김유미 김춘희 대각사 박명남 박정부 백승숙 송병권 안수홍 우상인 이귀연 이수영 이주환 장미숙 정설매 조영숙 최아리 한진송 혜문스님 황수영
고삼주 김대석 김숙임 김유민 김태균 대광사 박명순 박정상 백준혁 송복순 안순환 우지예 이근기 이수예 이중기 장미순 정성남 조욱형 최영숙 한혜경 혜민스님 황순희
고은영 김대성 김숙자 김윤관 김태수 대산스님 박명옥 박정선 백진구 송상용 안승원 원법스님 이금숙 이수자 이지성 장성윤 정성택 조은규 최용자 함미옥 혜범스님 황인실
고은주 김대진 김숙희(3) 김윤순 김태숙 덕암스님 박명희 박정숙(2) 법보시 송상욱 안연홍 유강수 이금옥 이숙경 이지숙 장수연 정순남 조의연 최우성 함영자 혜벽스님 황인욱
고의찬 김도형 김순남 김윤자 김태오 도공스님 박무곤 박정자 법성사 송선순 안영옥 유경자 이금재 이숙정 이지은 장양경 정순자 조장현 최유숙 행허스님 혜서스님 황인희
고한순 김동영 김순득 김윤중 김태윤 도양순 박무주행 박정희(3) 법안스님 송선화 안은덕 유경하 이기순 이숙희 이지현(3) 장양순 정연주 조재규 최유정 허경순 혜소스님 황정연
공주학림사 김동우 김순복 김은숙(2) 김택곤 도예린 박미경 박종림 법연스님 송솔이 안의자 유규상 이기영 이순자(4) 이진선 장영민 정연희 조재윤 최은희 허경식 혜솔스님 황태숙
공평근 김동혁 김순봉 김은재 김판례 도우스님 박미선(2) 박종수 변상옥 송숙자 안재필 유매리 이기정 이순희(3) 이진성 장유정 정영기 조정남 최자현 허경자 혜수스님
곽민정 김만순 김순임 김은주(2) 김학수 도원스님 박미자 박종숙 변영자 송순희 안정은 유매옥 이기탁 이승룡 이진욱 장인권 정영숙 조정자 최잠숙 허 두 혜엄스님
곽민준 김명란 김순자 김은지(2) 김한솔 도이환 박미현 박종임 변영희 송용관 안중희 유 미 이기현 이승애 이진주 장지형 정영신 조정해 최재순 허명숙 혜연스님
곽순정 김명선 김순희 김은하 김해숙 도주양 박미희 박종화 변융태 송인서 안지순 유순자 이나금 이승화 이진후 장진성 정영천 조정희 최재원 (사)나누며 하나되기
곽춘자 김명순(3) 김승재 김응태 김향숙 동주스님 박병혁 박주호 보광석재 송정연 안창효 유영복 이낙영 이시용 이창수 장해기 정옥선 조준석 최재혁 (주)우영기술단건축사무소
곽한영 김명아 김시경 김의순 김현국 라귀례 박봉영 박지연 부천보성사 송정자 안충헌 유윤정 이남심 이어영 이창훈 장현만 정옥화 조철환 최점순 한마음선원강릉지원
구본곤 김명옥(2) 김시라 김의식 김현신 류계옥 박부억 박진우 불각행보살 송춘자 안혜자 유은정 이남희 이여주 이채옥 장혜경 정용래 조필순 최정기(2) 한마음선원공주지원
구본국 김명희(2) 김시자 김인옥 김현아 류매리 박분름 박진형 삼보정사 송현헌 양도근 유을순 이달근 이연보 이철규 장혜선 정우스님 조필현 최정애 한마음선원광명선원
구자삼 김무연 김신득 김인태 김현주 류석권 박상섭(2) 박차선 상현스님 송호진 양미옥 유재기 이대섭 이연애 이춘근 장희숙 정욱진 조한주 최종대 한마음선원광주지원
구제근 김무재 김신숙 김장원 김현화 류성열 박선미 박 찬 서경미 신길주 양세욱 유정숙 이대희 이연옥 이춘형 전명국 정은영 조항석 최종열 한마음선원대구지원
구함자 김문희 김안옥 김재방 김현희 류현실 박선엽 박창규 서귀옥 신경자(2) 양소영 유지호 이동건 이연재 이춘희 전명아 정은희 조혜경 최주선 한마음선원목포지원
권갑남 김미강 김애리 김재훈 김형곤 명을식 박성가 박창심 서미옥 신경희 양승철 유찬형 이동진(2) 이영득 이태권 전미자 정의진 조혜정 최준영 한마음선원문경지원
권귀숙 김미경 김애자 김재희 김형두 무문스님 박성례 박채옥 서민자 신남선 양애순 유창연 이말순 이영리 이태연 전병수 정인숙(3) 주대옥 최진규 한마음선원부산지원
권규열 김미란 김양민 김정단 김형준 무원스님 박성수(2) 박철홍 서상덕 신덕근 양연희 윤경희 이명락 이영숙(2) 이해선 전복순 정인자 주미숙 최진붕 한마음선원안양본원
권도현 김미래 김양순 김정덕 김혜경 문경숙(2) 박성열 박춘자 서상옥 신미향 양영모 윤구영 이명숙 이영순(4) 이해천 전상은 정일극 주미정 최춘길 한마음선원울산지원
권명희 김미숙 김양희 김정렬 김혜원(2) 문관호 박성용 박태은 서석순 신선희 양영수 윤기홍 이명순 이영자 이향림 전선예 정재인 주정숙 최춘웅 한마음선원제주지원
권민진 김미원 김언희 김정례 김홍록 문명숙 박소진 박태수 서송자 신성완 양영순 윤나영 이명옥 이영재 이향숙 전성진 정점숙 주춘례 최학우 한마음선원중부경남지원
권영숙 김미지원장 김연득 김정숙(6) 김화남 문미경 박수영 박해소 서영숙 신수영 양영철 윤동환 이명자 이영하 이향순 전순재 정정숙 지호스님 최행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권영자 김민규 김연수 김정아 김화일 문미숙(2) 박수정 박해일 서영호 신양자 양우창 윤병덕 이명희 이영회 이현미 전순조 정정애 진동석 최현창 한마음선원청주지원
권익중 김민근 김연옥(4) 김정애(6) 김효상 문선희 박숙자(2) 박향적 서은애 신영찬 양현임 윤상기 이미라 이영희 이현주 전영경 정정자 진말련 최현희 한마음선원통영지원
권정숙 김민선 김염순 김정옥 김효성 문성현 박숙희 박현숙 서점옥 신영희 양현주 윤상민 이미숙 이옥수 이형신 전영옥 정정희 진복선 최혜숙(2) 한마음선원포항지원
권정애 김민자 김영규 김정희(2) 김후곤 문수진(2) 박순기 박형채 서정복 신인임 양호성 윤선애 이미애 이옥희 이혜권 전은범 정종노 진일스님 최화자
권정화 김민주 김영봉(2) 김제성 김희경 문수홍 박순연 박혜경(2) 서정선 신재근 양희성 윤수연 이미옥 이왕구 이혜산 전일소행 정지경 차순자 최희숙
권혁명 김병호 김영석 김종구 김희봉 문순옥 박순옥(2) 박혜선(2) 서정우 신재민 양희원 윤수영 이미자(2) 이용로 이혜숙 전정순 정진권 천명순 최희승

※이름은 가나다순

후원동참문의 02-2004-8200, 02-2004-8212